

민족 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박 명 윤

이 명 숙 편

한국청소년연구원

목 차

Guidelines and Problems of Education Unification in	1
United Germany	
(독일 교육통합의 기본 방향과 문제점)	
Unification of the Chinese Nation and Its Youth Problems	33
(중국 통일과 청년문제)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63
중국 소수 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	75
남북한 청소년교류 방안	87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 :	101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 분석」에 대한 토론.....	105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대한 토론	109
「국제학술회의」 토의내용	113

독일 교육통합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프란츠 뢰겔러
아헨대학교

Guidelines and Problems of Education Unification in United Germany

Franz Pöggeler
Aachen University

A truly democratic economic, social, and legislative unification of both parts of Germany can only be successful if a unification in education takes place along with them. In the area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there has been a shortage of democracy since 1933, i.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is will not be attained by introducing it as a form of legality ; it must become customary as a form of life. That will take years.

I . The Year After the Turning Point

What has changed in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former GDR since November 9, 1989? In part, helplessness still predominates, and teaching and training personnel are still waiting to see what new things will be decreed from the top ; in part, a tactic of accommodation has come to the fore which is embarrassing for critical observers to note. At universities and th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where teachers and educators are trained, professors who were formerly members of the ruling Socialist Unity Party (SED) arouse the impression that a change in organization is all that is required. Chairs for Marxism/Leninism have been renamed "political science." Old subject matter is suddenly being offered in fashionable Western terminology, so that uncritical students could think that democracy always had been the order of the day in the GDR. Professors who, up to the time of the turning point, had maligned their colleagues from the Federal Republic at conferences in the West as revanchists, capitalists, and imperialists, now act as if they were old friends. The 1990 Congress of the German Education Association was

독일 교육통합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프란츠 뢰겔러

아헨대학교

동서독의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인 통일은 교육에서의 통일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옛 동독지역에서는 1933년 이래, 즉 반세기보다도 더 많은 세월동안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률적인 형태를 도입한다고 해서 획득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삶의 형태로 습관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세월이 걸리는 일이다.

I. 전환점 이후

1989년 11월 9일 이후 옛 동독의 교육체계에서 변한 것이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무력감이 아직도 팽배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고위층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부분적으로 적응의 전략이 전면에 나오고 있지만 세심히 관찰해 보면 어리둥절할 뿐이다.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예전에 통합 사회주의당의 멤버였던 교수들이, 필요한 것은 조직의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강좌는 정치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옛날의 주제들은 갑작스럽게 세련된 서구적 용어들로 바뀌었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동독의 일상적 질서였던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 전환기를 맞이하기 이전까지 서독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서독출신의 동료들을 보복주의자, 자본가, 또는 제국주의자라고 비방했던 교수들은 지금은 서독의 동료들을 옛친구인양 생각하고 있다.

독일 교육학회의 1990년 연차대회에 옛 동독에서 100명이 넘는 교육학자들이 참석했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최근 몇년동안 이러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데 이는 그들의 참가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참가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attended by over 100 educators from the former GDR, most of whom had never been seen at similar events in the recent past, not because they were not allowed to come, but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It is true that the directors of the general-education and occupational schools were summarily relieved of their posts and replaced by successors whose thinking the school administration assumed was democratic, but research at the local level reveals that many of the new ones are former SED members, as well. Has the fox been appointed to keep the geese?

Old schoolbooks are still in use because there are no new ones—despite the import of large amounts of schoolbooks from the West. The mentality and concepts they contain is often not immediately comprehensible to teachers and pupils because they presuppose too much foreknowledge of the democratic way of life. It will still be a few years before new *curricula and examination regulations* have been worked out, apart from new textbooks. Those from the West cannot be transferred by ministerial decree—the two parts of Germany have drifted too far apart intellectually, not just politically, in four decades and have become two quite estranged nations as regards education. Precisely 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chool systems of the two parts of Germany it can be seen that not much is left of the cohesive force of the great German cultural tradition, which was indeed pan-German.

In the year after the turning point, some organizational forms of erstwhile Marxist education and “youth work” in the eastern part of Germany disintegrated, but some of them—while retaining personnel and goals—have been shrewdly adapted to western standards. For example, the youth hostels of the former GDR, owned by “Jugendtourist”, an affiliate of the FDJ (Free German Youth), have been changed into a seemingly politically neutral *Youth Hostel Administration* patterned on that in the Federal Republic, but with former SED functionaries in the new leadership. As of 1991, a fusion with the German Youth Hostel Administration was to take place, at which juncture *residual political liabilities* were to be assumed. Here, as in the schools an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t is very difficult to discern wher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has really been plausibly achieved and where it has not.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책임자가 줄줄이 그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학교행정가가 생각하기에 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후임자가 새로운 자리를 차지했지만, 지방에 촛점을 둔 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옛 동독의 집권 사회당원임이 밝혀졌다. 거위를 보호하기 위해 여우가 임명된 것인가?

동독에서는 아직도 옛날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서독에서 많은 양의 교과서가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새 책을 구경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서독에서 온 교과서에 포함된 정신이나 개념은 동독의 교사나 학생에게 금방 이해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서독의 교과서가 민주적 생활양식에 대해 사전지식이 많을 것을 가정하고 집필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과서는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험의 규율이 정착되는데도 아직 몇년이 더 걸릴 것이다. 서독에서 온 모든 것들이 행정적인 법령만으로 변형될 수는 없다. 동서독이 지난 40년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너무 떨어진 채 표류했고, 동서독의 교육만 보더라도 이들 나라가 두개의 아주 소원한 국가가 되었다. 동서독의 학교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살릴 응집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통독이후 옛 동독에서는 옛날의 맑스주의적 교육과 “청소년 활동(youth work)”의 몇몇 조직 형태가 와해되었지만, 그것 가운데 몇몇은 똑같은 구성원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서구적 기준에 교묘히 적응되었다. 예를 들면, 옛 동독의 유스호스텔은 자유독일청년협회(Free German Youth)의 지부였던 “청년여행자(Jugendtourist)”가 소유했지만 서독에서 형성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스호스텔협의회(Youth Hostel Administration)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옛 동독 집권당의 관리가 여전히 대표자로 있었다. 1991년에는 독일유스호스텔협의회와 통합했고, 이때 잉여적인 정치적 책임이 보장되었다. 여기에서도 학교나 고등교육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어디에서 진정으로 성취되었고 어디에서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II. Democratization : a Problem of Personnel

The greatest difficulty in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lies in the fact that the great majority of the teachers, educators, and training personnel in the former GDR were *Trained in the spirit of Communism* and are not yet familiar with democratic thinking and modes of action. It is a good sign that even university professors who were hitherto responsible for teacher qualification are inviting West German experts so that they can familiarize them with democratic education theory and politics in intensive seminars.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has to begin with personnel reform*, in a radical and comprehensive reform of teachers' training. It will be a few years before a new democratically educated generation of teachers and trainers has assumed responsibility in schools, kindergartens, day-care centres, in occupational—and adult-education facilities. Until then one will have to make do with the people available now—just as after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in 1945. One should think that every teacher and trainer is convinced of the failure of Communism, since it did not succeed in the almost 75 years since the Revolution of 1917 in establishing a more just social order and a better standard of living for the masses. But the after-effects of relics of the old spirit will have to be expected in future, too. Ideologies are more tenacious than the arguments refuting them.

That *watchfulness* is required was evident when new readers were introduced in the primary schools of the former GDR at the end of 1989 : the beginning pupils were instilled with the song of the (Communist) “Young Pioneers”, and there were pieces on such erstwhile (Communist) models as *Ernst Thälmann* and *Wilhelm Pieck*. It must be suspected that with the teachers of the former GDR, too, the tactic of going underground temporarily can be followed by activity from there and a re-emergence with a purported democratic alibi. This is reminiscent of the excesses of re-education after 1945, when many a perpetrator restyled himself into a victim and atheists became Christians.

Ⅱ. 민주화 : 인간의 문제

교육통일의 최대의 어려움은 옛 동독의 교사, 교육자, 그리고 훈련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정신에서 훈련되었고, 아직도 이들이 민주적 사고나 행위양식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사양성에 책임을 지고 있던 대학교수들조차 서독의 전문가를 세미나에 초빙해서 민주적 교육이론과 정치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라 보여진다. 교육통일은 교사훈련의 급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포함하는 인간의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롭게 민주적으로 훈련받은 교사나 트레이너들이 학교나 유치원, 보육원, 그리고 성인교육시설의 책임을 맡기 위해서는 몇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1945년 나찌 독일의 붕괴이후에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탱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교사나 트레이너들은 공산주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1917년의 혁명이래로 거의 75년 동안 보다 정당한 사회질서와 대중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날의 정신적 잔재의 파급효과가 앞으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예상외로 끈질긴 면이 있는 것이다.

경계와 주의의 눈초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1989년 말에 옛 동독의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독서교재가 소개되었을 때 분명했다. 1학년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자의) “젊은 선구자”라는 노래를 조금씩 가르쳤고, 어네스트 텔만(Ernst Thalmann)이나 빌헬름 피크(Wilhelm Pieck)와 같은 흘러간 공산주의자의 모델에 대해서도 약간 가르쳤다. 옛 동독의 교사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들이 일시적으로 지하로 잠적했다가 그곳에서의 활동을 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알리바이를 꾸며될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1945년 이후의 무리했던 재교육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꾸며냈고 무신론자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III. Educating to Partnership Instead of Hate

For decades the youth of the GDR was infused from kindergarten on up to the university with the idea that West Germany was the *enemy* : it was from the West that the purported threat to peace emanated. In Pioneer halls and schools of the GDR, this was documented by murals, slogans, and songs. Has that been without after-effects? It would be naive to assume as much, even though for years the contrasting image of the “golden West” had become as appealing goal to GDR youth. But this, too, is not a picture of reality, but an illusion—which has been unmasked as such since matters now depend upon personal initiative and active responsibility for oneself and others.

I mention in passing that it should not be forgotten in the West that at the universities of the former GDR the vast majority of the young people studying there were in conformance with the ideology of the regime, whereas children from families active in the church or who lead a consciously religious life were refused admission to higher studies.

The consequence was that a leadership elite emerged that conformed with the system rather than criticized it—and perhaps it still is that way. It is high time for the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o be opened now to all qualified young people. But here another problem arises : the idea of the enemy in the West was primarily produced at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whose faculties were the product of the principle of self-recruiting. If this principle were to remain intact without restrictions and not be temporarily lifted, a Communist elite of professors in many fields would only take on assistants of their own kind ; but what is required is that at last a *plurality of doctrines* come about, corresponding to the political variety of democracy. That is only possible when scholars from states having experience with democracy are appointed. Admittedly, one (West German politician/professor) Biedenkopf at the Karl Marx University of Leipzig does not constitute a major political change—this would require a veritable invasion of democratic personnel. Even now, the warning has been voiced against this tendency of a “democratic colonialism”. This deserves an unqualified answer : “Using its own training and teaching personnel alone, a democratic educational system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former GDR.”

Ⅲ. 증오가 아닌 동반관계의 교육

몇십년동안 동독의 젊은이들은 유치원에서 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적은 서독이며 평화에 대한 위협은 서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동독의 선구자의 기념관이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벽화나, 슬로건으로, 또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의 영향이 어찌 없을 수 있는가? 비록 몇년동안 "풍요한 서독"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동독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되었지만, 이것의 영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도 순진한 짓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실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통독이후 다 밝혀졌고, 현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선을 잡느냐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책임을 지느냐에 달려 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옛 동독의 대학에서 공부한 대다수의 젊은이가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했다는 사실과, 반면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정이나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향유했던 집안의 자녀들은 고등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서독에서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결과 체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지도자가 나왔고, 아마 아직도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대학이나 다른 고등교육기관이 모든 능력있는 젊은이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 시급한 시기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뒤따른다. 서독에 대한 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생겨났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자기 고용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러한 원칙이 제약없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분야의 교수들 가운데 공산주의 지성인들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 취할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정치적 다양성과 일치하는 정치적 신념의 다원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는 학자들이 등용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라이프찌히의 칼 맑스대학의 교수이자 정치가인 비텐코프(Biedenkopf)가 주요 정치적 변동의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다원성은 민주적인 인물의 진정한 등장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까지도 “민주적 식민주의(democratic colonialism)”에 대항하는 경고가 높다. 이것은 대충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옛 동독 지역내의 교육인력 만으로는 민주주의적 교육체계가 옛 동독에 수립될 수가 없다.”

Democracy requires thorough and constant practice, also involving a marked expansion of *youth-exchange programmes* between the two parts of Germany. At the moment, school students' mutual knowledge of the other perspective of German reality is still minimal, which is equally true in the West as well. There is a need of reform in the whole of united Germany. School students from Rostock or Dresden were hitherto able to get a look at points in the West with "Jugendtourist", but usually in the form of a political pilgrimage to Trier and Wiebelskirchen, the birthplaces of Karl Marx and Erich Honecker respectively ; now the young people should be able to move about and inform themselves freely, even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Germany, so that they can learn to compar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nd in place of ideologically contrived enemies experience a "family of mankind" based on active tolerance and peaceful relations. A change of mentality of this kind is far more important than any correc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education, although in this regard, too, some things need changing.

Thanks to their new mobility, young people will discover a wealth of German culture which they had not known till now due to the Wall and Iron Curtain. Part of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is the fact that the state no longer puts on the air of being omnipotent, but has receded from many areas, so that here the citizens can freely make plans, decide, and act. For young people this begins with the planning of leisure, i. e., that they can now freely travel and hike without depending on directions from the authorities. Individual tourism had hitherto been difficult for young people in the GDR ; the state could more easily control organized groups than independent singles.

The quicker a democratic educational reform is carried out in the former GDR, the less young people will move to the West because they expect to find better training and occupational opportunities there. The level and performance potential of the Federal Republic's educational system must be attained in Saxony, Thuringia, Brandenburg, and Mecklenburg as soon as possible.

민주주의란 양독일 사이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괄목할 만한 확산을 포함해서 철저하고 끊임없는 실천을 요구한다. 아직까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독일의 현실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상호이해가 낮은 수준이고, 이러한 현실은 서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된 독일 전체를 통틀어 개혁의 필요성이 크다. 지금까지 로스톡(Rostock)이나 드레스덴(Dresden) 지역의 학생들은 “청소년여행자” 단체를 통해 서독의 몇몇 지역을 볼 수 있었지만, 이것 마저도 칼 맑스나 에릭 호네커(Eric Honecker)의 출생지였던 트라이어(Trier)나 비벤스키첸(Wiebelskirchen)의 정치적 순례형태에 그쳤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자신의 교양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독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비교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적지에서 적극적인 아량과 평화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인류가족공동체(family of mankind)”를 체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적 변화가 교육제도의 조직적 개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물론 조직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어느정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저기로 여행할 수 있었던 덕분에 젊은이들이 베를린 장벽과 철의 장막에 가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풍부한 독일 문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통합의 몇몇 영역에서 국가가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있으며 또 많은 영역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다. 그결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계획수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들은 당국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 여행은 지금까지 동독의 젊은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가는 독립적인 개인보다는 조직화된 집단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 민주적 교육개혁이 옛 동독에서 빨리 이루어지면 질수록 서독으로 이동하는 젊은이의 숫자는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서독에서 양질의 훈련과 더 많은 직업적 기회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독교육체계의 수준과 실천의 잠재성이 가능한 빨리 삭서니(Saxony), 튜링지아(Thuringia),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그리고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에서도 달성되어야 한다.

IV. On the Situation of Religion in the Two Parts of Germany

Since 1945, many people left the church in the Soviet-occupied Zone(SBZ) and, later, the GDR. One effect of Communist propaganda was that the "Jugendweihe" ('youth consecration') became a more or less established institution—and for some of the families it was an alternative to confirmation or first communion. The point of this initiation ceremony was the pledge of allegiance of the maturing young citizen to the Communist state ideology. If youth-consecration ceremonies have been retained in many communities even after the "turning point", this has not been just because of the presents which the young people receive at this event.

At present the *public influence of the churches*(the Protestant as well as the Catholic, which exists in the former GDR in the diaspora) is still rather slight, less than that of the West German churches ; and yet there are many things in common on both sides, thus, for example, regarding the crisis in religious instruction in schools and religious upbringing in the family. Similar things can be said about the spread of materialism in thinking and actions ; the practical materialism of the West is no less dangerous than the dialectical materialism of the East, to which the practical will perhaps be added in the East, as well.

Similar parallel problems exist in both parts of Germany as regards the liberalization of sexual contacts and the frequency of divorces and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Perhaps this will give cause for a common initiative by Christians. However, at present not much is to be seen of it ; a careful wait-and-see attitude can be an expression of un-Christian pessimism, but also of a lack of confidence of faith and pastoral vigour. That has to be examined as the case arises.

As long as the conversion from a state-run economy to a social market economy has not yet been successfully completed, concern about a secure place in society, material well-being and a steady job seem to be more pressing than concern about the salvation of the soul. Even a problem as crucial as the protection or ending of life in embryo, which is an issue in both parts of Germany, receded into the background when the final

Ⅳ. 양독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1945년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동독이 된 쏘련군 점령지를 떠났다. 공산주의자들의 선동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헌신(youth consecration)”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었고, 어떤 가족에게는 청소년 헌신이 성인식이나 최초의 성찬의례의 대안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회식의 초점은 자라나는 젊은 시민들이 공산주의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의 서약같은 것이었다. 만약에 이러한 청소년 헌신 의례가 양독 통합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속된다면 이는 젊은이들이 이 의례에서 받는 선물 때문인 것은 아니다.

현재로는 교회(즉, 개신교도와 옛 동독에 흩어져 존재했던 카톨릭교도)의 공식적 영향력은 미미하고 서독 교회의 영향력보다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양독은 종교에 관해서 공통점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나 가정에서의 종교적 양육을 위기로 규정한데서 알 수 있다. 비슷한 위기가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물질주의의 만연에서도 느껴지고 있다. 서독의 현실적인 물질주의가 동독의 변증법적 물질주의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말할 수 없고, 이러한 서독의 현실적 물질주의가 아마 동독에도 역시 팽배할 것이다.

양독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성적 접촉의 자유화나 이혼이나 혼전 동거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다. 아마 이러한 문제가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 없다.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두고 보자는 태도가 비기독교인의 비관론이거나, 신앙과 목회자의 열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의 표현일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부각되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도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환이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는 한, 안전한 지역에 대한 관심, 물질적 풍요, 그리고 안정된 직업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더 절실하게 보일 것이다. 양독에서 이슈가 되었던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이슈도 독일 통일에 대한 최종적인 입법적,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정리할 때 슬며시 뒤로 사라진 문제가 되었다. 교회 당국자로부터의 훈계도 있었지만 이를 마음에 담아 두는 사람은 없었다.

legislative,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of Germany was at issue. Admonitions from church authorities were heard, but not heeded.

In the GDR, the state had made *atheism socially acceptable*. The embracing of atheism was for four decades in the GDR the prerequisite for attaining higher office in the state. Religion was, to be sure, no longer derided publicly as “opium for the people”, but it was turned into a completely private affair instead of a factor of public life. Therefore, religion was not a subject for the public schools and educational system. Where in Christian educational institutions crosses and pictures of the saints hang, the pictures of Marx and Lenin, of Rosa Luxemburg and Ernst Thälmann, of Walter Ulbricht and Wilhem Pieck hung in schools of the GDR. Whereas the state theology took on a ritual character at demonstrations and celebrations, parades and state ceremonies, it had the effects of a kind of surrogate religion. Many GDR citizens resigned themselves to this, they were even content with it. What is now—after the end of the Communist regime—the basis of their faith and thinking? This is a question the churches should ask themselves, too.

V. Out of the Shadows to Freedom : the Situation of Christian Teachers in the Former GDR

For four decades it was not possible in the SBZ or GDR to impart advanced training publicly to Christian-thinking teachers in institutions providing occupational qualifications. In the bishoprics of the GDR, there were certain *initiatives for Christian advanced-teachers' training*, but they were necessarily confined to the political fringe and even to a kind of illegality. More than once I held courses of several days' duration in East Berlin—on Pappelallee on Prenzlauer Berg in a monastery and in Weissensee on Gürtelstrasse, in the Caritas House, where Cardinal Alfred Bengsch lived—for teachers from throughout the GDR. Such courses could never be announced publicly, and for some participants it was risky to travel from far away not seldom—particularly in the sixties, at the time of the Cold War—that a kind of catacomb attitude prevailed. As a speaker one couldn't carry the manuscript of one's talk around on one's person ; they were sent

동독에서는 국가가 무신론을 사회적으로 공인하였다. 무신론을 옹호하는 것이 동독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 고위직을 획득하는데 필요조건이었다. 종교는 이제 더이상 공식적으로 “민중의 아편”이라고 조롱받지는 않지만, 종교가 공식적인 삶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종교는 공립학교나 교육체계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한다. 기독교계통의 교육기관에서는 십자가나 성화들이 걸려있고, 동독의 학교에서는 맑스나 레닌, 룩셈부르크(Luxemburg)나 텔만, 울브리흐트(Ulbricht)나 피크의 그림들이 걸려 있다. 국가 종교가 시위나 축제, 퍼레이드나 국가 행사에서 의례적인 특징을 띠고 있음에 반해, 그것이 일종의 대리 종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동독의 많은 시민들은 종교를 단념하고 살고 있으며, 사실 이것에 만족하기까지 한다. 공산정권이 붕괴된 이후 현재의 동독인의 신앙과 사고의 기반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교회 스스로가 던져야 할 의문이기도 하다.

V. 어둠에서 자유로 : 옛 동독의 기독교도 교사들의 상황

지난 40년 동안 동독에서는 직업적인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기독교도 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고급 훈련을 전수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동독관구에서는 기독교도 교사를 위한 고급훈련의 계기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정치적 가장자리에 한정되거나 심지어 일종의 불법으로까지 간주되었다. 나는 동베를린에서 동독 각지에서 온 교사들을 위해 수일 동안 계속된 강좌를 한번 이상 가졌다. 그러한 강좌는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불가능했고, 어떤 몇몇 참석자들에게는 “동독의 수도”까지 그렇게 멀리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했다. 그러한 고급 훈련을 위한 모임에서는 일종의 비밀통로와 같은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특히 냉전시대였던 60년대에 그러했다. 연사로서 자신이 발표할 원고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는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고, 원고는 서베를린으로 미리 보내졌다. 본인의 원고가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발표석에 미리 도착해 있을 정도였다.

2년동안 동독관구협의회회의의 간청으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대학공부를 하지 못한 교육자들을 위한 고급 훈련 과정의 책임자로 일했다. 통신수업과 직접적인 강의를 통해 기독교 교육이론의 기반과 교리문답에 대해 공부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도 치렀다. 강의기간중에 모든 참가자들은 40가지 기본과목에 대해 많은 책도 받았다. 철의 장막이나 베를린의 벽을 넘어서는 수송작전도 현대적인 기술의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사실 이것마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ahead of time to West Berlin, and I found mine again on the Conference of Bishops of the GDR, I headed an advanced-training course for educators who had not been admitted to university studies because of their active membership in the Church ; in a combination of correspondence course and direct studies, they were informed about the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theory and catechism ; at the end of the course, they took an examination. During the course, every participant received a small library for some 40 basic subjects ; transports over the Iron Curtain or the Berlin Wall was a dashing feat of modern logistics, as this was of course strictly prohibited.

What these educators and teachers needed was above all *encouragement to service in faith* in a political environment that was totally hostile to the church.

Now that the way of the shadows to freedom has been opened up, memories of the recent past should be carefully preserved and the people who vehemently prevented Christian education's development should be explicitly reprimanded. These people are still ensconced in school-administration positions, experienced as they are in the "turncoat" tactics of transforming oneself from a perpetrator to a victim. At educational conferences in the West they turn out in great numbers—for them there doesn't seem to have been any past.

The first task of advanced education of teaching personnel in the other part of German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istakes of the past, but even more on the foundations of Christian and democratic school. Here—based on experiences at conferences—a drastic picture must be painted : basic textbooks which are generally known here in the West have not been available to date in the former GDR ; for this reason, there is a high rate of ignorance about many things that are the staples of knowledge of every teacher in the West. This includes information on teacher's rights, freedom of method, and criteria for an objective selection of textbooks. This also includes familiarizing oneself with the rules and values of democracy, with civic courage, freedom of religion and thought, with the basic right to find and maintain associations.

As is well known, there was previously no plurality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ducators and teachers in the GDR. Now there will be new ones founded, a rivalry between associations will ensue, a competition of educational goals will develop between

이러한 교육자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대해 완전히 적대적인 정치적 환경에서도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용기였다.

지금은 자유를 가리우는 그림자는 열렸고, 최근의 기억들은 조심스럽게 보존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의 발전을 강력히 저지했던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고위 행정직에 안주하고 있고, 자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형시키는 "변절자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독에서 열린 교육자 대회에 참석한 그들의 숫자는 엄청났고, 그들은 마치 과거가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동독의 교사재교육의 우선적 과제는 과거의 오류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적 학교나 민주적인 학교의 기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자대회의 경험으로 볼 때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독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본적인 교과서가 아직 옛 동독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서독의 모든 교사들이 알고있는 많은 지식에 매우 무지한 실정이다. 이것은 교사의 권리, 교수방법의 자유, 교과서의 객관적 선택기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규범과 가치, 시민적 용기, 종교와 사상의 자유, 조직을 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등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동독에서는 교육자나 교사를 위한 전문적 조직들이 다양하지 못했다. 지금은 새로운 조직들이 결성될 것이고, 조직사이의 경쟁의식도 생길 것이다.

새로운 교사조직 사이에서 교육목표에 대한 경쟁도 발전될 것이며, 급기야는 이러한 조직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새롭게 나타나서 민주적인 학교체계의 형성에도 아마 반영될 것이다.

the new teachers' organizations and, finally, political influence of these organizations will be exerted in the build-up of a new and hopefully democratic school system. As long as many school principals and school-administration officials are still in office who were in charge in the time of the SED, watchfulness and criticism are the order of the day. Christian teachers are now more entitled than they are to assume top responsibilities and to do away with the relics of intellectual dictatorship once and for all. This won't be easy when one takes note that since November 9, 1989, not a few forme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have taken up positions in the school system.

The state-run "Houses of the Teacher", which until November 9, 1989 were officially responsible for keeping teachers in step educationally and mentally, must be deprived of their monopoly in the advanced education of teachers. The overpowering Marxist-Leninist element must be removed by immediate surgery from the further and advanced teacher's training organized by the state, which will be continued in future, as well, and the instruction plan of advanced teachers' training should be strictly converted to plurality and liberalism—with as active and competent co-operation of Christians with teaching certificates as possible.

VI. The Establishment of a Religious System of Education in the former GDR

Even if secularization was radically advanced in the former GDR and the influence of the churches diminished, there are today perhaps *greater opportunities* for establishing a model Christian educational system than there after the end of the National Socialists regime. For the eastern part of Germany, which has lapsed into a severe recession economically and culturally, has an economically potent and politically strong western part of Germany at its side, whereas after 1945 all of Germany lay in a state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struction.

Of course it should not be rashly inferred from the surprising echo that Christian parties have found in the former GDR that this is now a Christian state. "Christian" is for a portion of the voters synonymous with "conservative"—and not a sign of a religious

많은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가들이 동독의 옛 집권 사회주의당 시절에 차지했던 직위에 버티고 있는 한 경계와 비판이 일상적 일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 교사들은 많은 책임을 지고 또 지적인 독재의 잔재를 단호하게 폐지하기 위해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1989년 11월 9일 이래도 옛 국가안전부 관리들이 학교체제에서 차지한 자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1989년 11월 9일까지 교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공식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국영 “교사의 집(Houses of the Teacher)”은 교사를 위한 재교육에서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앞으로의 교사 재교육에서 지금까지 군림했던 맑스-레닌주의적 요소가 즉각적인 수술로서 제거되어야 한다. 또 고급 교사 훈련을 위한 강습계획이 교사 자격증을 가진 크리스찬 교사의 적극적이고 유능한 협조를 받아 다원성과 자유주의로 엄격히 변환되어야 한다.

Ⅶ. 옛동독의 종교교육체계의 수립

비록 세속화가 옛동독에서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또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해도 모범적인 기독교적 교육체계를 수립하기에 나찌정권 종식 이후 보다 더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동부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심각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서부 독일이 곁에 있는 반면에, 1945년 이후의 독일은 독일 전역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파괴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 정당이 옛 동독에서 생겨났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이곳이 현재는 기독교 국가라고 경솔히 추론해서는 안된다. “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이 많은 투표인들에게는 사회의 종교적 복귀의 표시라기 보다는 “보수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renewal of society.

The newly founded organizations must begin almost from scratch—at least in the school system—because the school system of the GDR was totally state-run. Even the question whether *religious instruction* should be included as a regular subject of instruction in all public schools, as it is in the West, has not been met by total agreement in the eastern half of our new state, and this instruction if left entirely up to the churches, i.e. is more or les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phere. There will not be many Christian schools on the other side of the Werra and Elbe, but they could become exemplary and model schools which, by appealing to the whole person, could become particularly attractive for children and parents and perhaps for especially capable teachers as well. Besides, specifically Christian schools are needed so that ecclesiastic leadership can be educat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For the further and advanced training of Christian teachers *new institutions* will also have to be established in the areas of central and eastern Germany—with a demand for public recognition and subsidies from the state. In the basic training of future teachers at universities and normal institutions scholars of a decidedly Christian bent must be involved. This is an important requirement of appointment policy which has already begun to take effect. The churches should devote careful attention to this and encourage qualified young scholars in their midst to launch on a teacher-training career. All further and advanced teacher training is not worth much if basic training has not been well rounded.

Basically there is a huge deficit of *Christian institutions* in all areas of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GDR. The dioceses between Eichsfeld and Görlitz will not be able to compensate for this deficit on their own—here the assistance of West Germany is indispensable and of course consult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n the form of educational joint ventures.

Concern about the most pressing and urgent matters must, however, not distract our attention from that task of united German education which will probably be the most complicated in the future : the *critical, honest overcoming of the intellectual monopoly of Marxism-Leninism* during the four decades the GDR existed. The rather negative

새로 설립된 조직들은 적어도 학교체계에 관한 한 거의 황무지에서 출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옛 동독의 학교체계는 완전히 국가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이 모든 공립 학교의 정규교과과목에 포함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마저도, 서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동독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러한 종교교육은 전적으로 교회에 넘겨졌는데, 말하자면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종교교육이 변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웨라(Werra)와 엘베(Elbe)의 반대편에는 기독교 학교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아동이나 학부모, 또는 능력있는 교사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시범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학교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종교계의 지도력이 동독에서도 배양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크리스찬 교사들의 고급 훈련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이 중부 및 동부 독일에 설립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대중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을 따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보통의 기관에서도 미래의 교사를 위한 기본훈련에 분명히 기독교적 경향을 가진 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그 효력이 발생된 인사정책의 주요 필수조건인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실력있는 젊은 학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에 교사훈련에 종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사실 기본훈련이 잘 정립되지 않는다면 후속되는 고급훈련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독의 각급 수준의 교육영역에서는 기독교 교육기관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이다. 아이츠펬드(Eichsfeld)와 쾰리츠(Gorlitz) 사이의 주교관구들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부족함을 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서독으로 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조언, 협동,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합작투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동반의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아마도 앞으로 가장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될 통일된 독일의 교육에 대한 과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제는 지난 40년 동안 동독에 실재했던 맑스-레닌주의의 지적 독점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솔직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찌와의 “타협”이라는 다소 부정적 과거 경험을 여기에서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perience with the "coming to terms" with the National Socialist past should serve as a lesson here. Already many "turncoats", big shots and small, have turned the renunciation of the totalitarian past into a farce and have put the high ideal of democracy in danger of becoming superficial and distorted. Skepticism is the duty of critical citizens.

Just as with economic, social, and legislative unification, there will be setbacks and disappointments with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too, for example in the establishment of a concordance between the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system. Many young people in the East will at first not comprehend that certification of occupational qualification will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m a job in the line of work they have learned, and that they must prove themselves in a competitive system on their own initiative. But the citizens in the West and East must realize that the advantages of the unification of the long-separated parts of Germany predominate.

VII. The Situation Three Years after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It is clear that only in three years a unification of two formerly antagonist states can not be performed. But a lot of the inhabitants of East Germany are disappointed, because up to now they did not win the wished high standard of life, for which they wanted the integration into the democratic West. They are impatient,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reforms do not proceed quickly enough. At many points in administration, industry and also education functionaries of the old communism have returned in key-positions and built up a kind of passive resistance. The new free market has caused an enormous rate of unemployment, though the new democratic state has bettered the salary of many people.

The political enthusiasm of the year 1989 is blown away, and here and there some groups wish a return to the abolished communist system of living and working. A great part of the female employees are angry with the new state, because working mothers have no longer the opportunity to let their children educate in day continuation hostels or children gardens.

이미 변절자들이 전체주의적 과거의 포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고귀한 이념을 작위적이고 왜곡되게 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 회의의 눈초리가 비판력을 가진 시민의 의무인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입법적인 통일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통일에 대해 좌절과 실망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체제와 직업체제 사이의 일치를 수립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실망이 생길 수 있다. 동독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은 직업적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들이 배운 일과 연관되는 직장을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들 스스로 경쟁체제 안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서독의 시민들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독일의 통일로부터의 잇점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점이다.

VII. 통일 3년이후의 상황

옛날에 서로 적대적이었던 두 국가사이의 통합이 3년만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동독인들이 실망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민주화된 서독으로의 통합으로 인해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원했던 삶의 수준 향상이 현재까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은 참을성이 없어졌는데, 사회 경제적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부나 산업계, 그리고 교육 분야의 여러 곳곳에서 옛 공산주의의 관리들이 주요 자리를 다시 차지하였고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하였다. 비록 새로운 민주국가가 많은 사람들의 봉급을 올려주었을 망정 엄청난 실업률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1989년의 정치적 열정은 사라졌고 여기 저기서 여러 집단들이 삶과 노동에 있어서 철폐된 공산체제로의 회귀를 갈망하고 있다.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새로운 통일국가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하는 엄마들이 더이상 그들의 아이를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A new alien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has come up in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the standard of life is still lower in the East. Teachers, policemen and other officials from the West, who voluntarily work for some time in East Germany, are often not welcome there. The problem is, that in the Eastern population there are not yet enough experts from many vocational positions. In the institutions of education a great part of the positions was “cleaned” from formerly communist teachers and occupied by teachers from the West. Television and newspapers report much about the new contrast between “ossies” and “wessies” (people of the East and the West of Germany).

Politicians were very surprised by the fact, that little active groups of young people (skinheads) have organized radical and nationalistic actions against foreigners. The consequence is a new youth criminality with assaults on foreign people. A new Nazism has come into existence. Nobody of the experts of education did expect this. The way from the radical left (Marxism) to the radical right (Nazism) seems to be rather short.

Due to the shutdown of formerly communist youth centers great parts of the youth “lie on the street” in their leisure-time. A practical materialism followed to the dialectic materialism, and new waves of consuming have come up.

Of course we should not forget, that on the whole the situation of life is extremely better than in the era of the totalitarian communism. But the democratisation has not yet fulfilled all the wishes of the people in the German East. Perhaps they wished too much—and too much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ermans in the West. Functionaries of the old communism misuse the rather bad mood among the youth in East Germany to develop a skillful strategy of “post-socialism” and by remembering at what they call “proved achievements” of the former communism. But the majority of the people is critical enough not to follow these hidden persuaders.

VIII. Consequences for the Education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imilar to Germany, also Korea was divided into two separate states after the Second

동서독 간의 새로운 소외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도 옛 동독의 삶의 수준이 서독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동독에서 얼마동안 자발적으로 일하기 위해 서독에서 온 교사나 경찰, 그리고 다른 관리들은 동독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한다. 문제는 동독 인구 가운데 수많은 일자리를 채울 만한 전문가들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교육계에도 많은 자리에 옛 공산주의자였던 교사들이 “일소”되고 서쪽에서 온 교사들에 의해 채워졌다. T.V와 신문은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의 새로운 대조를 많이 보도한다.

정치가들은 (머리를 뻑뻑 밀어붙인) 몇몇 열성적인 청년집단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행동을 조직화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새로운 청소년 범죄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새로운 나찌즘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상한 교육전문가는 하나도 없었다. 급진적 좌익(맑시즘)에서 급진적인 우익(나찌즘)으로 변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 졌다. 옛 공산주의사회의 청소년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거리로 나쳤다.” 현실적 물질주의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뒤따랐고 새로운 소비풍조가 생겨났다.

물론 전반적인 삶의 상황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시대보다는 무척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주화가 동독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마 동독인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서독으로 부터 너무 지나친 재정적 재원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옛 공산주의 관료들이 그들이 이름붙인 옛 공산주의의 “증명된 성취”를 기억함으로써, 또 “후기사회주의”의 교묘한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독의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한 나쁜 무드를 악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교묘한 음모자들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비판력이 높다.

VIII. 남북한 교육통합의 결과

독일과 비슷하게 한국도 2차세계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되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립의 희생자가 되었다.

World War and became a victim of the contrast between the communistic and the capitalistic part of the world. While the unification of West and East Germany has started in 1989,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expected in a perhaps not too far future. After four decades of existence the collage of the DDR (the formerly communistic part of Germany) happened very suddenly, and the big change into the direction of democratisation was not enough prepared.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the possibility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that were made in Germany in the three years since the "soft revolution" and to start early enough the mental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Especially the following German experi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 :

1) For both parts of the country the unification will not only be a process of changing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base, but also a *turn of the mentality*. The mental bipolarity that was characteristic for the many years of separation and isolation must be subdued by reactivating personal contacts between South and North as much as possible. The new unity of thinking and living must grow up from the fundamentals of social life, from families and relatives, from neighbours and friends.

2) It must be regarded that the both parts of the country have developed two different "political dialects" in the same Korean language, so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new common language. The same words have different meanings, so that a kind of mental "translation" will be unavoidable. It can be hoped that the attractiveness of democratic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human individual will help to overcome the intellectual difficulties, but this will afford a rather long time (perhaps the time of one or two generations). It is true that the spirit of communistic policy will disappear from today to tomorrow. Democracy as the new fundament of the unified state must be learned and trained, before it has become the new way of life. This learning and training needs many mental energies.

3) Immediately after the political turn a great loss of values will make many people in the formerly communistic part of the country helpless, because they were accustomed to be led by the strong hand of an authoritarian government. A long-lasting gap of values would be dangerous for the coming-up of the new democratic state. Therefore skillful campaigns of schools, mass media and other institutions must care for convincing the

양독의 통합이 1989년에 시작되었고 남북한의 통일도 아마 머지않는 장래에 이룩될 것이다. 지난 40년간 존재한 옛 공산독독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민주화로의 대변혁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부드러운 혁명”이라 지난 3년동안의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통일에 대비한 정신적 준비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래에 제시되는 독일의 경험들이 한국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남북한 양측에게 통일이라는 것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의 변동과정일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의 전환이 될 것이다. 지난 몇십년 분리와 고립의 시기동안 특징이었던 정신적 양극성이 남북한 사이의 인적 접촉을 가능한 한 많이 활성화시킴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 사고와 삶의 새로운 통합이 근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족이나 친족에서, 또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성장해야 한다.

2) 남북한이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두가지의 이질적인 정치적 방언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에 입각할 때, 새로운 공통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단어라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적 “번역”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적 자유와 각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매력적 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보지만 이러한 과제는 다소 긴 세월(아마 한두세대 정도)이 필요할 것이다. 공산주의 정책의 정신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갈 것도 사실이다. 새롭게 통일된 국가의 근본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기 이전에 우선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움과 훈련은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한다.

3) 정치적 전환 직후에는, 가치의 대대적 상실의 옛공산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적 정부의 강력한 지도아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치의 격차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등장에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언론 매체, 그리고 다른 제도들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캠페인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강점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확신시켜 주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인류학의 문제이다.

people about the advantages of new freedom, but also about the duties of a responsible citizen. This is a problem of a new anthropology.

4) Of course a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s in both parts of the country will be a precondition for a new understanding between South and North. But every reform must give the priority to the innovation of mentality and not to the renewal of the organization. The first step of the educational reform should be to change the mentality and the educational personnel of teachers, youth-leaders and adult educators. It will be necessary that the communistic leaders among the educational personnel must leave their positions, but it is quite impossible and nonsense to send all teachers who were communists in the past, into the hell. For working as teachers, many of them could not but identifying themselves with the ruling system. Not the individual political conviction can be punished, but all acts, by which those people have done harm to other people.

5) The greatest demand of reform and innovation in the educational system will b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the South must offer a high measure of assistance due to the comparatively great prosperity of the economy and the rather high standard of life in the South. But the North should not be estimated as a kind of colony. The teachers, who go from the South to the North to assist in reform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not act as "better" people or as missionaries, but as good compatriots.

6) In the beginning of the reform it could happen that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evidently, communistic destination are closed at once. But this should only occur under the condition that at once adequate new schools, nursery houses et cetera are opened. The educational service to the population must become better and not more worse than before.—The identification of the youth with the new greater Korea will depend upo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advantages of the new system.

7) In the process of reform not only the government must be involved, but also the different and competing groups of a new pluralistic society (religious communities, churches, trade unions etc.), the families and the individual citizens. The government cannot monopolize any type of school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In a democratic society the parents must have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of the youth.

8) It must be feared that the long years of communistic rule in North Korea have

4) 물론 두국가 사이의 교육체계의 개혁이 남북한 사이의 새로운 이해의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개혁은 조직의 개조가 아니라 정신의 개혁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정신을 변화시키고 교사, 청소년지도자나 성인교육담당자와 같은 부류의 인적인 측면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 교육담당자들 가운데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지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던 모든 교사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말도 안될 것이다. 교사로서 일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배적 체제에 일체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 행동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5) 교육체계의 개혁과 혁신의 요구가 큰 곳은 북쪽일 것이고, 남쪽에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북측에 대규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북측을 일종의 식민지로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교사들은 “더 나은” 사람이나 선교사로 행동하기 보다는 선한 동포로서 행동해야 한다.

6) 개혁의 초반에는 공산주의적 의도가 분명한 교육기관들이 한때 폐쇄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새로운 학교나 보육원, 기타 시설들이 개설된 이후에 취해져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가 이전보다 나아져야지 나빠져서는 안된다. 새롭게 탄생될 위대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이의 위상은 새로운 체제의 교육적 장점이 얼마나 우수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7) 개혁의 과정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원주의 사회의 여러 경쟁하는 집단 (이를 테면, 종교공동체, 교회, 노동조합 등) 가정, 개개 시민들도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종류의 학교나 다른 교육 기관을 독점할 수는 없다. 민주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청소년 교육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8) 오랫동안 북쪽의 공산주의 지배는 그곳의 종교생활과 종교교육을 최소화시켰다는 점과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독에서는 젊은이 가운데 약 85%정도가 교회나 종교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 적어도 정신적 전환의 몇년 동안이라도 도덕교육이 종교교육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이 새 교육과정에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minimized the religious life and the religious education, so that many young people are now atheists. In East Germany about 85% of all young people do not belong to any church or religious group. It may be that moral education must be—at least for some years of mental transition—an alternative to religious education. Nevertheless religious education should get a high importance in the new curricula.

9) As the new Korean state will be quite more liberal than the present communistic North, the principle of educational and political liberty can be misused by radical groups—as well from the left as the right wing. It would be dangerous for the coming new state, if a part of the youth would turn after having lost the former ideology to a contrasting thinking (in Germany to the radical Nazi ideology). New nationalism ought not to be the compensation for the lost communism. It is urgent that young people are at once engaged in tasks of democratisation, so that they feel responsible for the benefit of the new democracy.

10) After a time of total isolation the youth of North Korea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get acquainted with democratic countries of the world in order to compare different ways of individual, political and economic life. A vivid youth exchange will do the best advertisement for freedom and mobility. Many young people (not only from South Korea, but also from other countries) wish to visit North Korea, which will benefit from this “peaceful invasion”.

11) A pedagogical unification of two states needs much more time than a legal or economic assimilation and a political integration. The change of mentality can not succeed in a hurry. It is more a matter of growing than of making. Prudence, patience and composure and high political virtues. People in Asia know that better than people in Europe or America.

9) 한국의 새로운 통일국가는 현재의 북쪽 공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정치적 자유의 원칙이 극좌나 극우적인 과격집단에 의해 오용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일군의 젊은이들이 옛 이데올로기를 상실한 이후에(독일에서 극단적인 나찌 이데올로기와 같은) 상반적인 사고에 몰든다면 새롭게 탄생될 국가에 위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민족주의가 상실한 공산주의의 보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젊은이들이 민주화의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일이다.

10)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해 온 북한의 청소년들이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삶의 다양성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세계의 여러 민주국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활기찬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이 자유와 사회적 이동을 위해 최고의 광고효과가 될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은 (남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 온) 이러한 “평화로운 침범”으로 부터 이득을 얻은 북한을 방문하기를 원할 것이다.

11) 두나라의 교육적 통일은 법적, 경제적 동화나 정치적 통합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신의 변화는 급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만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장하는 것이다. 신중함, 인내와 냉정이 가치있는 정치적 미덕이다.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이나 북미사람들보다 이를 더 잘 알고 있다.

중국 통일과 청년 문제

蘇 頌 興

상해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

The Unification of the Chinese Nation and Its Youth Problems

Songxing Su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I

The present world is an epoch of peace and development.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and the appearance of the form of multi-axis in the world had sped up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the human history. This enables that the unification of a nation becomes an irresistible tide : Both the East and West Germany had already realized the unification, the Korean Peninsula had officially declared the ending of hostility condition, and the relation of the both sides of the China strait had been improved and changed greatl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joint efforts made by the people of the different nations.

Many social problems are followed through the nation unification and the great change of society. The youth problem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the society had been attached with great importance by the government and scholars of different nations.

Since the requirements of different nations are different, so the ways and the forms of unification shall be different. Then, what will be the change on the China unification and its youth problem? I am going to give them an approach and prediction. No doubt, this shall deepen our recognition on the field of youth problem.

II

Before the unification of Chinese nation, though both sides of the strait have different social systems, but many phenomena of identical youth problems and youth culture are

중국 통일과 청년 문제

蘇 頌 興

상해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

I

최근의 세계정세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세계정세에 있어 다중 축의 출현은 인류사의 발달을 가속화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국가의 통일은 거역할 수 없는 조류로 되어가고 있다. 동서독은 이미 통일을 이루었고, 한반도에서도 공식적으로 남북한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했으며, 중국에서도 대륙과 대만 간의 관계가 괄목할 만하게 변화·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 국민들의 총체적 노력의 결과이다.

국가통일과 그에 수반하는 거대한 사회변화를 거치는 중에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의 발달 및 안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청소년문제는 각국의 정부 및 학자들에 의해 그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는 과제이다. 각국의 전제조건이 각기 상이하므로, 통일방식 및 형태도 상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통일과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관한 접근방식 및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고찰은 청소년문제 분야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깊게 해 줄 것이다.

II

중국통일 이전에 비록 양자가 오랫동안 각기 상이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청소년 문제 및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 많은 유사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상존해 있다.

commonly existed.

1. The Problem of Youth Criminal Offence

From 1955 to 1965 was the best period of social public order in the continent. The youth crime rate in 1955 occupied only the 20% of the total criminal cases, but it reached to 62.9% in 1982; 72.5% in 1986 and 74.4% in 1987; but this rate is going higher in some places. So, youth criminal offence becomes a prominent social problem.

The youth criminal in Taiwan is also increasing.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the ratio of youth criminals to the total criminal cases provided by "minister of law affairs", in 1982 the cases increased 12.22% than last year; the amount of criminals between the age from 18—24 in 1981 increased 30% than 1977. According to the newspaper "Times" (1983) in Taiwan, there was 70% below the age of 18 among the total amount of criminals.

The youth criminal of both sides of the strait has a common characteristic: "Low Ag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22 big cities in the continent, the youth criminal cases under the age of 16 occupied 11.6% which had been increased 26.4% than those in 1980. The criminal offence of youth is specially "Pre-matured". The average age of juvenile criminals had been lowered down 2—3 years in 1982 than that in the fifties and sixties, half a year lowered than that in 1981. According to the materials of the "Criminal Police", among the juvenile criminal cases in 1982, the youth below 14 had occupied more than 42%.

2. The Problem of Youth Employment

The labor force supply in our country is greater than demand.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e Labor Department, an excess supply of labor over demand reached 0.14 billion people in the nineties. The rate of unemployment in 1990 reached to 4%, it was still increasing in 1991. Besid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being stepped into the peak period, the problem of unemployment shall still be existed within the first 20 years of the next century. In 1986 and 1987, the amount of unemployment of cities and townships were 2.09 million and 2.3 million respectively. The youth

1. 청소년 범죄 문제

1955년에서 1965년 사이는 대륙에서 사회 공공질서에 있어 최상의 시기였다. 1955년에 청소년 범죄율은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하였고, 그러나 1982년에 62.9%, 1986년에 72.5%, 1987년에 74.4%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타이완의 청소년범죄 역시 증가 일로에 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율이 1982년에 전년도 대비 12.2% 증가하였고, 1981년에 18 - 24세 연령층이 행한 범죄건수가 1977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타이완에서 발간되는 타임즈(Times, 1983)에 따르면, 전체 범죄건수의 70%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해 행해진다고 한다.

양국의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명백한 공통점은 “저연령”인 것이다. 중국의 22개 대도시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율은 16-18세가 21.6%, 16세 이하가 11.6%로서 이는 1980년에 비해 26.4%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범죄는 특히 “미성숙”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1982년에는 범죄 연령층이 50년대와 60년대에 비해 2-3년 낮아졌으며, 1981년에 비해서는 0.5세 정도 낮아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82년 청소년 범죄건수 중에 14세 이하 청소년이 4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청소년 고용문제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다. 주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90년대에 노동력의 과잉공급은 1억 4천만명에 달한다. 1990년에 실업율은 4%에 이르렀고, 1991년 현재에도 계속 실업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최고조에 달한 인구증가율로 인해 21세기의 초기 20년간에도 실업문제는 계속 상존할 것이다. 1986년, 1987년에 시.군의 실업율은 각각 2백9만명, 2백30만명에 이르렀고, 청소년실업은 전체 실업의 80-8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 정부는 청소년 스스로 직업을 찾게 하거나 취업을 위해 조직화시키고 있다.

unemployment occupied 80—85% of the public unemployment. For this reason, our government had called the youth to try to get the job by themselves, or to be organized for employment.

According to the materials released by “Youth Guidance Committee” in Taiwan in 1983, the amount of employment of the university or professional school graduates had only reached to 60.9%. There were around 30,000 graduates unemployed ; it is surprising, since there are only 20 million people in Taiwan.

There are slightly differences of the unemployment of the youth labor force between both sides of the strait ; in continent, there are mainly the youth of the middle school graduates and the youth entered the age of labor in the countryside, while in Taiwan, except the youth stated above, there are also the graduates of the universities and professional schools.

3. The Problem of Outflow of Youth

After the mid-eighties, a hot-tide of studying abroad had been formed ; some of them are out of the desire of seeking knowledge, and the others are purely for working abroad. In 1978—1988, the amount of people abroad at the expense of government or their own reached to more than 40,000. During 1988—1991, the amount of people applied for going abroad at the expense of their own in Shanghai city alone had reached to more than 31,000, including more than 78% people who applied to go to Japan and Australia. The Chinese student studied in the U.S. in the academic year of 1991 had reached to 39,600 which is listed as the first among the overseas student in the U.S.A.

According to the prediction, the hot-tide of the students going abroad in the continents still under increasing situation.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 youth didn't return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study, which had caused the imbalance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alented people in a certain period.

It is the same as serious as the outflow of youth talented people in Taiwan. The first high-tide of the youth studying abroad in Taiwan was in 1962 to 1969, the amount of people going abroad during this period was amount to 17,695 people ; the second high-

1983년에 타이완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율은 불과 60.9%에 불과하였으며, 30,000 명의 대졸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다. 타이완의 총인구가 단지 2천만명이라는 사실과 대비할 때 이러한 높은 실업율은 놀라운 것이다.

양국의 청소년 노동력의 실업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대륙에서는 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의 청소년이 많고 이 연령층이 농촌에서 노동인력으로 시작되는 한편, 타이완에서는 이 연령층외에도 대졸자가 실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3. 청소년의 해외 유출

80년대 중반부터 해외유학의 열풍이 불어 닥쳤다. 그들중 일부는 지식의 탐구욕에 불타서 유학을 갔으며, 다른 일부는 순전히 해외취업을 위한 것이었다.

1978-1988년 사이에 정부의 비용 또는 자비로 해외에 나간 사람들은 40,000 명 이상이었고, 1988-1991년 사이에는 자비로 해외에 나가고자 신청한 사람이 상해에만 해도 31,000명 이상에 달했다. 그중 78%이상이 일본과 호주에 가고자 한 사람들이다. 1991학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학생수는 39,600명으로서, 이는 미국내 외국유학생 중 최다수를 기록한다. 예측컨대, 대륙에서 부는 해외유학 열풍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학생 중 다수가 수학후에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 시기 동안 대륙에서는 유능한 인재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야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타이완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인재들의 해외유출문제를 안고 있다. 타이완에서 해외유학의 첫번째 열풍이 분것은 1962-1969년으로서, 이 기간동안 해외로 나간 사람은 17,695명이었고, 두번째 열풍은 1976-1983년 사이에 불어 이 기간중 해외로 나간 사람은 37,961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귀국율은 13.5%에 불과했다.

tide which was in the year of 1976 to 1983, the amount of people going abroad had reached to 37,961 ; the average return rate was only 13.5%. "The Human Resources Planning Team of the Economic Construction Committee" had made a plan for Taiwan from the year of 1983 to 1993, the average shortage of talented peopl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mount to 2,110 people and the talented people with graduate level is amount to 895 people. It is a matter of natural that the authority had appealed again and again to prevent the talented people from out-flowing.

4. The Problem of the Consuming Attitude of the Youth

Followed the promotion of people's living standard higher and higher, the tendency of pursuing the pleasure-seeking of the youth inside the continent is getting increasing. People are worrying for the youth who had not yet independent but pursuing for pleasure emphasizing on eating, drinking, playing and enjoying.

The relevant department had investigated 6 universities in Tien-jin on 60 undergraduates discovered that the consuming level of the undergraduates is on the higher side, the structure of consumption is extremely unreasonable. In 1990,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people in our country was 800 RMB(approximately 145 USD), but among those undergraduates, there were 30% whose annual consumption had reached to 1,600—2,400 RMB, which was mainly used for social activities, tourism and amusements, but the money used for books and stationery was not more than 120 RMB.

An investigation, which had been made in Shanghai, reflects the high consumption condition of the students in the primary and middle school. In last year(1991),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n 7 middle schools, 4 primary schools and 1 kindergarten : the result of 1389 youths showed that the average monthly pocket money of student is 17 RMB, 44% of youth spent 20—30 RMB, and the highest is 100 RMB. 62% students got the expenditure of buying greeting cards, 41% of the students invited their classmates to his or her "birthday party," 30% owned high class tourism shoes, and 30% of the students owned fashioned dress and jewelry. Not only the high consumption of the daughters and sons had pressed the heavy burden on their parents, it had also effected

타이완의 “경제건설위원회 인력계획팀”에서는 1983-1990 기간에 시행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대학졸업자의 인력부족은 2,110명에 달하고, 대학원졸업자의 부족은 895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당국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거듭해서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청소년의 과소비적 태도 문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차 증진됨에 따라 대륙내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독립적이지 않은 청소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등을 강조하면서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어른들은 염려하고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천진에 있는 6개 대학의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소비수준이 상위권에 속하고, 소비구조가 극히 비합리적임을 밝혔다. 1990년에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소득은 800RMB (145USD)인데 비해, 이들 대학생 중 30% 정도는 연간 1,600-2,400RMB를 소비했다. 대학생들의 소비는 주로 사회적 활동, 여행 및 오락 등에 집중되었으며, 도서나 문구류에는 120RMB이상 소비하지 않았다.

상해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초등 및 중등 학교의 학생들에게서도 높은 소비성향을 보고하고 있다. 1991년에 7개 중학교, 4개 소학교, 1개 유치원에 재학중인 총 138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월간 평균 용돈은 17RMB이고, 20-30RMB를 소비하는 청소년이 44%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액수를 소비하는 청소년은 100RMB였다.

62%의 학생들이 축하카드 사는데 비용을 쓰고, 41% 학생들이 생일 파티에 급우를 초대하며, 38%는 고급 운동화를 사는데, 30%는 유행하는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사는데 용돈을 지출했다. 청소년들의 높은 소비 성향이 그들 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이 사회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the youth themselves effect the socialized economy.

There is the similar problem existed in Taiwan. In the early eighties, the most desirable items of the Taiwan youth were walkman recorders, cameras, wrist watches and in the late eighties, they pursued computers, motorbikes and electronic game sets. And purchasing fashion dress and tourism shoes with high class brands had become a fashionable tide. As for the amusement, the Dan Jiang University had made an investigation on July 1985, the favourite amusements of the Taiwan youth were disco ballroom, foreign fast food restaurant, new tide ballroom, MTV audio and video center, shopping, outdoor activities and beer house.

The problems stated above are common cultural phenomena to the youth of both sides of the strait. As for the connotation of the youth work, the both sides of the strait had also existed in the identical situation and this kind of identical situations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countries and Hong Kong.

In western countries, the youth work is mainly aimed at society and the psychic necessity of the youth with different kind of services ; briefly speaking, the youth work is to satisfy the development of youth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ety.

Reviewing the Chinese youth work in the modern history, no matter in the continent or in Taiwan, they were all for the purpose of mobilizing the youth movement. From the "May 4th movement" up till now,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is in a sense of the history of youth movement. Almost in every social reform or critical moment of our nation, the problems were solved firstly by the rising of the youth movement and the pushing of the different classes of the society. For example, during the period of Anti Japanese War, the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 both had organized "the Youth League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nd Saving the Nation" ; later on,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political lines and the principles, both parties were under the hostility condition ; then, both parties developed their own youth leagues respectively, i.e. "Socialist Youth League" under the leadership of Communist Party and "Three People's Principles Youth League" under the leadership of Kuomintang. Both parties mobilized the youth for the service of its political line. This kind of connotation on the youth work had not been changed before or after the year of 1949 within quite a long period of time. Only

유사한 문제가 타이완에도 생겨났다. 80년대 초반에 타이완 청소년의 가장 선호하는 항목은 워크맨 녹음기, 카메라, 손목시계 등이었고, 80년대 후반에는 컴퓨터, 오토바이, 전자게임기 등이었다. 고급 상표의 패션 드레스와 운동화를 사는 것이 또한 유행이었다. 오락에 관하여 담강 대학에서 1985년 7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이완 청소년이 선호하는 오락은 디스코텍, 외국식 패스트푸드점, 최신풍의 볼룸, MTV 시청각센터, 쇼핑, 야외활동, 맥주집 등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대륙과 타이완 청소년들의 공통적 문화 현상이다. 청소년 활동 역시 양국은 유사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 국가 및 홍콩과는 상이하다.

서구에서는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로 사회 및 청소년의 심리적 필요에 목표를 둔다. 간략히 말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대사에서 중국의 청소년활동을 고찰해 보면, 대륙 또는 타이완을 막론하고 양자 모두 청소년운동을 일으키는데 있어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 “5-4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국사회사는 어느 의미에서 청소년운동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개혁 또는 결정적 시기에 처음에는 청소년운동을 선동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상이한 사회계급을 몰아 부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예를 들면, 대일본전 시기에 공산당과 국민당은 “반일구국청년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후에는 정치노선상의 차이로 인해 양당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그결과 양당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청년단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청년단”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었고, “삼민주의청년단”은 국민당의 지도하에 있었다. 양당은 자기당의 정치적 노선을 지원하는 활동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함축성이 1949년 이전 또는 이후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단지 근래 10년동안 양당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in the recent 10 years, both parties were beginning to change. Therefore, the problem of unification of China should study the youth problem and the policy of youth work and investigate its history.

III

The realization of the unification of a country should be the desire of the whole nation. The pioneer of the Chinese revolution, Dr. Sun Yat—Sen persistently advocated to maintain the unification of our country. He said “China is an unified country, this point had already been deeply impressed i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our country. It is just because of this kind of consciousness which enables us to take as a country to be existed. Though we had met many forces of destruction.” The both sides of the strait had unfortunately been separated for more than 40 years, communication stopped, travel stopped and the nationality, the country and the people had suffered a great loss. All the Chinese compatriot and the overseas Chinese are hoping to end this kind of distressed condition. It is regret to say that the hostility situation of both sides of the strait had not yet been eliminated fully. On the one hand Taiwan authority declared to end “the period of counter insurgency mobiliza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y emphasized not to give up the basic policy of anticommunist and regarded continent as a political entity with enmity.

Under the hostility situation, the youth exchange of bothsides of the strait can never be realized really. For two instances : The first is on the respect of exchange of people. According to the materials of Sept. 1990, the compatriots who came to continent from Taiwan reached 1.6million people, but due to the factor of limitation of Taiwan authority, the compatriots who went to Taiwan from continent were only 7 thousand people. It is not equal. The rate of youth is rare in above—citation, so the study, visit and touristry between continent and Taiwan young people can not discussed. The second is on the respect of idea and culture. It is most prominent on the export of the sexy culture from Taiwan. In 1989, the continent had discovered and seized the sexy video tapes which were a considerable amount at the Fujian and Zhejiang coast, but some original video

그러므로, 중국의 통일문제를 위하여는 청소년문제및 청소년활동 정책을 연구하고 그 역사를 고찰하여야 한다.

Ⅲ

한 나라의 통일을 구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열망이어야 한다. 중국혁명의 선구자인 손문 박사는 끊임없이 국가의 통일을 유지할 것을 옹호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중국은 통일된 국가이다. 이점은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적 의식안에 깊게 인상지워져 있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의식 때문에 비록 그 많은 파괴세력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두갈래의 중국은 불행히도 40년이상 떨어져 있어 의사소통이 끊겼고, 왕래가 끊겼으며, 그 결과 국가와 국민들은 많은 손실을 겪어야 했다. 모든 중국인들과 해외거주 중국인들은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종식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양자간의 적대적 상황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전쟁시기”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반공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강조하며 대륙을 적대적인 정치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적대적 상황하에서는 양자간의 청소년 교류는 진실로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것이다. 두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는 인적 교류 측면이다. 1990년 9월의 자료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대륙으로 온 사람들은 1백6십만에 이르렀으나, 타이완 당국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륙으로부터 타이완으로 간 사람은 단 7천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며 위의 방문자 중에서 청소년계층은 거의 없다. 그래서, 대륙청소년과 타이완 청소년간의 연수, 방문, 여행 등 청소년 인적교류에 관하여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둘째는 사고와 문화의 측면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타이완으로부터 외설 문화의 유입이다. 1989년에 대륙에서는 복건성과 절강성해안에서 상당한 양의 외설 비디오테이프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tape for dubbing and other sexy items were smuggled into the continent through sea from Taiwan, Some of the youth had committed the crime caused by this kind of the “poisonous items”, The above instances express the serious result : the youth exchange of both sides of the strait can never be realized under the hostility situation, and we can not have the cooperative study on the common youth problems to look for the good resolvent.

In the recent years, the hostility condition of both sides of the strait though had not been eliminated,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sides was beginning to relax which had been stepped out the steps toward the course of the unification of our nation. At the time of the relaxation, people-to-people contact in the economic, technical and academic field and the exchange of the youth of both sides had also begun to appear, which had never been occurred. First, the literary and artistic works loved by the youth of both sides had been opened by both sides. The Taiwan love story novels to a miracle had been a best seller in the continent during the mid-eighties. The Fujian Province had investigated 959 youth individual—sellers. There were 813 youth (84.7%) who loved to read the Taiwan novels of this kind. The authors were mostly welcomed were Qun Yao and San Mao. Under the condition of appearing the “Taiwan Novel Hot Tide “in the continent, this kind of investigation had a typical meaning. The works of the continent has also entered into Taiwan.

The works of A-chen “Qi-wnag, Su-wand, Hai Zhi Wang” had been published 10 editions which had been listed at the top of the novels. The works written by Zhang Xian Lian, Fur Ji Cai, Zhang Ji, and Mou Yen Had also been welcomed by the youth in Taiwan.

From July 1987 to March 1988, there were 129 kinds of literary works from the continent had been published in Taiwan. There are always several works to be listed within the top 20 best—seller books¹⁸. The exchange of youth of bothsides displayed that there is a piece of “Cultural Greenland” in front of us which had extended the space of their culture land” in front of us which has extended the space of their cultural life. Secondly, the youth of both sides have their mutual admired film—video singers of both sides. Early in the late seventies, the tape of the Taiwan popular song singer, Deng Li Jun, had been the best seller through the abnormal channel to the continent. At that time,

그러나 몇몇 비디오 테이프는 더빙을 위한 것이고, 다른 외설 테이프들은 타이완으로부터 바다를 통해 대륙에 밀수된 것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이러한 종류의 “유해한 내용”에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상기한 예들은 심각한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양자간의 청소년 교류는 절대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통의 청소년 문제에 관한 협력연구를 할 수 없었다.

최근에 양국간에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보다 완화되기 시작했다. 경제, 기술, 학문 분야에서 인적 접촉이 시도되던 완화에 청소년교류 또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전에 전혀 시도되지 않던 것이다.

첫째로, 양국의 청소년들이 애호하는 문학 및 예술작품을 양국에서 공개하였다. 80년대 중반에 타이완에서 발간된 연애소설들이 대륙에서 놀랄만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복건성에서 95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내용 조사를 하였을 때, 813명(84.7%)이 이러한 종류의 타이완 소설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작가는 쿤야오(Qun Yao)와 산마오(San Mao)이었다. 대륙에서의 “타이완소설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는 전형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침의 작품인 “Qi-wang, Su-wang, Hai-Ahi wanng”은 소설분야 1위를 차지하면서 10판을 거듭해서 발간되었다. 장시엔리엔(Zhang Xian Lian), 푼지카이(Fun Ji Cai), 장지(Zhang Ji), 모우이엔(Mou Yen) 등에 의해 쓰여진 작품 또한 타이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1987년 7월부터 1988년 3월까지 129종의 대륙 문학작품이 타이완에서 발간되었다. 항상 몇 가지는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들었다. 양국의 청소년 교류는 우리앞에 그들의 문화생활 영역을 뛰어넘는 “문화적 녹지”공간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로,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 숭배하는 비데오 가수들이 있다. 70년대 후반에 타이완의 인기가수인 등리쥔(Deng Li Jun)의 테이프가 대륙에서 비정상적 채널을 통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종류의 테이프는 퇴폐적인 음악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었다(이로부터 시사받는 것은, 양국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긴 했으나 그것은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the tape of this kind had been regarded as the decadent music to be prohibited (from this, we may find out that ever there were cultural exchange of both sides, but they were also to be twisted).

It is very happy to see that right now, the singers and songs of this kind had been accepted and taken as the youth culture of the whole world to be accepted in the continent. The youth of the continent are very familiar with Taiwan singer and movie stars Tong An Ge, Zhou Hua Jian and Lin Qin Xia who are admired by the youth in the continent. We are strongly convinced that as long as there will be no artificial disturbance factor of both sides, it will be developed into a even wider field so as to be beneficial to the realization of our nation unification.

Therefore, that is why the hostility condition between the Taiwan and the continent should not be continued like now.

IV

Today, The antagonism of both sides of the strait had not been eliminated completely. Why? An important question is that the future unification is what kind of unification.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desire of the unification of chinese nationalities as early as possible, the continent had formally proposed the pattern of unification "One Nation, Two Systems" with the principle of "No Party can swallow the other party." Actually, the concept of this kind had been narrated in the talk made by comrade Ye Jian-ying at the press conference to the reporters of Xin Hua News Agency on Sept. 30, 1981 : that is, the socialist system shall be carried out in the continent with the population of one billion people, while the capitalism shall be carried out in Taiwan ; and the Taiwan shall be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can keep the initiative in its own hands fully and the society system and ways of life shall be remained to be unchanged. Besides, in terms of realizing the modernization, still there will be fifty or sixty years to go in the continent. The "One nation, Two systems" proposed by the continent and the policy shall be remained to be unchanged fifty years after 1997 or even longer are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China on this pattern of unification.

다행히도 지금은 이러한 종류의 가요나 가수가 전 세계의 청소년 문화로서 대륙에서도 수용되어야 함은 인정하고 있다. 대륙의 청소년들은 타이완의 가수 및 영화배우인 통안치(Tong An Ge), 조우화지엔(Zhou Hua Jian), 린친샤(Lin Qin Xia)등에 친숙하고 이들을 숭상하고 있다.

어떤 인위적인 저해요인이 없고 청소년교류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국가 통일의 구현에 유익하게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 때문에 타이완과 대륙간의 적대감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V

오늘날, 양국간의 적대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왜? 중요한 문제는 미래의 통일이 어떠한 종류의 통일이나는 것이다.

중국 국가의 통일염원을 가능한 빨리 구현하기 위하여, 대륙에서는 “일국가—이체제” 통합형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었다. 기본 원칙으로는 “어떤 한 쪽도 다른 한 쪽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개념은 1981년 9월 30일 신화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이자양(Ye Jian-Ying)이 한 발언에서 언급되었다. 즉, 자본주의 체제는 타이완에서 유지되는 한편, 사회주의 체제는 인구 10억이 있는 대륙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타이완은 특별 행정구로서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체제 및 생활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라는 내용이다. 게다가, 근대화 측면에 있어서 대륙은 50년 내지 60년을 뒤따라 가야 한다. 대륙에서 제안한 “일국가—이체제” 정책은 1997년 이후 50년간 또는 그이상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의 통일패턴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If the "One Nation, Two Systems." could be realized then, the youth problem of the both sides of the strait after unification shall be different from the other countries which had realized their unification already.

From this prospect, we made the concrete prediction as follows:

1. The youth problem of the both sides of the strait after the unification will not have a radical change within a certain period.

Due to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e two social system, two kinds of life style(the peaceful co-existence had already been realized, youth problem, phenomena of the youth culture and even the youth policy which might still have the deep brand of its social system shall still follow along the development track of of the different social systems.

Firstly, the existence of the society shall decide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e different mode of production of two societies shall decide the different concept formation.

The youth living in the different social system, what will they be, the standard shall be different : Whether taking the individual benefit as the starting point or taking the benefit of the nation or group as the starting point. These two kinds of different value concepts shall make the education of the youth of both sides, evaluation and the form of the youth problem appeared to have the radical differences.

Secondly, under the two different concept formation, the different extent of civilization shall create the different effect to the youth. After the economy development of Taiwan, it had achieved lots of accomplish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culture, fine arts and sanitary, etc.. But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there are obvious negative factors on the people's inter-relations, religious belief, taste of beauty and forms of consumption. Comparatively speaking, the education made by the continent to the youth is always put stress on the inheritance of the outstanding ethical tradition and put more stress on the pursuing of the healthy spirit and on the scientific, reasonable way of life.

Furthermore, the attitude of the two systems towards to the hideous phenomena of mankind is different. It is well-known to us that the problems of prostitution, drug abuse and black society in the capitalist society is much more serious than the socialist society.

만약 “일국가, 이체제”가 실현된다면, 통일후 양국의 청소년문제 양상은 이미 통일을 이룬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측을 해 보았다.

1. 통일후 청소년문제는 일정시기 안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두개의 사회체제가 상존해 왔으므로, 두 유형의 생활양식(평화공존이 이미 구현되었다), 청소년문제, 청소년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청소년정책조차도 상이한 사회체제의 발전도상을 여전히 따를 것이다.

첫째로, 사회의 존속은 국민의 사회의식을 결정할 것이다. 두 사회의 상이한 규준은 상이한 개념형성을 결정할 것이다. 상이한 사회체제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규준이 상이할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인가 또는 국가 및 집단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이러한 두 유형의 상이한 가치관이 양국의 청소년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청소년문제의 양상 및 평가에 있어 격심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로,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형성과 더불어 상이한 수준의 근대화 또한 청소년들에게 상이한 효과를 미칠 것이다. 타이완은 경제발전후에 교육, 문화, 미술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인관계, 종교적 신념, 미적 감각, 소비형태 면에서 명백히 부정적 요인도 생겨 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교컨대, 대륙에서 행해진 청소년교육은 우수한 윤리적 전통의 전수에 강조를 두었고, 건전한 정신의 향상을 도모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양식을 더욱 강조하였다.

게다가, 인간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두 체제는 차이가 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매춘, 약물남용, 암흑세계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While Taiwan also has much more serious problem than the continent, after 1949 the continent had successfully solved those problems and had been praised by the world opinion. After carrying out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 policy from 1979, the problems of prostitution, drug abuse and the black society though they had been revived again,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locality had taken resolute and serious measures to attack them again and again so as to stop and control that. Taking the young prostitutes under the age of 16, for example, it is rarely seen in the continent, but it often makes people shocking in Taiwan. According to the figure provided by 3 polices in Taipei and Gao-xiong; there were 290 cases of young prostitutes to be tracked down, totally 290 people including the cases under the age of 14, totally 67 people. The prostitution is prohibited by the Taiwan authority, but it is just like the scholars in Taiwan pointed out that it is due to the present administrative policy or codes can hardly to stop or to educate them. And it caused by the the shortcomings of Taiwan social system in the same time.

2. The youth problem of both sides of the strait after the nation unification shall tend to relax.

The nature of sharp conflict shall be transformed into the coordination of the contradiction. Many of the social problems and the youth problems today had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condition of economy development. Hence, the continent and Taiwan both have the desire of further economy development. Therefore, this shall create the requirements for the unification of both sides of the strait.

The continent is rich in its materi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and Taiwan is rich in its capital resources;so, both sides can fully utilize the excellence of these resources to proceed the peaceful construction. In addition to the business contact, the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al exchange, and then the vigorous development of the whole Zhonghua nation will not be very far from us. Under this major premise, many of the sharp conflicts on the social problems and the youth problems may be solved smoothly.

The development of economy shall be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esent youth

타이완 역시 대륙보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더 심각한 반면, 1949년 이후에 대륙에서는 상기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소하여 세계여론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1979년부터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수행해 온 후에 매춘, 마약사용, 암흑세계 문제가 다시 재발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이러한 문제를 중단, 통제하기 위하여 거듭해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예컨대, 16세 이하의 어린 매춘부문제를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으나, 타이완에서는 쇼킹하게도 때때로 보고되고 있다. 타이페이(Tai-bei), 까오슝(Gao-xiong) 등의 3개 경찰청에서 제공한 수치에 의하면, 14세 이하 연령층을 포함해서 총 290명의 어린 매춘부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타이완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매춘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의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현재의 행정정책이나 규정만으로는 매춘행위를 중단 시키거나 매춘부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 동시에 이는 타이완의 사회체계의 약점에 연유한 것이다.

2. 통일후 양편의 청소년문제는 완화될 경향이 있다.

첨예한 갈등은 모순 속에서의 조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문제와 청소년 문제 중 다수는 경제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륙과 타이완 양편은 모두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는 양편의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창출할 것이다. 대륙은 자원과 인력 면에서 풍부하고, 타이완은 자본 면에서 월등하다. 따라서 양편은 평화로운 건설을 진행시키는데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사업적 접촉, 과학기술의 협력, 문화교류 등에 덧붙여서, 전체 중화 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은 우리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는 않다. 이런 대명제하에 다수의 사회·청소년 문제의 첨예한 갈등은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대륙의 현존하는 청소년문제를 푸는 데는 경제발전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problems in the continent. For example, at the back of the employment of youth, it is meant to be the fault of the economy policy and the population policy in the past ; and at the back of crime committing by youth it is meant to be the social reform, the imbalance of the social code and a part of people got a lower standard of living. At the back of several student tides, it is meant to be the hatred of the youth on the inflation, unhealthy tendency and the corruption of the cadres.

The unification of both sides of the strait shall be beneficial to the reform and open policy of the continent and to speed up the construction of modernization. Thus, the social economic factor causing the youth problem in the continent shall be overcome gradual and then, the youth problem shall also be relaxed.

Of course, the relaxation doesn't mean the elimination. The following problem is another form of contradiction surrounded with the construction of modernization. The problem of the youth immigration during the urbanization, the problem of the difficulty educating of the youth under the active increasing of the population, the problem of an only son or daughter and the problem of the youth socialized under the speeding up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etc.. These problems should still be solved by relying on the development of economy. As long as the present policy of the continent will not be changed, the society keeping on to be stable, then, the new youth problem will not create the sharp conflict in the society.

3. After the unification of our nation, the solution of the youth problems of both sides of our nation, the solution of the youth problems of both sides of the strait is to obtain the mutual understanding gradually.

The process of the prepar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unification shall be the process of mutual contacting, mutual understanding, mutual learning,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different fields of both sides of the strait. This shall be a long process of our history. We had absorbed the Marxism from the West and had formed the Marx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Under the same circumstance, we can also absorb the things of capitalism for the use of socialism, Since the continent had carried out the open policy and had permitted some

예를 들면, 청소년 고용문제는 과거의 경제정책 및 인구정책의 과오임을 의미한다. 청소년 범죄문제는 사회개혁, 사회규정의 불균형을 의미하고 일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더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몇몇 학생운동이 시사하는 것은 인플레이에 대한 청소년의 증오와 불건전한 경향성 및 조직의 부패 등이다.

중국의 통일은 대륙의 개혁, 개방정책에 이로울 것이며 근대화 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대륙의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점차 극복되고 더불어 청소년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물론, 문제 완화가 문제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형태의 모순이다. 도시화로 인한 청소년 이주문제, 왕성한 인구증가로 인한 청소년교육문제, 독자독녀문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경제발전에 의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현재의 대륙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사회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청소년문제로 인해 사회 내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3. 국가 통일후에 양편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점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 및 통일의 실현과정은 양편간 상호접촉, 상호이해, 상호학습, 상호협력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 있어 기나긴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방으로부터 맑스주의를 도입하여 중국적 특색을 갖는 맑스주의로 발전시켰다. 동일한 상황에서 또한 사회주의를 위하여 자본주의를 접목시킬 수 있다.

대륙은 개방정책을 펴왔고, 사회주의 발달의 보조장치로서 일부 자본주의가 대륙에 도입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조류를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이다.

of the capitalism getting into the continent which is taken as the supplement of the socialism development and from now on, we shall do like this continually. Therefor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both-sides of the strait, through the cool consideration and the practice in spection, bothsides can seek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and learning from other's strong points to offset one's weakness to find out the effective ways to solve the youth problem by formulating the relevant policies.

4. The approach of the youth problem of the bothsides of the strait after the nation unification shall have the normal facilitation and inter-change.

The study of the youth problem of the continent had been carried out for more than 10 years. Though we had established the academic exchange with many countries and regions, we didn't have the contact with Taiwan. So, this is unfavorable to deepen the study of the youth problem. The youth study in China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whole nation. Thus, the bothsides can enjoy together the resources and achievements of the youth problem study.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youth problem shall enable the study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Due to common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we can utilize the theory of ethnology, anthropology and culture to open up the new projects, and the new field of the study on youth problem.

V

During the unification of bothsides of the strait, we shall have lots of work to do on the youth problem. To the youth of the continent, we have to educate them to have concern on the future and the destiny of our nation and nationalities, and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let them to have an understanding that Chinese economy is backward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We should learn the experiences of construction from Taiwan and strive for a goal of vigorously developing the Chinese nation together with Taiwan young people.

After the unification of bothsides of the strait, we should hold Taiwan young people's life style, life behavior, their beliefs, view of value, their culture in respect. With

그러므로 통일후에는 냉정한 성찰 및 실천적 점검을 통해 양국은 서로의 상이점을 보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고 관련 정책의 조성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문제 해결 방식을 상대방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4. 국가 통일후 양국의 청소년문제 접근은 정상적인 촉진과 상호변화를 거쳐야 한다.

대륙의 청소년문제연구는 10년이상 수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가 많은 나라와 학술교류를 해 오고 있지만 타이완과는 접촉이 없었다. 이러한 교류의 단절은 청소년문제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에서 청소년연구는 전 국가적인 기반위에서 확립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은 청소년연구의 자원과 성과를 함께 향유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비교 연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역사상 양쪽은 공통의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청소년문제연구의 새로운 영역 및 연구과제들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민족학, 문화 인류학 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V

중국통일을 이루어가는 동안 풀어야 할 청소년문제에 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륙에서는 청소년들이 국가의 장래와 운명을 염려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진국과 비교컨대 중국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타이완으로부터 건설경험을 배우는 등 타이완 청년들과 함께 중국을 왕성하게 발전시킬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후에 우리는 타이완 젊은이들의 생활방식, 행동, 가치관, 문화 등을 존중해야 하며, 계속되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인식, 신뢰하면서 역사에 의해 형성된 상호오해를 일소해야 한다.

continuous exchanges we should recognize and believe each other, and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used by the history.

To the youth in Taiwa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obstacles of different kinds during the unification of our nation.

The first is the psychological conceit.

The economy in Taiwan had been developed rapidly since seventies. As to the foreign exchange reserve in the year of 1987, it had been reached to 76 billion, placed Taiwan the third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world bank, it had been placed the first in the world. Since there existed an enormous difference in economy of the bothsides of the strait recently, the Taiwan Authority and a part of youth have had the psychological conceit ; they think that Taiwan is not necessary to unify with the continent. On Sept., 1986, a reporter of Columbia Broadcast Co., Wallace, had asked the comrade Deng Xiao—pin : “Right now, the level of continent economic development is much lower than that in Taiwan. Why should Taiwan to be unified with the continent?”. The comrade Deng Xiao—Pin answered, “Mainly, there are two points. The first point, the unification of china is the desire of all the Chinese people. Secondly, if the regression of Taiwan and the unification with the continent can not be realized, I don’t know when will the Taiwan be taken away by somebody.” These two points of view shall be helpful to the psychological conceit of the Taiwan youth.

The second is the psychology of blockade.

Since more than 40 years in the past, the Taiwan Authority had carried out the “blockade policy”. It had blocked the passage of all the real information. Not to say, lacking of relevant free atmosphere in Taiwan, even the youth are of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our nation. In an article published in the magazine “University ” in Taiwan, it is said that some of the undergraduates even don’t know the name of “Lu Xun”, the famous cultural person. Some youths seem that they are not willing to be the members of the Chinese nation. The result of the blockade to the continent enables the youth to create an isolated feeling and to become a kind of psychological tendency.

The third is the psychological fear.

This kind of psychological fear appeared in many respects:

타이완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상이한 유형의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번째 장애는 '심리적 자부심'이다 : 타이완의 경제는 70년대 이래로 급격히 발전되어, 1987년 현재 외환보유고가 760억 달러로서 세계 3위에 달했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1위로 기록되었다. 최근에 양국간에는 커다란 경제적 격차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타이완 정부 및 일부 청소년은 심리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타이완은 대륙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986년 9월에 콜롬비아 방송사의 월러스(Wallace)기자는 등소평(Deng Xiao-Pin)에게 묻기를 “지금 대륙의 경제발전 수준은 타이완보다 훨씬 낮다. 왜 타이완이 대륙과 통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등소평의 대답은 “그 이유는 대체로 두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중국통일이 모든 중국국민의 염원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만약 타이완이 후퇴하지 않아 대륙간의 통합이 실현될 수 없다면, 언제 타이완이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두가지 관점은 타이완 청소년의 심리적 자부심에 대한 의미있는 대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장애는 봉쇄의 심리학이다 : 과거 40년이상 타이완 정부는 “봉쇄정책”을 써왔다. 그로 인해 모든 진실된 정보의 흐름을 막아 왔다. 말할 것도 없이 타이완에서 청소년조차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결핍으로 인해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지하다. 타이완에서 발간되는 “대학교(University)”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일부 대학생은 그 유명한 작가인 “노신(Lu Xun)”이라는 이름조차 모른다고 한다.

일부 청소년들은 중국민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대륙에 대한 봉쇄의 결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이 일종의 심리적 성향으로까지 발전되게끔 했다.

세번째 장애는 심리적 공포이다 : 이러한 유형의 심리적 공포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다.

1. The fear that the Communist Party shall carried out proletarian dictatorship after the unification.
2. They are afraid that the people from the continent shall pour into Taiwan pounding at the Taiwan economy.
3. They are afraid of losing their individual ideal and future.

The melancholy feeling and the doubtful and worrying feeling induced by psychological fear shall be harmful to let the Taiwan youth to give full and active play in the unification of our nation.

Before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unification, we have to take consideration on the youth policy carried out by taking as a country within "One nation, Two systems". This is the general policy to the youth formulated by a nation.

I think that in formulating the general policy, it has 3 principles :

1. It will be beneficial to let the youth inherit and develop the outstanding tradition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our nation.
2. It will be beneficial to the health growth of the youth to provide the beneficial services and necessary protection of different kinds.
3. It will be beneficial to the realization of the goal of the world youth "participating, developing and peace".

1. 공산당이 통일후에 노동자 독재를 펼칠 것이라는 공포
2. 대륙으로부터은 사람들이 타이완에 흘러들어와 타이완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공포
3. 자신들의 개인적 이상과 장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

심리적 공포에 기인한 감상, 의심, 염려 등과 같은 정서는 타이완 청소년이 국가 통일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해로운 요소이다.

통일의 실현이전에 “일국가 이체제”형태로 하나의 국가를 조성하고 국가에서 수행해 나갈 일반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몇가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정책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3원칙을 제시한다면,

1.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 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종류의 복지 서비스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정책은 "참여, 발전, 평화"라는 세계 청소년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Zhang, P.S.(1989) The Youth Problems(2nd), Beijing:Chunqiu Press, p.11
2. (Oct.25, 1982) United Times, Taiwan
3. HKFYG(1987) The Youth Problems between HK and China, p.142
4. 5.(Jan. 4, 1983) China Times, Taiwan
6. (Sept. 1989) Wenhui Daily, BK
7. (Jan.13, 1985) Zhill Evening News, Taiwan
8. (1988) Journal of Youth Research (Beijing), 12, p.29
9. (Jan.14, 1992) Organization and Human Affairs Weekly, Shanghai
10. (Nov.12, 1991) Shanghai Translation Weekly
11. (1988) Journal of Youth Research (Beijing) 12, p.26
12. (Nov.22, 1991) Evening News, Tianjin
13. (Nov.15, 1991) United Times, Shanghai
14. (1989) Journal of Comtemporary Youth Research (Shanghai), 7, p.35
15. (1988) Journal of Youth Research (Beijing), 7, p.31
16. Pen Zheng : A Speech at the Commemorative Heeting on the 120th Anniversary of
 Birthday of Sukn Yatsen in Beijing
17. (1991) Journal of Youth research (Beijing), 6, p.37
18. (1989) Journal of Comlemporary Youth Research (Shanghai), 7, p.31
19. (1990) Journal of Comtemporary Youth Research (Shanghai), 1, p.34
20. (1991) Journal of Youth Research (Beijing), 6, p.36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 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

金 章 郁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 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¹⁾

金 章 郁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조선민족은 동일혈연을 가진 단일 민족이다. 오랜 역사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 풍속, 습관, 생활양식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하나의 조선반도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130여년전부터 조선민족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 분화되어 나갔고 조선본토에서도 해방후 남북으로 갈라졌다.

해외 여러 나라에 나간 조선민족이나 조선 남북의 조선민족들은 각기 그들의 처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과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그들의 민족속성에는 조선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보존되어 왔지만 또 적지 않게 이질적 변화가 생겼다.

현재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땅에서 130여년을 지나온 조선족인민들의 후손으로서 그 대부분 2, 3세대가 아니라 3, 4세대, 심지어는 5, 6세대도 적지 않다. 이 연변 땅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은 민족속성상에서 국내외 다른 민족청소년들과도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남북조선의 청소년들과도 동질성도 갖고 있지만 구별되는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수성이란 주요하게 다음 몇 가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즉, ① 국가의식상에서 중국을 자기 조국으로 인정하고 있는것, ② 교육을 자아출세의 도경(途徑)으로 삼고 있어서 진학열의 높은 것, ③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가치지향성이 뚜렷이 표현되는 것, ④ 민족평등권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 등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연변조선족 청소년속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밝히고 이 특수성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민족 교육의 역할을 분석하고 앞으로 계속 민족교육을 강화하여 조선족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족자각의식을 보다 높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더 잘 공헌하게 하기 위하여, 전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조선족청소년들과 이해와 연계를 강화하며 남북조

1) 본 논문 중 일부 내용의 표현방식이 한국(남한)의 어법과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 상이성 자체가 언어문화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한 사례로 의미가 있으므로 필자의 원고를 수정없이 게재하였음.

2) 본 논문 전체에 걸쳐 ()안의 한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원 편집진에서 추가하였음.

선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데 유조한 일을 하도록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Ⅰ. 조선민족에 대한 필자의 견해

「민족」이란 무엇인가?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님은 『이른바 민족이라는 것은 일정한 구성요소가 있으니 공동의 언어·문자·국토·주권·경제·문화 그리고 민족정기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가지 구성요소 가운데는 주차가 있다고 보아진다.

필자는 한개 민족이 동일한 혈연만이 영구한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한개 민족의 말과 글이 한개 민족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인정한다. 대개 민족의 말과 글은 모두 자기 민족의 역사와 긴밀히 연계된 것이다. 그것은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점차 산생(產生)되고 발전할 것으로서 민족문화의 중요한 표현형태이다. 한개 민족은 정치·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함에 있어서 모두 본 민족의 말과 글이란 도구와 수단에 의거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한 언어는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개 민족의 말과 글은 민족의 발전과 진보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족은 동일혈연이 단일 민족으로 형성되어 단일 국가를 이루고 한개 국토에서 살다가 역사적 변천에 따라 살길을 찾아서, 반일 투쟁을 위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해삼(海參) 등 세계 각지에 분화되어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이주하여 온 조선민족은 남북조선 본토땅에서 사는 조선민족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족의 혈연을 타고 났고, 조선말과 글을 사용하여 전통적 민족문화, 풍속습관, 생활양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족이란 남북조선의 본토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제약적인 조건을 부가할 필요없이 그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던지를 막론하고 조선민족으로서의 혈연 및 언어와 문자, 민족문화, 풍속습관, 생활양식, 민족의식상에서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조선민족으로 보아야 한다. 오직 국가개념에서 어느 나라 국적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 조선민족인가만 구분될 뿐이라고 인정한다. 오늘 연변 조선족 청소년속에 체현(體現)되고 있는 조선민족의 구성요소를 보면 주요하게 ① 혈연상에서 보아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월경(越境)하여 온 조선족의 후손들이라는 것, ②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사용하는 말과 글은(유아교육으로 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주로 조선말과 조선글이라는 것, ③ 대체로 전통적인 조선민족의 문화·풍속습관, 생활양식에 따라 생활하며 민족의식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하여 우리의 아버지과 할아버지들에게서 그러했듯이 현대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에게도 「조선민족」이라는 말은 더없이 귀중하고 정다우

며 민족의 자호감(自豪感)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Ⅱ.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의 특수성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는 남북조선의 청소년들과 동질성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질적인 특수성도 있다. 그 특수성이란 다음 몇가지 주요한 것이 있다.

1.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대학생과 고급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학생 1개 반(班) 학생들의 (조선족학생만 응답) 응답은 100%로 “나의 조국은 중국이다”라고 답했고, 고급중학교 1학년반 학생들도 역시 같은 물음에 100%로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재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편성을 띠고 있는 국가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오늘 중국조선족이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에는 예외없이 현재의 중국을 의미하는 중국 조선족인민들의 기성세대의 국가의식과 같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의 공식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조선말과 글을 사용하고 조선족끼리 모여 자기의 생활양식대로 살아나가면서도 중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식상에 있어서 남북조선 청소년들의 말하는 “조선은 나의 조국이다.”라는 국가의식과 엄연히 구분되는 큰 이질성적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는 특수한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연변조선족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기가 조선민족의 혈연을 타고난 조선족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자기가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는 자호감을 가지고 흥겨움에 살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자호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1학년생 중에는 80%이상이고, 고급중학교 1학년생 중에는 86.7%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국가소속감과 민족소속감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 조선족 기성세대에 있어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보아진다.

2. 진학교육열의 매우 높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남북조선 청소년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바 교육을 자기 출세의 도경(途徑)으로 삼

고 있다고 하여도 과분하지 않을 정도이다.

연변조선족들에 있어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교육이 인간의 자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왔다. 이런 결과 조선족의 교육수준은 중국내 기타 소수민족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198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체 조선족의 경우 6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초급중학(의무교육제의 요구표준이다)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51%에 달하고, 그리고 소학교 출신자가 28.5%이다.

12세 이상된 사람 가운데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자습하는 등 도경(途徑)을 경우하여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이 10%, 문맹 및 반문맹이 10.5%로 나타났다. 연변지역을 포괄하는 길림성의 경우 조선족의 교육수준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56.4%, 소학교 출신자는 30.3%, 그리고 문맹자 및 반문맹자는 11.6%로 나타났다. 한족은 중학이상교육을 받은 자의 비율이 34.8%, 문맹 및 반문맹자의 비율이 23.4%이다(길림성에 이민한 한족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길림성내에서 조선족이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에 대비해 매우 높은 교육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확실히 조선족의 주요 특징의 하나임을 증실(證實)한다고 보아진다. 1987년 전 중국에 대한 '1%표본 인구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선족의 경우 6세 이상 인구중 중학교이상 교육을 받은 자의 비율은 59%로 높고, 12세 이상 인구중 문맹자의 비율은 7%로 줄었다.

조선족 가족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자녀교육이라 할 수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은 진진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교육 출세'로 선택하고 있다. 1990년도 표본조사에 따르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92%, '딸이 대학교육까지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족의 높은 교육열은 청소년 학생들의 대학교 전문학교에 입학률을 높이는 좋은 결과를 얻어 왔다. 1992년도의 례(例)만 보더라도 이 한 사실이 증실되고 있다. 1992년도 전주에서 각 유형(類型)의 대학교와 전문학교에 입학한 고급중학교 졸업생이 모두 1,567명으로서 총 시험생의 37.7%에 달하였다. 그중 전국 중점대학(重點大學)에 입학한 학생이 459명으로서 총 입학생의 29.3%이고, 보통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443명으로서 전체 입학생의 28.3%, 대학전과학교(大學轉科學校)에 입학한 학생이 343명으로서 전체 입학생의 21.9%이다. 이리하여 각종 유형의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79.5%이다. 그 외 중등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322명으로서 전체 입학생의 20.6%를 차지한다. 연변 제1고급중학교는 교육질량(教育質量)이 전 성적(全 城的)으로 가장 높은 학교의 하나이다. 1992년도 례만 보더라도 당년 졸업생중 87%가 전국 각종 유형의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전 주(全州)에

서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과학기술대학 등 4개 일류 중점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모두 26명인데 그 중 22명이 조선족 학생이다. 이러한 성적들은 전 성적으로 으뜸간다.

상술한 연변조선족의 교육열의와 청소년들의 진학열의는 남북조선 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식, 지향성과 동일한 점이라고 보아진다. 이는 조선족청소년들의 행동지향성과 가치관을 이해(理解)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진다.

3. 입신양면(立身揚名) 가치지향성 표현이 돌출하다.

최근 일부 대학생 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4학년생 중 “행정간부가 되겠다”가 30%, “인민교사가 되겠다”가 15%, “사업단위(연구기관, 과학기술부문, 설계원, 신문, 방송, 텔레비 등)에 가겠다”가 40%, “상업에 종사하겠다”가 5%, “기업에 종사하겠다”가 5%이다. 2학년생 중에서는 “행정간부로 되겠다”가 6%, “인민교사로 되겠다”가 20%, “사업단위에 가겠다”가 5%, “기업에 종사하겠다”가 20%이고 “상업에 종사하겠다”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학생들의 사상을 활약(活躍)하여저서 사회상의 불공평한 분배현상에 대하여 비평과 의론(議論)을 잘 한다. 즉, “지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빈궁하다”느니,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의 로임(勞賃)은 계란을 삶아 파는 사람 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 보이고 체면도 설 수 있고 입신양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정간부, 교사직 등 직(職)을 많이 선택하나 상업같은 직업은 선택도가 매우 낮다. 1990년도 표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직업선택 소원으로 보아도 거의가 자녀들이 전문가, 간부, 혹은 기술직에 종사할 것에 집결(集結)되고 있다. 아들의 경우 행정간부에 대한 선택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술자, 의사, 과학자로 높게 나오고 있다. 딸의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선택도가 제일 높고 다음으로 행정직원, 교원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인(公人)에 대한 선택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자녀가 농민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매우 드물었다. 자녀가 상업에 종사할 것을 바라는 비율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업을 천시하는 전통관념의 반영이라고 보아진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아직도 <체면중시> <입신양명> 등 전통적 가치관념에서 완전히 해탈(解脫)되지 못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식이 잘 전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상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속도가 빠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낡은 관념의 완고성을 잘 인식하고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채취(採取)하여

관념상의 큰 전변(轉變)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경제체제전립의 빠른 형세에 따르지 못하며 개인의 발전에도 손해를 받게 될 것이라 보아진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존재하는 이런 가치지향성 표현들은 한족학생들과 대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길림성내 어떤 대학의 료해(了解)에 의하면 지금 한족학생들중에는 “공부를 잘하여 기업에 종사하겠다(學而優則企)”, “공부를 잘하여 상업을 경영하겠다(學而優則商)”는 등 실용주의의식(實惠型思想)의 범람하여 전업학습에 저애까지 된다고 한다.

4. 민족평등의식이 강하다.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의 민족평등의식은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민족정책지도하에서 정치, 경제생활가운데서 형성된 정치권의식이라고 보아진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어느 나라 사회가 좋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정황으로 보면 대학 1학년생중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살기 좋다”라는 사람이 제1위로, 일본이 제2위이고 한국이 제3위로 나타났다. 고중(高中) 1학년생 중에서도 역시 중국이 제1위로, 한국이 제2위로, 일본이 제3위로, 미국이 제4위의 순차로 나타났다.

“왜서 그렇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응답을 보면 대학생과 고중학생의 응답이 대동소의(大同小異)한 바 “경제가 제일 발전한 미국은 민족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민족기시(民族忌視)가 불만스럽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일본과 한국은 경제가 발전했으나 단일 민족국가인 데다가 민족기시가 뚜렷하고 민족평등의 법적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청소년 또래끼리 한담속에서도 “타민족의 기시를 받는 사회에서 어찌 살수 있겠는가?”라는 언론(言論)들을 흔히 듣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 연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 헌법규정에 따라 각 민족의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 단결, 상호협조하는 사회 중의 민족관계법규에 관습(慣習)되어 민족평등을 한개 사회정치 생활현상을 측정하는 우세적 측도(測度)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변조선족 청소년교양에 있어서의 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

첫째,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잘 집행하였기에 조선족청소년 속에서 조국관을 정확히 수립하였다. 청소년교양에 있어서, 학교, 사회, 부모 3자 결합이 잘 되어야 그 효과가 좋은 것이

다. 연변 조선족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당의 민족정책에 대한 높은 평가로 하여 수립된 정확한 국가의식의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잘 전수되었다. 연변조선족 선배들은 두만강, 압록강을 월경(越境)하여 연변 땅에 와서 죽는 것보다 못한 생활을 하던 처지에서 새 사회주의 중국의 창건은 마치 지옥살에서 천국으로 이주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연변조선족인민들은 연변 땅에 이주하여 온 후 줄곧 하나의 민족집단을 이루고 살아 왔다. 그러나 새 중국이 창건되기 이전에는 만족인(滿族人)의 집단에게는 이방인으로 여겨졌고 체발역복(剃髮易服)을 반발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정책하에서는 위만주국의 지배와 개척을 위하여 리용(利用)되고 동원되어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면서 혹독한 착취대상으로 되어 자기민족의 말과 글까지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족들은 동북에 이주하며 중국인으로 인정받은 것과는 상반되게 조선족들은 다른 외국인격으로 한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으로 하여 조선족인민들은 중국 공민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족인민들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살게 해준 중국공산당의 은혜를 헤아릴 길 없다”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조선족인민들의 구성(救星)이라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연변조선족들은 중국의 반제반봉건투쟁, 해방전쟁 등 혁명가운데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당의 민족정책에 따라 중국 조선족들은 처음부터 중국혁명의 혁혁한 공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성원대우를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족들로 하여금 쉽게 스스로를 중국공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의 민족정책은 조선족들을 국가의식수립에 있어서의 큰 기여라고 보아진다.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은 소수민족들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높은 민족의식은 중국에 대한 국가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다민족국가에서 각 소수민족들의 평등한 정치권한을 가지고 자기민족의 문화유산과 풍속습관을 보존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서 그들의 민족정체감을 유지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당이 민족정책을 잘 관철하여 민족관계를 잘 처리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아진다.

둘째, 조선족 민족교육은 조선민족 속성을 보존함에 있어서 공간(空間)역할을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은 각 소수민족이 보다 발전하기 위하여 민족교육을 발전시킬 것을 법규화하고 있다. 즉, 중국 헌법 제4조 제4항에는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고, 또 민족구역자치법에는 “민족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며 문맹을 퇴치하며 여러가지 유형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며 초등의무교육을 보급

시키며 중등교육을 발전시키며 민족사범학교, 민족중등전문학교, 민족직업학교와 민족학원을 설립운영하여 각 소수민족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제37조 제1항).

이러한 법정규정에 따라 각 소수민족의 정치상 민족평등권리를 보장받고 자기 민족언어, 문화유산, 풍속습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증이 곧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자기 민족의 간부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조선민족교육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왔다. 지금 연변에는 조선족 소학교 208개소, 민족연합소학교(民族聯合小學校) 148개소, 중학교 58개소, 연합중학교 50개소와 조선족사범학교 1개소가 있는데 약 14만여명의 청소년들의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서 공부하고 있으며 전 주에 5개소 정규화 대학교가 있다. 그 중 전국적으로 일찍 성립된 연변대학은 조선민족대학교로서 많은 민족간부와 인재를 양성하였다. 지금 연변에는 촌마다 소학교가 있고 향마다 중학교가 있으며 현(시)마다 고급중학교가 있게 되었다. 이로보아 조선족민족교육은 중국 조선족의 동질성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셋째, 민족단결활동은 조선민족 속성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여 왔다. 우리 연변에선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조례”와 “조선족어문사업조례”, “조선족문화사업조례”, “미성년에 대한 보호조례”, “농어민부담 감소에 대한 조례” 등 단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연변의 민족사업으로 하여금 법적 궤도에 올라 서게 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1954년부터 매년 9월에 “민족단결선전월간(民族團結宣戰月刊)” 활동을 벌렸다. 동시에 민족리론(民族理論)과 민족단결교양을 각급, 각 부류 학교의 교수과목에 넣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창립된 이래 전 주적(全州的)으로 민족단결진보활동을 계속 벌려 왔으며 금년까지 10차의 민족단결진보활동 표창대회를 열었는데 도합 759개소의 선진집단과 1671명의 선진인물을 표창하였다. 1988년도와 1990년도에 우리 주는 선후(先後)하여 국무원과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전국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의 칭호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조선민족의 민족속성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Ⅳ. 결 론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계속 당의 민족교육제도를 집행하여 조선족청소년들의 자각성을 보다 높이므로서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가운데서 옛 조선족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각항 업종에서 많은 공헌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민족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조선족청소년들에게 조선말과 글을 사용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질성분을 극복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의 사용하는 조선말과 글이 남북조선의 말과 글과의 동질성분을 살려 나아감으로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사는 조선족청소년들과의 이해와 연계를 강화하고 남북조선 평화통일에 유조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3. 연변조선족자치구 자치조례
4. 연변조선족교육사(연변인민출판사 1987년 출판)
5. 조선학연구 제3권(연변대학 출판사)
6. 민족사의 脈을 찾아서(朴成孝 著)
7. 통일한국의 摸索(李相오 編)
8. 중국연변의 조선족 - 사회의 구조와 변화(한상복, 권해환)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

金 東 圭
고려대학교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

金 東 圭

고려대학교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분단 45년, 이질화 45년. 이것이 남북한의 오늘의 모습이다. 더우기 1948년 민족분단이후의 세대들에 있어서는 민족 공유의 역사가 없었으므로 남과 북에 대한 인식은 전혀 관념적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 때문에 대립과 대결의 적대적 관계로 의식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50년, 6·25사변 당시에 이미 자아의식이 형성되었던 세대들 50대 이후의 경우이고 현재 청소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6·25사변”은 기성세대들에게 “임진왜란”만큼이나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가치평가)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돼 있다.

첫째로, 일제 식민지 시기와 분단과정 그리고 6·25의 처절한 역사를 체험한 60대 이후의 세대들은 남북한 공존의 경험에서 동질적 친화감을, 분단과 전쟁의 체험에서 이질적 위화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갈등적인 양가성(兩價性)의 인식이다.

두번째로는, 50대를 전후한 해방이후의 세대로서 민족 공동체적 역사경험은 없으나 전쟁의 체험과 함께 대립과 대결의 이데올로기로 성장했기 때문에 제1세대와는 달리 양가성적 갈등보다는 흑백론적 가치관 또는 적대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2세대라 본다.

세번째의 제3세대의 경우는 40대 이하로 민족 공유의 역사도 없고 비극의 동족상잔의 전쟁 체험도 없으므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극히 관념적이며 그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운 대결과 대립의 이데올로기마저도 별로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제1세대와 제2세대가 갖는 체험적 갈등구조에 대하여 관념적 갈등에 놓여 있다. 이러한 관념성은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아지는 비례적 현상이다.¹⁾ 본론에서는 이러한 3가지 분류 중에서 주로 세번째(제 3세대)의 부

류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성(人性: Personality)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북한 간의 동세대들 사이에는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는가를 비교 평가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극복방향은 있을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남북통일을 앞두고 무엇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제1차적(선결적)과제로서 “현상파악”(기초이해)에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후의 조속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결정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현재의 남북한 청소년들이 바로 통일된 조국의 역사창조 주역으로 등장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과 국가관을 수립하게 하는데도 주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연구의 의의(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몇가지 제한점

(1) 문헌연구 중심

(2)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또는 가치관 가운데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찰 분석하되, 주로 상반적 이질 요인을 중심으로 대비시켜 그 이질화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형식

(3) 결론부분에서는, 남북한 간의 청소년 성격요인(가치관) 중에서 긍정적 동질성은 살리고 부정적 동질성은 지양하는 방법, 또한 긍정적 이질성과 부정적 이질성의 조화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4) 북한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가능한대로 제1차적 문헌에 의존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성때문에 관련 선행연구와 2차자료에서도 참고하는데서 야기되는 연구내용의 낮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

1) (체험적 동질감) (체험적이질감) (체험적이질감) (관념적 이질감)
 * 제1세대 = * 제2세대 = * 제3세대 =
 (애정적 갈등) (적대적 갈등) (친애적 갈등)

Ⅱ.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적(상반적) 가치관

1. 이기적 개인주의 : 희생적 집단주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 이념(가치)이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의 신장”임에 대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전체적 평등”과 “집단이익의 우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사상과 집단의 가치관이 발달돼 있다.

따라서 남한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개인적 자유의식이 비교적 발달돼 자아개념이 높고 개성적이며 나름대로의 자기주장이 뚜렷하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청소년들은 유아기부터 제도적으로 집단생활을 통하여 자아의식을 억제하고 전체의식화시켰기 때문에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국가에 무엇인가?”의 사고과정을 하게 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있을 뿐이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있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사회는 이 “전체”마저 국가나 민족이 아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대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인 자유와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자유=책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요건이 되지만, 잘못하면 책임없는 자유와 의무없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른바 이기적 개인주의(Egoistic Individualism)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바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그렇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말았다.

남북한의 이러한 상반된 가치관의 형성도 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된다. 남한의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치열한 대학진학에 따른 상호경쟁의식, 출세주의, 목적과 수단의 전도된 가치관 등에서 연유한 결과이다.

북한의 물개성적 집단주의는 김일성의 카리스마화 과정에서 독재체제의 유지수단에서 불가결한 요건이었다.

“……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전에 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요한 의지를 가지고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p.20 : 방점은 필자)

“…… 하기에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

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김정일, 사상리론의 영재, 1986, p. 86.)

이러한 가치관이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주입되는 북한사회인 것이다. 과연 이론과 실천(관념과 행동)이 어느 정도 결부되고 있는가는 불확실하나 교육심리학상 “계속 반복의 효과성”은 평가되고 있는 법칙의 하나이므로 그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1985년 평양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강운빈의 집필로 펴낸 「인간개조리론」에서 보다 구체화된 물개성론이 전개되고 있다.

2. 다원적 상대주의 : 일원적 절대주의

남한의 청소년들이 사회화되어 온 환경이 비교적 개방과 국제적 교류풍토였으므로 자연히 비교와 평가가 다원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면, 북한은 폐쇄와 단절의 조건에서 “당의 유일사상”이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일원론적 절대가치체계에서 그들의 가치기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남한의 청소년들은 상대적 비교평가에서 오는 욕구불만과 갈등, 다원적 가치관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시행착오 또는 자아정체(自我正體 : Self-identity)의 혼미성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자기계발의 계기(자극)를 갖게 된다.

반면 북한의 일원적 절대주의는 사고의 단순성에서 오는 안일성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생략된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창의적 자기계발은 기대할 수 없다.²⁾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관의 사회에서는 전통적 유교의 질서관에서 보면 버릇없는 젊은이, 믿을 수 없는 세대로 보이기 쉬우나 급변하는 환경조건에도 쉽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는 커다란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절대적이고 일원적 가치관의 인성(성격)은 유교적 수직원리에 강해 예절이 바르고 결단력이 있어 보이나 적응력이 모자라 경직된 사고와 태도를 나타낸다.

3. 물질적 상업주의 : 정신적 이념주의

인간의 본질문제를 두고 사르트르(Satre, J.)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했다면 마르크스(Marx, K.)는 “물질은 정신에 선행한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의 기본전제는 물질주의임에도 실제로는 정신문제와 직결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좌우하는 결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남북한의 청소년들의 가치지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바, 다시

2) E. Fromm은 「The Heart of Man」이란 저서에서, 이러한 사회와 인격을 “퇴퇴의 증세군”으로 규정하면서 “삶”이 아닌 “소유” 또는 “사물”로 설명하고 있다.

말해 남한은 자본주의적 상업주의로 모든 가치척도를 물질(돈)에 기준하여 평가하게 된다. 심지어 가장 정신적이어야 할 남여의 애정관계도 쉽게 물질적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고 이것은 곧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청소년들은, 그 시비선악(是非善惡)의 판단은 유보하고 볼 때,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관(높은 계급성, 혁명성 등)으로 투철한 정신적 이념추구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들의 남녀관(애정관)에서도 남한은 상대방의 내면적 인격성보다는 외면적(물질적) 조건들을 우선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혁명성이나 인간성 같은 정신적 평가 기준을 보여준다. 분명한 남녀관, 결혼관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있으며 남한의 문란하고 퇴폐적인 남녀관, 젊은이들의 지나친 물질추구적 경향에서도 상반적인 의식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4. 서구 지향적 가치관 : 소비니즘적 애국주의

한국 현대사의 형성과정과 발전모델이 그랬듯이 서구적 문화풍토는 우리의 사회화에 중심적인 가치준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3공화국에서는 한때 국적있는 교육, 주체성있는 민족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강조하기도 했으나 별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남한의 청소년들 중에는 스스로 민족전통과 문화를 되살리고 부흥하려는 풍조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전체적인 풍토와 의식구조는 서구지향, 특히 미국적 문화와 가치관으로 지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경우는 1948년 정권수립 후, 일시적으로는 소련을 위시한 우방국과는 개방적이고 친화적이었으나 이른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대두되면서 완전히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소비니즘(Chauvinism)의 가치교육과 동시에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을 뛰어넘어 적대시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국가관, 세계관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조국(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충성, 아니면 적국(미국, 일본, 남한)에 대한 철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학교교육의 과정(課程)이다. 이러한 사랑과 미움, 충성과 복수와 같은 대립감정을 교묘하게 조화시켜 상승효과를 거두는 교수-학습론을 북한에서는 “대비교양법(對比敎養法)”이라고 개념하고 있다.³⁾

이처럼 남한의 청소년들 사이의 외국문물에 대한 심취(Xenomania), 외국인에 대한 친화감

3) S. Freud가 그의 「정신분석학입문」에서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Eros)과 증오(Thanatos)라는 상반 개념을 전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됨.

(Xenophilia)도 자신의 주체성과 확고한 국가관이 전제돼야 하며 그렇다고 북한과 같이 소비니즘적 가치관은 시대착오적 반역사성이다.

5. 단기적 조급성 : 장기적 인내성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공통적으로 감성적이고 조급한 것이지만, 남북한의 경우는 비교적 조급성과 인내성으로 대비된다.

남한의 경우 젊은이들의 성급함과 인내력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경제적인 급성장에 따른 빈번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발달된 인스턴트(instant)식품에서 주된 근거를 찾게 된다.

급변하는 경제사회와 물질생활은 날마다 다른 적응을 요구함으로써 단기적 계획과 목표달성에 허덕이게 만들고 정신적 불안과 초조감(조급성)을 초래한다.

또한 아무리 배가 고파도 1분이면 배를 채울 수 있는 “패스트·푸드”(Fast-food : 1분 컵라면 등)의 발달은 참을성이 없는 아이로 키우게 된다.⁴⁾ 이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보편적으로 참을성이 없고 성격이 조급함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남한의 생활환경과는 다른 북한의 경우는 모자라는 식량으로 배불리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⁵⁾ 패스트·푸드가 없는 재래식 취사에서, 그리고 “배움의 천리길 행군”이니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등등의 강행군을 혹한의 눈길 속을 헤치며 실시하고 있는 규율과 훈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인내심을 배양하고 있다.

“배움의 천리길 행군”이란, 1923년 김일성이 12살때 부모를 떠나 만주에서 평양까지 무려 천리길을 혼자서 걸어와 공부를 했다는 미확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마다 북한의 청소년 학생과 아동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행군시키는 교육훈련이다.(「백과전서」, 제3권, 평양, 1983. p. 392 참조)

그리고 북한의 통치자들은 청소년들에게 항상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사회의 미래상을 주입함으로써 현실적인 욕구불만이나 고난을 극복하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한의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기대(안목)와 목표를 더욱 중요시하는 의식구조인 것이다.

4) 제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될때까지 적어도 30분-1시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던 때를 상상하라. 인간은 식욕이라는 본능을 억제하는 것만큼 인내심을 키우는 것이 없다.

5)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재미교포 이은일씨의 「방북기」에 의하면, “북한에 갔을때 김일성대학의 학생들이 하루 두끼먹는운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노동신문에서 읽었다”는 것이다. “세끼를 다 먹어도 배가 고폴 젊은이들의 두끼먹는 운동은…”

(세계일보, 1992. 10. 28)

Ⅲ.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적(상관적) 의식구조

1. 상반된 이데올로기의 관념적 인식

상반된 이데올로기의 관념적 인식이 부단한 영속성을 지니려면 변화하는 상황과 외적 조건에 적응하는 끊임없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하든지 아니면 강렬한 실천적 경험이 밀반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적 수준과 실천적 수준에서 보다 상수(常數)적 요인은 후자라고 볼 때, 오늘날 남북한의 청소년(제3세대)들은 관념적 수준의 영역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남북한의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가치화시켰던 “6·25의 비극”도 오늘날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마치 제1세대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과 관념과 같아서 아무런 저항의식이 없으며 또한 북한의 동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조국해방전쟁”(6·25사변)은 그렇게도 강조된 교과내용과 의식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극히 관념적 수준에서 의식화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권력권에서 이데올로기의 실천적 경험세대가 사라진다면 아주 쉽게 접근하고 결합되는 동질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공통분모이다.

일개의 부분적인 현상이요 사례일지 모르나 최근 들어 북한 청소년(유학생 귀순자)들이 손쉬운 결단(변적)과 적응력을 보기도 하고, 1991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하나인 동서조사연구소가 대북한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68.2%가 “북한에 적대감이 없다”로 나온 남한의 사례를 보게 된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 수록(대졸 이상 43.2%, 중졸 이하 48.5%) 적대의식이 낮아지는 현상이다.⁶⁾

2. 부정적인 흑백론적 사고구조

남한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가 점차 다양화, 개성화 되어 가고 있으나 무의식 속에는 흑백론(All or Nothing)적 사고태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정권에 의한 군사문화(적 아니면 아군의 이분법적 가치관)와 학교교육방법론(OX식 문제와 선다형)에서 연유된 결과이다.

한편 북한의 청소년들도 학교 교육의 전 교과목(단원목표)이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분노와 적개심(黑) 아니면 무한한 충성과 효성(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도표 1 참

6) 전국의 성인남녀 1천5백명 대상(「동아일보」1991, 12, 30 참조)

조).

Ⅳ. 결론 및 이질화 극복방안

남북한 청소년의 성격구조 및 가치관에서 이질적 요소와 동질적 요인은 본론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가령 지나친 경쟁의식과 낮은 성취동기, 나약성과 강직성, 중성(Uni-sex)적인 남녀상과 경직된 남녀관, 낮은 협동심과 높은 협동심, 유순한 언행과 거칠고 감정적인 언어와 태도, 모호한 국가관과 투철한 국가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거센 비판의식과 순종적 복종의식, 지나친 불신풜조와 무조건적 과신(過信) 풍조, 남한의 주입식 학습태도와 북한의 일방적인 사상교육의 강요에서 생겨난 자율성의 결여 등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상호대립과 이질적인 요인들이 동질적인 요인보다도 더 많음을 보게 되나 이것은 북한이 학교교육에서 “인간개조론”적 교육방법과 내용에서 거의가 형성된 결과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분류설명 했듯이 제3세대의 상반된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는 관념적 수준에서 형성된 결과이므로 제1세대나 제2세대와는 달리 쉽게 동화되고 조절될 것이라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괄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의 성격요인에서 이질적 요인과 동질적 요인을 긍정과 부정의 평가기준에서 분류(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한 또는 통일 이후의 올바른 국가관과 민주시민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통합준거는 어떠해야 하겠는가를〈도표 2〉에서 요약한다.

끝으로,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성격 요인들 중에서 이질성과 동질성으로 서로가 상반적이고 대립될지라도 긍정적인 요인은 살리고 부정적인 요인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선결해야만 되는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있다.

- * 남한의 경우는, 정치적인 민주화의 완성과 경제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그리고 파행적인 학교교육의 혁신이다.
- * 북한의 경우는, 허구와 허위의 「조선력사」부터 폐하고 또한 위선으로 구성된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을 버려야 한다.⁷⁾
- * 이러한 선결조건이 가능해진 시점에서는 진정한 남북통일의 기틀이 이루어질 것이고 남

7) 특히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령도체계”, “령도예술”등 김일성의 독재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론, 즉 주체사상으로 북한주민들은 주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체”하는 껍질을 벗겨내야 민족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북한 청소년들의 동화현상(同化現象)은 하루 아침에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동규,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서울, 1989.
- _____,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서울, 1990.
- _____, 남북한 분단이후의 교육의 역사적 고찰, (『교육학연구』, 제 28권 3호), 한국 교육학회, 1990.
- _____, 민족통일과 남북한의 학교교육 (『도산논총』),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서울, 1992.
- 도홍렬,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비교, 국토통일원, 서울, 1978.
- _____, 북한해방세대의 의식구조, (『북한』 1978년 8월호).
- 서동훈(편), 남북한 사회 문화지표, 통일원, 서울, 1991.
- 민주문화아카데미, 「이데아」 (제3권 35-36호), 서울, 1992.
- 한국교육신문사(편), 한국교육연감(1991), 서울, 1992 한국청소년연구원, 북한청소년연구 (1991), 서울, 1991.
- 강운빈, 인간개조리론,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85.
- 김윤일, 배움의 길이막힌 암흑의 땅 남조선,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86.
- 김정일, 사상이론의 영재,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86.
- 금성청년출판사, 「대학생」(1981년 7월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 백과전서(1-6), 평양, 1980.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현대조선력사, 평양, 1983.

남북한 청소년교류 방안

朴 聖 姬
한국청소년연구원

남북한 청소년교류 방안

朴 聖 姬

한국청소년연구원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차 세계대전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약 반세기가 가깝게 갈라져 살아온 우리 민족은 ‘민족분단’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의 이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남북분단이후, 남북한은 서로간의 접촉이나 교류를 거의 단절한 채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각 상이한 생활을 추구해 온 결과, 남북한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의식구조에서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질화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초래하면서 남북한간의 반목과 대결로 얼룩진 분단의 반세기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성을 훼손시키고 민족의 이질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분단상황이 약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분단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장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각 사회의 주도적 인구층(1990년 기준으로 약 80%)으로 등장하면서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분단전 세대가 아닌 분단후 세대들에 의해 육성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질성은 남북한간의 이질성의 주 핵심을 이루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이질성은 분단상태가 지속될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심화될수록 동질성의 회복이 어렵고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게 된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동이며 주인공으로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성은 전체 민족적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비록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나 체제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남북한은 같은 핏줄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지닌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분단의 장벽을 넘어선 민족공동체의식을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형성시켜 주는 것은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절된 역사 속에서 심화된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적대화현상을 극복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묶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을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하면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질 것이다. 청소년교류의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현실상황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론적 접근에 그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화를 극소화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회적인 연구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진전과 전망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남북학생간의 조국순례대행진, 친선체육경기 개최,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 교환, 명승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그리고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및 평양 국제청년학생축제 참가와 서울국제청소년캠보리 등 국제청소년행사에 단일팀 또는 공동참여 등과 같은 청소년교류에 관한 여러 방안을 상호제안을 하고 접촉과 대화를 시도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1991년 리스본에서 열린 제 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안제시에 그쳐 버렸다.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이처럼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청소년분야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다른 분야와 같이 당장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쉽게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에 의해 야기된 남북한의 대립과 대결구조에 있어서 청소년교류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된 요인

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북한은 청소년이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가의 장래와 귀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는 체제유지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왔다. 서로 상반되는 체제와 이념속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한 남북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는 청소년에게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주어 현 체제수준에서 상당한 위협적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자신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접촉이나 교류를 대내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가능한 회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북한간의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 청소년교류는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제까지의 남북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는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띠면서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아직 서로 상반된 이념으로 대결하여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냉전구조 속에서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가 무척 어렵다. 앞으로 북한의 체제변화가 일어나거나 남한이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취하던지 현 남북한 관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교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국가에서 일어난 청소년들이 선봉이 된 민중봉기를 목격한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내부적인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차단벽을 더욱 높이 쌓아 대외적으로 단절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남북한 합의서」의 교류·협력분야의 예시에서 청소년부문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청소년교류의 전망은 그다지 밝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청소년교류가 필요하다는 청소년교류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만일 남북관계가 원활히 발전된다면 정치적 협상과 상호협약에 의해 청소년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전히 남북관계의 걸림돌은 남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아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남북교류가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일시에 다방면에 걸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Ⅲ. 남북한 청소년교류 방안

구체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현 남북한의 갈등구조에 있어서 매우 어렵지만, 청소년교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다각적으로 강구된 교류방안을 북한에게 끊임없이 제기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 언제 정치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제를 내세워 청소년교류를 제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교류의 뚜렷한 목표와 이에 접근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목표와 기본방향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목표 : 한민족간의 만남이라는 순수한 목적 이외에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이 개재될 경우에는 최근 독일 및 동구권국가의 사태로 긴장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심판 자극하여 실현가능한 작은 기회마저 차단되기 쉽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오랜 분단으로 야기된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발전시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추진의 주체 :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교류가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정부당국이 남북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교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주도적으로 교류의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후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로 청소년단체들에게 실행상의 제반문제를 이관하여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교류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정자,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추진과정에서의 태도 :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금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필요성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제의하고 응하고 있는 분야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인 손실이나 수모조차 감수하겠다는 과감한 양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방향 : 남북관계의 현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사상, 이념, 체제

등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단일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응하기 쉬운 현실성이 있는 분야부터 교류를 추진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분야,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 정치적인 성격이 적은 분야, 체제보다 민족이 앞서는 분야, 특히 동질적, 전통적인 요소가 많은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방법: 북한이 전면적인 교류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간접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국외접촉에서 국내접촉으로, 물적에서 인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에서 공동사업 및 협력으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정치적인 분야로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방안

현재 예측되는 남북관계의 발전상황을 비추어 볼 때, 민족공동체형성을 목표로 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교류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는 기반조성단계, 청소년교류에 대한 남북한 합의에 의해 청소년교류가 실시되는 교류추진단계, 그리고 청소년교류가 확대되고 공동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교류협력 활성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는 이러한 일정한 단계적 추진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단계화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진전되는 남북관계에 맞추어서 각 단계별 진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제 1 단계: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기반조성단계

초기의 접촉단계로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여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고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선 쌍방의 청소년 담당자간에 접촉과 대화를 통한 교류를 위한 접근이 시도되어 청소년교류에 대한 의사가 서로 교환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관계인사들간의 회담을 통해 교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청소년교류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공식적 접촉 뿐만 아니라 비밀접촉이나 비밀방문 등

비공식적 접촉도 포함)을 통해 북한에게 청소년교류를 다각적으로 제의하고 설득하여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한 두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접촉방법이 좋다. 이 단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교류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 3국에서의 국제회의나 대회를 통한 정보와 자료,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 국제청소년기구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 3국에서의 국제청소년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미술, 글짓기대회 개최 및 미술품, 사진 등 문화예술품의 상호교환 전시회 등 비접촉적인 간접적 교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제 2 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단계

제 1단계에서 체결된 청소년교류협정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를 주도할 공식기구가 설치되어 교류의 원칙, 대상,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협정이 체결되어 직접적인 교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교류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인사들의 상호교환방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제한된 시범적인 교류가 실시되게 된다.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교류는 상호체제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 즉 같은 인원의 남북한 동시왕래나 교환방문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교류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쌍방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국제청소년행사에 상호초청, 참여하는 방안, 제한된 상호지역을 방문하는 시찰, 교적답사, 수학여행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문화예술단의 상호교환공연 등을 들 수 있다.

제 3 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단계

최종단계로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어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청소년관련분야의 전반에 걸친 교류가 가능해진다. 교류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질성을 추구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공동활동과 상호자유왕래가 중심이 되는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체제가 구축되게 된다. 특히, 문화유적지나 민족사적지 방문이나 유물전학, 민속경기나 놀이중심의 행사, 전통가무공연 등 우리 민족의 문화 또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교류 및 협력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국제청소년기구에 단일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국제행사나 대회에 단일팀으로 참여하는 공동협력하는 방안, 쌍방에 개

최되는 각종 회의나 행사에 상호초청, 참여하는 방안, 청소년관련 각종행사 및 대회를 공동개최하는 방안, 학교 및 청소년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촉진하며 예, 체능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공동참여기회를 마련하거나 공동조직을 형성하여 공동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비무장지역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가진 청소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Ⅳ.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대비한 방안

청소년교류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교류는 급히 서둘러서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성급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반을 갖추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교류의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와 대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청소년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의 정치적 이념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북한을 우리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객관적이고 대등한 자세에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대책

청소년교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청소년교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민족공동체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겠다는 기본적 자세가 없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나 북한접촉의 허가제도와 같이 배타적인 정치적 규제를 합목적적으로 신축성있게 완화하거나, 교류활동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전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소년교류위원회 구성

체육청소년부 내에 ‘청소년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러 관련 청소년관련 부처나 단체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제안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청소년교류 활동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관련부처들과 청소년단체 간의 긴밀한 사전협의체제로서 여러 관련부처 및 단체들의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교류의 방향, 방법,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협의하여 각 단계별, 각 분야별로 추진이 가능한 교류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교류활동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해당부처의 공무원, 교사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관계인사, 그리고 청소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의 청소년교류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의 교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담기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치교육실시

상호이념체제가 다른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견고한 국민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강조되어 온 통일교육이나 이념교육과는 달리,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민주시민교육에 일차적인 역점을 두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민족교육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5. 남북한청소년 비교연구의 활성화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선 상대방인 북한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선행하고 남한청소년과 비교연구를 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배경, 그리고 그들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비교연구는 청소년교류의 기본전제

가 될 뿐 아니라 통일후에 예상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태환(1983), “남북한 대화타개를 위한 이론적 접근”, 통일논총, 3(2), 35-51.
-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1976), 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1977), 남북한이 공동참가하는 각종 국제회담 및 행사를 이용 한 남
북한 관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통일원(1978), 남북교류협력 유도방안
- 국토통일원(1986),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이루어지나
- 국토통일원(198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 국토통일원(1990), 남북교류협력 방안연구
- 김명기(1990), “통일을 위한 남북한 신뢰구축방안”, 통일문제연구, 2(4), 112-130.
- 김성수(1990),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따른 법적 문제와 방안”,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
집, 209-239.
- 김성희(1991,11.12), “민족통일과 여성의 참여”, 민족통일, 33-35.
- 김일주(1990,2),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내부의 신뢰구축”, 기러기, 15-21.
- 대한올림픽위원회(1992), 분단국에 있어 체육교류의 정치·사회적 기능, 남북한체육교류 국
제학술대회 주제발표논문집
- 도홍렬(1985,11), “남북교류시대를 향한 통일교육”, 통일한국, 24.
- 박한식(1990),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조성”,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 신정현(1990), “한민족공동체의 실현방안”,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 신철균(1992), “통일을 위한 청소년의 육성방향과 과제”, 기러기, 4-9.
- 윤기관(1991), “남북교류의 실적 평가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3(4).
- 이상두(1985), “남북한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응방향”, 북한, 9, 167-189.
- 이영춘(1985), “후계세대를 위한 방향모색”, 통일문제, 20.
- 이정춘(1990), “남북 방송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35-77.

- 이정희·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정책과 방송정책, 청림출판.
- 이창호(1990,9),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36-41.
- 장세근(1990,2),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념적 토대”, 북한, 191-203.
- 장세근(1990,3),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념적 토대(Ⅱ)”, 북한, 191-203.
- 정대규(1980),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정책, 6(2), 112-127.
- 정무장관(제2)실(1991),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 주태산(1990,11), “북한의 남과 북, 막오른 남북교류”, 북한, 97-103.
- 하영선(1989), “통일접근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모색”, 통일문제연구, 1(1), 75-87.
- 한국교육개발원(1991),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민족
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에 대한 토론

都 興 烈
충북대학교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에 대한 토론

尹 德 熙
민족 통일 연구원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대한 토론

朴 仁 周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에 대한 토론

都 興 烈
충북대학교

본인은 한국국민의 한사람이며 사회학을 전공한 교수이다.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서도 이러한 입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과 연변 조선족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며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러나 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 보완적 작업을 기대하고자 한다.

I. 개념규정과 접근방법

먼저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준거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며 비교대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첫째,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성격적 특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특성이 과연 연변 청소년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이질적 특성이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제시된 4가지 특성중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의 양분성”을 제외하고 출세수단으로서 높은 진학열, 입신양명의 가치관, 민족평등의식 등은 사실상 한국이나 북한사회에도 공통되는 성격이며 교육열의 경우 오히려 한국에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제시된 성격 특성들은 이질적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기보다 연변 조선족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성이며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민족의 동질적 특성에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비교대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견된다. 발표지는 연변·남한·북한의 청소년을 서로 비교하여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분하고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을 추출하는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3곳은 각기 국가체제, 이데올로기, 정책수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북한·연변간의 차

이점과 공통점이 구체적으로 비교되지 않은 조건에서 연변의 특수성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북한·연변간의 공동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방법의 문제이다. 본문에서 “설문조사의 결과”가 논급되고 있는데 인용된 자료가 생산된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① 조사시기, ② 모집단의 성격과 표본의 대표성, ③ 조사기법, ④ 관련된 다른 조사결과와의 비교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하에서 “제한적”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조사결과는 때때로 실제적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Ⅱ. 중국 민족정책을 보는 시각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을 보는 시각이 일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산당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장·단기적 목표, 정책수행의 한계성과 앞으로 과제 등에 대한 접근이 결여되고 있으며 소수민족정책과 조선족과의 현실적인 관계설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조선족과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어떠한 입장이며 통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점 등이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민족들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분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 때문에 조선족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갈등이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족(漢族)과의 동화를 거부하고 조선족 특유의 민족공동체를 형성·발전하려는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제는 없는가?라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본인의 견해로는 현 조선족 사회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조선족 사회는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민족융합정책에 의하여 서서히 민족적 동질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사회의 유형·무형의 압력에 의하여 젊은 세대 가운데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고 중국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같은 간접적인 동화현상보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조선족 소수민족사회에 한족의 침투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변지방의 경우 195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족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데 비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한족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한족인구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연변지역에서도 소수민족은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한족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역대 중국정부는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소수민족지역에 한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장려해 왔으며, 소수민족의 분리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다. 등소평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도 西藏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강압적 정책을 취하였고 新疆지역에 한족의 이주를 직접·간접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과거의 소수민족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새 사회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소수민족자치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한족이 중심이 되는 중앙집권적 다민족국가로 발전시킨다는 중국전래의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¹⁾

Ⅲ. 남는 문제

끝으로 발표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묻고 논평을 끝낸다.

첫째, 연변조선족은 국가와 민족이 일치되지 않는 조건과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원칙하에서 새중국 건설에 참여하였고 반제 반봉건투쟁, 해방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이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 갈등의 소지는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으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라고 여겨진다.

본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변조선족사회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조건 때문에 고국에 대한 의식이 양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적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1991년 8월, 한국을 방문한 연변 조선족(303명 대상자)을 대상으로 “북조선과 남조선중 고국으로서 어느 쪽을 더 가깝게 느끼는가?”는 면접조사결과, “남조선”이라는 응답자가 177명 58.4%였고 “북조선”은 25명 8.3%인 반면, “양쪽 똑같다”는 자가 32명 10.6% 수준이었다.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남조선)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선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는 고국의식의 이중성이 역력하다. 더욱이 조사 지역이 한국의 서울과 인천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 도홍열, “중국 소수민족문제와 조선족사회”, 김영모편, 「중국조선족사회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pp. 190 - 191.

2) 위의 글, p. 182 - 3.

둘째, 민족단결선전 월간의 활동, 민족이론과 민족단결 교양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해 왔는가?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대회에서 표창을 받은 선진집단 759개소와 선진인물 1,671명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셋째, 지금까지는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이 북한식 말과 글을 사용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발표자의 말대로 “조선말과 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질성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이상에서 논평과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좋은 논문을 발표한 김장욱 교수에 감사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국에 이주·정착하여 독특한 민족공동체를 형성·발전시켜온 중국동포 여러분의 민족적 자긍심에 경의를 표한다.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에 대한 토론

尹 德 熙
민족통일연구원

I. 전반적 평가

발표문의 주제는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화 내용과 동질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과 정 및 통합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비교를 통해 이질성과 동질성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들간 가치통합의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가치통합을 위해 남북한이 해야할 정책과제는 별도의 주제여서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한 청소년의 의식구조는 시대적 변화와 세대간의 차이를 고려해 제시한 반면, 북한의 경우는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다른 세대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남북 청소년간의 동질성의 실체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관념적 수준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단지 실천적 경험에서 오는 상호 적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남북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통합의 준거로 삼아야 할 동질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셋째, 발표문에서 제시된 가치통합의 준거들이 너무 당위론적으로 설정되었다. 통일 후의 가치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을 하고 이에 의거해 가치통합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째, 이러한 가치준거에 의한 남북 청소년간의 동질화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북한 내부의 민주화, 또는 주체사상의 포기로 이러한 동질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Ⅱ. 남북한 청소년의 인성비교에 관하여

남한에서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다원적·물질적·서구지향적 가치관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경우,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희생적 집단주의, 일원적 절대주의, 정신적 이념주의, 소비니즘적 애국주의, 장기적 인내성 등은 북한 청소년들 특유의 가치관이라기 보다는 북한정권이 의도적인 「인간개조사업」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했던 「주체적 인간상」으로서 북한주민들의 지배적 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적 인성에 의해 북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러한 지배적 인성은 북한의 집단에 따라 정도나 양식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인테리나 젊은 세대는 주체성 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6·25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78.5%이며, ‘혁명’이라고 말하는 항일투쟁과 6·25동안의 ‘대미투쟁’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북한사회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의 하나로 ‘지주와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함’을 모르는 전후세대로의 교체를 꿈고 있다.

더욱이 북한주민의 성격구조는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인 개인주의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공적 선호만 겉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사적 선호가 현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 귀순자들이 비교적 쉽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데 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며,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청소년들의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구조의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통제의 약화: 유비통신(‘유언비어’의 속칭)의 발달 등으로 정보통제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정보망이 대두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도 고조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급증으로 인한 의식수준의 상승 : 북한은 1972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77년부터는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87년 한해에 10개 대학, 3개 전문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87년말 현재 244개의 대학이 있으며, 1990년 현재 146만의 대학졸업자가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 정보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정권의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생활환경의 변화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갖가지 정책적 조치의 결과로 나타난 여가문화 시설의 확대, 문화적 욕구의 상승, 외화상점의 등장, 영어교육의 장려 등 외래문화의 수용태세를 폭넓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 특히 변화에 민감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이 종래의 획일적이고 순종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점차 비판적이며 비교의식을 가진 가치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상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인간상」이 쇠퇴하고 그 대신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고가 발달하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적 성향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청소년들간에 상호 동질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통일후 남북한 청소년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이질화 극복 방안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통합하는데 있어 남북한이 동시에 지향해야할 통합준거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식구조의 통합은 남북한의 현실과 앞으로의 변화전망에 부합되는 통합된 의식구조를 제시해야 하는 바, <도표 2>에서 제시한 통일후의 가치관 통합의 준거는 우선 너무 당위론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서의 「조선력사」를 폐기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목표로 남북한이 지향해야 할 가치(청소년의 의식구조를 포함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남북한 사회의 가치체계 현황, 남북한관계, 그리고 남북한 사회변화 전망에 의거한 남북한 통합의 객관적 조건과 제약요소들을 반영하고 이에 기

초하여 접근해 가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가치통합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해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을 전제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대립·경쟁을 극복하고 조화점을 찾는 가운데 상호보완적 수렴을 통해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는 세계사회의 발전추세 및 문명사의 진행방향과 조화가능하고 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남북한 청소년간의 가치관 통합은 통일과정에서 오랜기간 동안 남북 청소년들 의식구조의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청소년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동질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청소년간의 동질성 회복은 보다 폭넓은 남북 사회의 동질성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남한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하고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의 폐쇄성과 이념적 경직성에 의거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현대산업사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 구조가 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 사회 및 문화가 다원주의적·개방적·자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가치체계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에 따라 북한청소년들의 가치관도 크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 청소년간에 어느정도 이질화가 해소될 것이며, 통일한국에서 지향해야 할 남북 청소년의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남북한 청소년간 의식구조의 동질화를 위해서는 사회개방의 효과가 큰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인적교류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학생들의 정치사회화 교육에 주력해온 결과 남북학생 접촉에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측 학생들의 자유분방함과 창조적 성향이 북한 학생들에게 자유주의 바람을 불어넣고 비교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에 대한 토론

朴 仁 周

도산아카데미연구원

I. 들어가는 말

평소 청소년운동의 현장에 있었고, 민족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토론자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몇차례 정독한 이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가슴 한가운데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분단이후 47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역사, 언어, 혈통, 문화, 전통들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남은 남의 방식대로, 북은 북의 방식대로 대북, 대남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이질화의 극대화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남북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청소년 교류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교류는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도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청소년 교류를 남북한 제교류 중 조그만 한부분으로 취급하여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남북 총리 회담이 몇 차례 잘 진행되는가 싶더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 남북총리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무기한 연기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즉 남북한 청소년 교류 역시 남북한의 정책적 혹은 전략적 접근과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째는 통일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통일의 후계 세대들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의지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통일의 주체인 오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준비, 관심, 의지가 낮다는 게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래 통일 사회의 주체들인 오늘의 청소년이 보다 크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들이 져야 한다.

이상의 세가지 안타까움 속에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생 각해 보면서 토론에 들어간다.

Ⅱ. 남북한 청소년 교류 추진의 주체 문제

최근에 남북교류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정부차원의 남북한간의 교류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공식적으로 접근하는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제3의 조정자 내지 중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쉬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남북민간학술교류추진위원회 라는 조직이 있다. 최근에 고려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우리가 몇명 참석하고 북한에서 몇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학술교류추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교회의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해서 몇 만권의 성서를 전달했는데 그 전달방식에 있어서도 인쇄도 한국에서 하면 안되고 북한에서 인쇄한 것이어야 그나마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성서 전달이 가능하지, 공식적으로는 전연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경제교류에서 김우중 회장이 간다든지 고려합섬 회장께서 다녀온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제3의 방식, 즉, 제3의 중개자를 통한 교섭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증해 주고 있다.

경제교류든 종교적인 교류든 학술교류든, 또한 청소년 교류역시 공식적인 접근방식보다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접근자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다. 공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서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합의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청소년교류에 대한 합의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봐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중심이나 공식적인 접근보다는 교류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만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인의 첫번째 생각이다.

Ⅲ. 청소년 교류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내가 연변에도 가서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만 역시 연변이라는 제3의 개념상의, 제3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중개적 만남의 포인트라고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물론 지리적 개념에서 연변이 갖고 있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문화전통적인 면에서도 연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많은 것을 사색하게 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풍습 습관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경우에 서구문화, 서구의 가치관, 서구의 개인주

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며 북한에는 소련식의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라는 문화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므로, 제3의 문화라는 입장에 있는 연변, 그러면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아직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연변을 중개매체로 해서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를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현재로서는 연변의 청소년단체가 경비가 없어서 주최 못할 것이라고 안다. 남북학술교류 경우에도 이쪽에서 비용을 다 대주고 형식만 그쪽에서 주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소년공동캠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세미나하는 문제라든지 음악회를 연다든지, 아니며는 체육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경비 문제들은 우리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그러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연변의 청소년들을 내세우는 방식이 교류의 중요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3 단계로 말씀하셨는데, 1,2,3단계가 꼭 시차적으로 1단계 다음에 2단계, 2단계 이후로 3단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일성이 내년에 당장 죽는다 했을 경우에 그전에 우리 남북청소년교류는 한번도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표현을 바꾸어서 단계별 개념보다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동시적으로 1,2,3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박 연구원이 주창하는 3단계가 되었을 때는 통일이 다 된 상태일 것이다. 나는 3단계가 오지 않고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시각에서 단계별 의미화가 갖고 있는 한계같은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Ⅳ. 청소년 교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나는 청소년교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교류위원회 구성방안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느냐 하는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체육청소년부내에 구성하는 방안이 있거나 이러면 순수 민간청소년단체, 청소년운동의 전문가, 청소년교육의 전문가, 실무전문가, 이론전문가 내지 행정당국의 실무자 등이 연합해서 순수 민간 기구로 만드는 방식도 있다. 체육청소년부는 뒤에서 지원후원하는 입장이 되어 되고 민간주도형으로 만들어야만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인다. 이를 단순히 남북한만의 청소년교류라고 타이틀을 내걸 것이 아니라 범세계의 한민족청소년교류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연변에 있는 청소년, 일본에 있는 청소년, 미국LA 등에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을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캠프를 만든다든지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탐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V.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치교육실시에 대한 의견

통일이전에 통일에 준비하는 대비하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통일될 때까지만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통일이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통일이후의 혼란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교훈들을 우리가 귀하게 살려서 통일이후에 올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고찰해야 한다. 청소년교류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통일이전에는 사실상 얼마나 이루어질 지 의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통일된 이후에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사고방식의 차이라든지, 생활습관의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등등의 문제에 부딪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일통일 그러다 보니까 통일될 때까지만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통일의 개념을 이질화가 극복되고 동질화가 되는 어느 정도까지 동질화가 되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소년교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청소년정치교육분과위원회를 소속시켜 통일이후에 대비하는 또는 통일시절까지라도 대비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한다. 우리의 내일의 통일의 주체세대들에게 통일의 의지를 심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작성하여야 한다. 커리큘럼에 한 예를 든다면, 역사에 대한 것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역사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만나서 어떻게 토론을 하게 만드느냐, 구체적인 문제까지 예를 들면 한국의 최근세사에 대해서는 북한과 우리가 전혀 다른 입장이고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를텐데 청소년들이 만나서 어떻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서서히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계적 과제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제학술회의 토의내용

「민족 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1992년 12월 4일

-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 회 사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09:50-10:00 회의 진행 안내

제 1부 : 독일, 중국, 조선족 청소년문제

사회 : 박 명 윤(한국청소년연구원, 제1연구실장)

- 10:00-10:40 통독후 교육통합의 기본방향 및 문제점
조르그 지겐스펙(독일 튀네부르그 대학교, 교수)
10:40-11:20 중화민족의 통일과 청년문제
소송홍(중국 상해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 부소장)
11:20-12:00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
중국 소수민족정책과 민족교육의 역할
김장욱(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12:00- 1:30 중 식

제 2부 : 남북한 청소년 문제

사회 : 서 영 훈(홍사단, 공의회장)

- 1:30- 2:20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소 분석
김동규(고려대학교, 교수)
2:20- 3:10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
박성희(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3:10- 3:30 휴 식
3:30- 4:30 지정 토론자 발표
도홍열(충북대학교, 교수)
윤덕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주(도산아카데미연구원, 사무국장)
4:30- 5:00 종합 토론

Ethnic Identity and Korean Youth

- 09 : 00—09 : 30 Registration
09 : 30—09 : 50 Opening Address
Dr. Yoon-Gu Lee (President, KYI)
09 : 50—10 : 00 General Information on the Seminar Program

Session I : Youth Affairs in Germany, China, and Yanbian

Chair : Dr. Michael M. Park (KYI)

- 10 : 00—10 : 40 Guidelines and Problems of Education Unification in United Germany
Prof. Jörg Ziegenspeck (Lüneburg University)
10 : 40—11 : 20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Youth Affairs
Prof. Songxing Su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Youth and Juvenile Studies)
11 : 20—12 : 00 Peculiarities of Yanbian Korean Teenagers :
Foundation of Chinese Minority Policy and Education
Prof. Zhangyu Jin (Yanbian University)
12 : 00— 1 : 30 Luncheon

Session II : Youth Affai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air : Mr. Young-Hoon Suh (Hungsadan)

- 1 : 30— 2 : 20 An Analytic Study on the Heterogeneity-Homogene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Youths
Prof. Dong-Kyu Kim (Korea University)
2 : 20— 3 : 10 Exchange Programm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Youths
Dr. Sung-Hee Park (KIYC)
3 : 10— 3 : 30 Coffee Break
3 : 30— 4 : 30 Panel Discussions
Prof. Heong-Ryul Do (Choungbuk University)
Dr. Duk-Hee Yoon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r. In-Joo Park (Dosan Academy)
4 : 30— 5 : 00 General Discussions and Summing-up

개회인사말(이윤구) :

오늘 이 모임을 위해 먼 길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서울에서 무슨 모임을 가려고 하면 참 힘이 드는 시간인데 시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이 모임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임에는 구라파 먼 곳에서 문자 그대로 수륙 몇만리를 우리 모임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지겐스펙 박사께서 와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오늘 이런 모임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 흥미있는 집회를 할려고 하려는 제목에 맞게 휴전선 저너머서 한두 분이 참석해 주시면 얼마나 이 모임이 좋을까 하는 대단히 아쉬운 마음을, 사실은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없는 대신에 연변에서 김장욱 교수가 오셔서 위로가 되게 해 주시는군요. 연변에서 요새 영하 27도로 내려가고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몇 십년전에 연변에 갔을 때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prototype이 어디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연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청소년에 관한 무슨 모임을 하게 되려는 연변에 있는 어른들이 앞서서 이 일을 끌고 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십년전에 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먼길을 와 주신 김장욱 교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대학이 우리로는 여간 희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 번에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김교수님께서 주장하셔서 연변대학의 조선문제연구소가 한번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고려대학의 김동규 교수님도 이 모임을 빛나게 해 주시고 토론을 깊이 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한을 놓고 통일을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논의하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개회인사에 대할려고 하는 것은 통일이 도둑같이 올 것 같은 각박한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채, 8·15해방을 맞은 것처럼 우리 백성이 정신을 못차리고 지내는 동안에 통일이 와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대로 세상을 살만큼 살았지만, 이제부터 21세기를 살 이 민족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그들이 어떻게 통일 조국에 대처해 나갈까 하는 마음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조용한 모임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한 이정표가 되어서 통일된 이 후에 이 민족의 장래를 누가 어떻게 끌어 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청소년, 내일의 장년들, 내일을 지고 갈 이 나라의

주인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을 하신 독일의 경우든지 또 우리 김교수께서 연변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고심하시고 연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광장의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게 인연이 되서 이 첫번째 회의가 이 다음에는 연변에서 그 다음에는 평양에서, 휴전선에서, 금강산에서, 설악산에서 이 모임이 아주 힘있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집회의 성패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긴 장정의 start를 한다고, 마라톤같은 그러한 땀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한국청소년 연구원이 이런 모임의 장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관기관들 특별히 학계,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간 고맙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게 잘되느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모임이 계기가 되어 한 민족의 21세기를 걱정하는 그러한 새로운 장이 여기서 열려서 다음 번에는 연변으로 그 다음에는 평양으로, 설악산과 금강산과 백두산과 한라산을 오고가면서 이런 모임이 앞으로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회 인사의 말씀에 대하여고 합니다.

박명운 :감사합니다. 그럼 곧 이어서 오전에 주제발표를 하실 분들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는 세 분 연사들이 발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시는 소 부소장께서 타신 비행기가 연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표는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12-1시까지 1시간으로 줄이고 1시부터 오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독일에서 오산 지겐스팩 박사님과 연변에서 오신 김교수님 두분의 발표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로그 지겐스팩 박사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석사학위는 교육학 석사를 브람스 슈바이크대학에서 받으셨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브레멘 대학에서 받으셨고, 독일에서는 교수자격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교수자격은 카셀대학에서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1980년부터 독일의 튀네브르크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전공영역은 교육학입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권의종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권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시고 오늘 지겐스팩 박사님의 강연을 통역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청소년학회

회장 직무대리로 계시면서 교원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제 옆에 김장욱 교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한 소개가 있었지만, 김교수님께서도 연변 한어 사범 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정치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부교수로 계십니다. 이 두분께 우리가 크게 환영하는 박수를 보냅니다. 먼저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에 대하여 한가지 양해사항을 올려야겠습니다. 원래는 피겔러 교수라고 아헨대학에 계신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세차례 오셨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초청을 하였는데 오시려고 준비가 가 되었는데 몇주전에 갑자기 병환이 나셨어요. 그래서 피겔러 교수님 대신에 지겐스팩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연설요지는 피겔러 교수님께서 만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지겐스팩 박사께서 따로 자신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권이종 교수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겐스팩 : 맨 먼저 존경하는 원장님, 연구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며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두 세계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동료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동서 양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준비된 피겔러 교수님의 텍스트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읽어 주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표하는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된 유인물은 보시지 마시고 저의 얘기만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통독 이후에 대한 반성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독일에서 유명한 신문들이 전직 수상으로 있었던 슈미트 수상이 한마디하고 벤츠, 메르세데스 회사의 사장 기업인들이 한마디하고 독일을 대표하는 백작들이 신문에 기사화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독일이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절대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자유를 찾아야 한다, 통일을 찾아야 하는 것들을 40여년 동안 굉장히 원했고 기대해 왔고 희망을 가졌었고 국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통일을 가져 와서 우리가 흥분된 상태를 보여 주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최근에는 행복이 가져다 준 것 이상으로 실망적이고 어떤 다른 심리적 부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독일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신문에 발표했고 최근 며칠 사이에 독일을 대표하는 전직 수상, 백작, 독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신문에 썼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독일 국민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정부에

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 야당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감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강물이 그냥 흘러 가고 있고 다른 국민들은 강가에서 구경만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십년 후의 이 세계가, 독일이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더러는 정확한 안도 없고 사람들이 더러는 고개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지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신문, 지도자들이 발표한 것을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실체는 통일이후에 우리가 정말 즐거워했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면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배가 고프는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즐거웠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땅이 있고 공기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 자라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억지로 굴러가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동독을 포함해서 공산주의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동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산권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게 전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 소련을 간다든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며는 고속도로의 보이는 쪽만 경제성장하고 엄청나게 잘 된 것으로 보였는데 실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독이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독쪽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부채 수억달러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상태에 와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측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1+1=1$ 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아직도 2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충고할 수 없는 희망, 아이디어, 미래상황을 어느 누구도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서독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독이전에, 몇가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빚을 지었고, 주택문제, 실업자 문제, 교통문제 등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독일이 굉장히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빈곤한 분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동화를 해야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통독이후에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의 세계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사상가들, 시인들,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자연문제 철학가

들, 이념가들에 대한 세계가 체제의 이념과 전체주의에 관한 문제에 관한 세계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가치에서부터 형평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고 나쁜것,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의 자율라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그 속에 얹혀 살면서 공동적인 개념 속에서 서로 의무감을 느끼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국가에선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국가에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에서는 다른 상태만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현상에 대한 지적 상황을 그대로 책에서 다룬 것을 설명하자면 독일 청소년들은 위험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의 요구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화의 관계라든가 공동체의식을 자꾸 잃어가면서 자기들의 요구만 자꾸 생각하는 등,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기준, 즉, 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틀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은 폭력적인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을 매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공동적인 정서적인 힘의 위축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계성을 느끼고 도덕성 같은 것은 자꾸 사라지고 있고 도덕 교육은 한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자율 같은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을 점점 잃어 가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독일 자체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이 길이 안으로 좁혀들지 않고 아직도 넓혀지는 두갈래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돈 많이 벌어야한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다, 구할 것이 없다는 것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생활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피켈러 교수가 상세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피켈러 교수는 한국에도 여러번 와 가지고 한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한나라의 문제는 국제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좁은 공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세계도 좁게 생각하고 있고, 나라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고 국제적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개방해 보는것, 국정선을 파괴해 보는 것 등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생각, 오해라는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찾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나 하면 인간적인 삶, 식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영어도 학교다닐 때 잘 못했습니다. 영어를 읽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논문을 쓰신 피젤러 교수는 한국에 세번이나 나오셨고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통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청소년 단체 총재를 15년이나 하신 분으로 지금부터는 이 분이 쓰신 자료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독일의 교육 통합의 기본 방향과 문제점」논문 일부 낭독)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주어진 기회를 누구나 자신이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세가지 과정 - 기회가 주어지고,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과정은 한국이나 독일에서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세계와 인간은 하나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세상과 개인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명윤 : 오늘 지겐스펙 교수님께서 중요한 강의를 해 주셨고 권교수님께서 완벽한 번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욱 : 저는 우선 먼저 이번 학술모임을 주최하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윤구 원장님과 청소년 연구원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보시는 박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는 제게 남북청소년 동질화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래로 우리 연변이 처한 위치가 남북한의 합의사항과 통일이 좋은 방향에서 나갈, 앞뒤쪽을 다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자는 지도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참가하지 않는 회의에서, 또 실상 남북한 본토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중국 연변으로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이상한 게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제목을 저 자체로 바꿔 버렸습니다.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 말은 특수성이라고 해놓고서 실은 중국의 민족정책과 연변의 민족교육정황을 소개한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변 조선민족은 동일 혈연을 갖고 단일민족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살다가, 살기를 위하여 항일을 위하여 중국땅에 월경을 하게 되어간 조선동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 청소년들이 이미 이대 삼대가 아니고 삼사대 심지어는 오륙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한세기넘는 기간에 이루어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특수성을 논하자고 하니까, 한민족으로서 조선 민족으로서의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착안을 했는데 논문 본신이 피상적인 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논문 pp. 69~75낭독)

조선족 인민들은 나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 살게 해 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연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이 중국공산당, 중국의 민족정책을 우리 소수민족 구성으로 여겨온 것이 그들의 후자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조국관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는 부모교육에서, 하나는 사회교육에서, 하나는 학교교육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며는 내전시기에 국민당이 지금 말하는 식량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시 해방되기 전까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여전히 오늘과 마찬가지로 200만으로 통계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식량, 옛날에 말하는 봉천 쪽으로 들어온 다음 조선족학교에 변경을 세웠고 많은 이러저러한 그것으로 해서 민족기지로 해서 총살때문에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조국으로 돌아온 한국동포들이 몇십만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된 이후에 중국에 있는 조선사람의 숫자가 200만으로 부터 불시에 120만 내지 140만 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헌기재 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조선민족들의 기성세대가 공산당의 민족정책에 대해서 감흥하는 이러한 실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둘째로는 조선족 민족교육은 조선족 소수민족들의 속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래서 재래로부터 교육을 중시하던 조선족들의 법을 이용하고 정책에 따라서 자기의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자기의 후대를 육성, 배양했던 것입니다. 세번째로서 민족단결활동을 잘 전개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다민족 국가에서 여러민족이 한곳에 집결하여 사는 것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단결 선전활동이 매년 9월이면 단위마다 학교마다 전민에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초기 몇해는 한족들이 소수민족에게만 할 것이다,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위에서 민족정책을 잘 집행하느냐 못하느냐는 전국의 주체민족인 한족이 잘 집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서 그 지방이 민족단결이 잘되고 못되느냐에 관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최근에 연변의 정황을 보면 특히 개방이후 십여년내의 활동을 보면 한족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연변 조선족청소년들에게 민족교육제도를 잘 관찰해서 하나는 청소년들의 민족의 자각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 청소년들로 하여금 중국에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더욱 이바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에 우리 조선민족은 지난날 일제를 반대하고 중국 내전시기에 있어서 국민당과 싸우면서 역사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것입니다.

박명윤 : 감사합니다. 연변에서 오시느라고 천진까지 장장 30시간을 기차로 오시고 또 어제 오후에 비행기로 4시간정도 걸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여행하시고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각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이질성을 표현한 한 방법으로 원고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저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쓰지 않는 용어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연구 중의 하나가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회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청소년 육성계획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세가지 큰 흐름인데요, 첫째 흐름이 청소년활동, 두번째가 청소년복지, 세번째가 청소년교류입니다. 청소년교류는 물론 국제교류가 있고 국내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주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연구원의 박성희 박사가 한국의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해 조사를 해서 이미 발표가 되었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금년에 연변에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이 문제를 실제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중국의 상해청소년연구원의 소 부소장의 강연까지 해서 세분의 발표를 오전에 마치고자 했으나 그분이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소장님의 강연은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질의와 토의할 시간이 30분정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독일문제, 연변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거수로 표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면 저희들 기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 : 청소년연구원의 도종수입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범위한 질문보다는 특히 김교수님 발표하신 부분 중에서 숫자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대학교와 전문학교에 입학한 고급중학교의 학생은 모두 총 1567명에 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전체에서 대학교와 전문학교에 한 해에 입학했던 입학생들이 1567명이라는 뜻인가요?

김장욱 : 맞습니다. 조선족 한족 이민족 구분없이 당년 졸업생으로서 대학시험에 우리말로 응시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쳐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말합니다.

도종수 : 참고로 지금 현재 중국 전체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김장욱 : 제가 알기로는 성마다 다릅니다. 큰 도시에서는 북경,상해가 36,8%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참가해 가지고 입학하는사람의 비례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도종수 : 제가 다른데서 들은 것에 의하면 중국전체로 봐서 대학진학율이 5%이고, 조선족이 30% 정도 되어서 타민족에 비해서 대학진학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분에 있어서 중국전체의 대학진학율 수치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김장욱 : 아닙니다. 제가 인용한 숫자는 연변 경내에서 시험에 참가해 가지고 1567명은 당년에 여러 가지 대학에 입학한 숫자로 시험에 참가한 사람 대 대학에 입학한 비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응시자보다도 입학자가 5%밖에 안되는 것은 중국이 31개성에서 성마다 비례가 다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산서, 청해, 운남 이런 곳은 매우 비례가 낮지요. 그래서 한족을 비례한 것은 큰 도시인 북경, 상해에서 36-38%에 도달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낮아집니다.

도종수 : 같은 문단 끝부분에 보면, 전 주에서 4개 중점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26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에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26명이었고, 그중에서 22명이 조선족출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김장욱 : 예, 그렇습니다.

도종수 :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전반적인 질문을 더 드린다면, 아까 서두에 여러가지 입장을 고려하셔서 남북청소년들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사양하셨는데, 토론을 통해서 원초의 제목대로 연변에 계시는 조선족 입장에서 남북청소년들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겐스팩 교수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즘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관하여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욱 : 도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남북청소년의 동질화회복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체계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질성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관 이점에서 놓고 말한다면, 북한은 학교교육으로부터 사회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데서 자기 개인이 가치를 운운할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당 신문 경상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잡지 몇가지가 붙여 오는데, 이런 것을 보아야 전부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수령님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를 위하여 나는 졸업해서 수령님과 지도자에게 충성하리라.’ 저는 북한에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실제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놓고 말한다면 학생층에서 이런가 하면,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이러한 청년들을 본다면 우선 연애관에 대해서 본다면 노동당 신문에 한 처녀가 불구자에게 연애를 하여 시집을 가는 그 자기의 가슴속의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조국에 헌신을 하다가 불구자가 된 이러한 총각이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못한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나는 수령님의 가슴아픔을 덜기 위하여 내가 자청해서 그 총각에게 결혼을 가겠다’. 또 사실이 보도에 보면 시집간 것도 사실이고 시집보내는 날 딸을 떠나 보내는 어머니는 ‘우리 가문은 큰 일을 한 것 없다. 오직 수령님과 당을 따라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살아온 자랑 뿐이다. 네가 문턱을 떠나서 그 집으로 이미 들어간 이상에는 그집 귀신이 될 지언정 다시 변심하여 이 가문에 수치를 주면 안된다’.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부탁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가치관이 당전분단된 이런 현실에서 통일된 이런 희망, 차마 어떻게 해결될 창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변에서 많이 해 봤지만, 또 우리 남북한에서 통일에 관해서 스포츠 부문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에, 여자 탁구가 동시에 참여해서 세계상에 이름을 떨친 이 광경을 보고, 이 정치현상에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간에 접촉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경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의사가 통할 지 모르겠습니다. 접촉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자 이런 것입니다. 학교교육문제에 대해서 교과서 문제를 많이 전에 접촉을 해 봤지만 정치체제가 이렇게 다른 정황하에서 교재와 교과서 내용을 통일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여서 역사와 지리 이러한 것들을 능히 통일해서 민족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데는 공동한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역사가가 아니지만 안중근씨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향토애, 조국애, 이 한반도의 땅덩어리와 자연환경에 대하여 예로부터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우리의 선배들이 자랑스럽게 보호해 왔던 이러한 지리가 이것을 우리의 세대들에게 주어야 할 도경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다음으로서 민족감정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가르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신문을 보다가 아주 최근에 남북한이 전체적으로 연합국에 가입한 이래에 저는 아주 통쾌한 점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8월 27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연합국대

표 소병용씨가 동해문제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북한의 허씨가 앉아서 팡팡 박수치는 것을 보도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민족이 자기 땅과 지리 환경을 놓고 한개 같은 민족의 피줄기가 흐르는 감정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한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남북의 창’, 그것을 통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모든 사실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서 민족애가 보다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지겐스팩 : 공동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청소년과 관련을 지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네가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번째는 나는 심층심리를 공부하고 교육학을 했는데 인간의 행동변화는 큰 단체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전부터 ‘선상청소년지도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배안에서 청소년지도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달, 더 길게는 육개월동안 선상에서 내가 직접생활하면서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과 정상적인 학생하고 같이, 정부에서 추천한 아이들을 데리고 선상에서의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모든 생활을 관찰하고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배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흔들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고 원형에 품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간이 작기 때문에 내적인 압박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잘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두번째는 모든 청소년 문제가 학교에 있어서의 선발과 성적문제에 있기 때문에 선발과 성적 문제를 어떻게 지양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년전부터 논문을 준비해 왔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나찌제도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나에게 질문이 오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에 청소년 실업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폭발직전에 있다가 동독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자유훈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상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훈을 찾게 되니까 이쪽의 서독청소년들과 합세하여 그냥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좌충우돌 뛰어다니면서 외국인들에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 일년에 50만명 정도의 정치 망명가가 독일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외국사람들,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사람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국제 캠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고분고분 말을 듣는 아이들은 독일내에서 캠프를 하지만 ‘아이고 이놈은 정말 희망이 없는 놈이구나’ 하는 놈들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핀란드 이런 곳으로 짧게는 일주간, 길게는 이

주간, 더 긴 것은 삼개월 정도로 국제 캠프를 보내 버리는데 그 나라에 가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사람을 상당히 개조해 가지고 데려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는, 통독이후 바로 지금 질문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책상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책상 앞에 모여 가지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 관심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계층적으로도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 토론장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주 좋은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개별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였던 둥그런 회담장소가 깨졌습니다. 정치적인 대표자들이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자기것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그사람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고 있고 정치가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하는것들을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경이 예민하고 관찰력이 강합니다. 활동적이기도 하지만 폭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청소년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쪽편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본을, 모형을,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까 논문에서는 모범을 안 보여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옛날의 기성세대들, 선각자들은 분명히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어떤 상을 보여 주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슈바이처가 보여 주었던 상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모범적인 자도 부족할 뿐아니라 작은 모범적인 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대한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활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서 모범적인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웅대한 것에서 보다 생활중심에서 모범적인 것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교육이나 성인교육, 교사교육 또는 사회사업가 등 계획기관에서 여러 단체, 집단, 정치가들이 진정한 공동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작게는 나라별로, 지역적으로 형성되거나 크게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 : 충남대학에 있는 강상성입니다. 연변에서 오신 김교수님 사석에서 여쭙어 보아야 하는데, 공산당원으로 있으면 유리하신지 활동하실 때도 당원이신지요?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김장욱 : 공산당원으로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제가 이미 공산당조직에 가입한지 40여년이 지났습니다. 가입할 때 공산당이 됐기 때문에 내 집이 쌀을 먹게 되었구나, 오늘까지도 저는 이 신념을 가지고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파란곡절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내가 한 공산당원으로서 청년교양사업을 10년을 해 왔는데, 제가 교양하던 학생들한테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3년간 살아오기를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가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오늘까지도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봄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쨌든 사람에게 모두 공동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신념이란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공산당 한개 정당을 갖고 말한다면, 때로는 착오를 범할 수도 있고, 중국공산당이 위대하다는 것은 범한 착오를 제때에 개정했고, 인민군중 앞에 솔직하게 탐백했고, 군중의 신임을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연기 : 교원대학교의 정연기입니다. 김선생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너무나 이질화, 또 극단으로 서로 만나기 어려운 것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근간에 북한에서 나오는 소설중에서 ‘벗’이라는 것을 쳐다 보았는데 혹시 김교수님이 그 ‘벗’을 쳐다 보았는지, 그 ‘벗’에서 이혼이 소설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쪽이나 북한에도 지금 이혼이나 입시문제 같은 것이 소설의 테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전공이 청소년문학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 의해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감대 형성이나 통일 변화의 주체가 역시 청소년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을 통한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통한 공통된 대화도 전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특히, 상호 거부감이 없는 문학작품이나 남한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읽는 문학작품 그런 것들을 읽어 보시고, 북한에서 나온 문학작품을 읽어 보신 것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혀 다른 얘기지만 동독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작품 다섯 중에서 60년대, 70년대에 북한에서도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 있는데 공통된 게 소련 작품 중에서 「강철은 어떻게 단단해지나」가 사회주의 진영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저희 남한에서도 강철시리즈라 해서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인데 이런 것이 토대가 되어 어떤 대화의 광장이 설정이 되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다고 이끌어 가는 것을 시도할 여지가 그쪽 연변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점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 영 훈 : 원장님이신 이윤구박사님하고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고, 국제활동을 하시다가 귀국후에 저와 같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청을 드리면 잘 도와주시고 잘 협조하여 주시

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좀 협조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훌륭한 권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뜻있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모두 외국에서도 오셨고, 해외에 있는 우리동포 중에 연구가 많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역사를 보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게도 곤란한 땅에서 살도록 해주셔서 반만년 역사라 하는데 수천년동안을 등지고 있는 대륙세력의 사나운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였고, 사실은 중화민족한테는 그다지 안 당했습니다. 송영 그런 나라하고는 사이 좋게 지냈는데 그 변두리에 우리보다 문화의 정도가 낮은 청이나 원나라든가 몽고민족 등은 중국문화를 소화해 내지 못한 민족인데 사나운 힘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할 적에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급기야는 과학 문명기술을 먼저 받아들인 해양세력인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노예생활도 했고, 그러나 세계역사의 모순갈등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제 2차대전 이후에 세계질서를 재편할 때 조국이 분단되고 근 반세기에 걸쳐서 양극화 현상을 빚고, 따라서 그 이념과 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사고체제들, 가치체제들이 양극화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먼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최대의 과제는 수천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을 회복하는 민족회복이 우리의 과제인데, 당장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고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분단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비극을 체험 못한 청소년들이 지금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교육을 받았고, 그 문화의 체질이 동화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민족을 회복시키고 부흥을 시키느냐, 세계가 가열한 국제경쟁에 들어가서 냉전구조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격심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적은 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나, 생존을 하되 지난날처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민족으로 남지 않고 정말로 신임받고 존중받는 정의롭고 신의있고 문화가 높은 그런 민족으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청소년들이 역사적인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이질화,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데 동질성의 기준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회복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줄로 압니다. 민족의 정체성, 과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을 살리고 어떤 점을 고치고 극복해야 하느냐, 또 미래사회가 또한 세계가 어떻게 변할 터인데 변화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고 안으로 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복지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세대로 우리가 소화해서 향유하고, 그리고 세계평화질서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들, 우리와 같은 경우에 있다가

먼저 문제를 해결한 독일의 교수, 그리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북한에 가까운,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교수님,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하게 된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후토론이 본래 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소송홍 교수가 비행기가 늦게 와서 아직 도착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하게 됩니다. 지금 10분입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서 오후의 토론도 오전의 토론 못지 않게 성과있는 그러한 토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하시는 분이 김동규교수님인데, 고려대학교에 현재 재직중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을 나오시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로 계시고 전공은 사회주의 교육학 및 교육철학이십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로 제가 속해 있는 홍사단 세미나에 와서 권위 있는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김동규교수님이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과 동질성의 요소 평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동규 : 감사합니다. 방금 간단히 소개받은 김동규라 합니다. 우선 이자리에는 사실 평소 제가 여러가지 학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분도 계시고, 전문가, 전문기관의 연구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북한의 학교교육을 연구하다 보니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상식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라 느끼시고 제가 쓴 논문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30분 정도로 요약할 하기 때문에 조금 띄우고 우선 연구 목적 및 내용으로서 중간쯤에 나오는 첫째, 둘째, 세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 평가」논문pp.81~87낭독)

일개의 부분적인 현상이요 사례일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 북한 청년들인 유학생귀순자들이 손쉬운 결단과 적응력을 보이기도 하고, 1991년 여론조사기관의 하나인 동서조사연구소가 실시한 대북한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68.2%가 북한에 적대감이 없다고 나온 남한의 사회를 보게 됩니다. 학력이 높을 수록-대졸이상이 62.8%, 중졸이상이 48.5%-적대현상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조사대상은 성인 남녀 1500명이었는데, 의외로 세미나를 주최한 청소년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실시한 대북인식도를 참고로 했더니 표집은 3800명이 되었고 청소년들 상대로 한 결과를 보니까 북한 주민에 대해서「동일민족이라고 생각한다」가 49.4%,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약 40%, 「적대감을 갖

는다」는 겨우 5.1%밖에 안되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2.6%으로 나타났는데 사례수가 3800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조사통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건국대학교 신방과가 주관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표집이 103명밖에 안되지만 「고려연방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의외로 79.6%가 모른다, 「주체사상에 대해 알아느냐」했더니 75.7%가 모른다해서, 최근에 상당히 무관심한 쪽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동질적 요인으로서는 부정적인 흑백논적 사고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남한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가 점차 다양화, 개성화되어 가고 있으나 무의식 속에는 흑백논적 사고와 태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정권에 의한 군사문화, 적 아니면 아군의 이분법적 가치관, 문화와 학교교육방법론, O,X 식의 문제라든지 선다형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한편 북한의 청소년들의 전 교과목이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면 무한한 충성과 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표 1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북한 인민학교 국어과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단원을 주제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인민학교는 4년제이기 때문에 첫번째 ‘김일성 가계우상화’칸에서 2,1이 의미하는 것은 인민학교 1학년 1학기에 두번 나오고 2학기에 1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부터는 2,3,4학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14라고 되어 있는것은 계입니다. 단원의 계입니다. 맨끝의 숫자는 퍼센트입니다. 김일성가계우상화가 전 인민학교 교과서의 7.7%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김형직이라든지 김정숙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 및 이질화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성격구조 및 가치관에서 이질적 요소와 동질적 요인은 본론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가령 지나친 경쟁의식과 낮은 성취동기, 앞에 것은 남한이고 뒤에 것은 북한입니다. 나약성과 강직성, 중성적인 남녀관과 경직된 남녀간, 낮은 협동심과 높은 협동심, 유순한 언어와 거칠고 감정적인 언어, 모호한 국가관과 투철한 국가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거센 비판의식과 순종적 복종의식, 지나친 불신풀조와 무조건적 과신풀조,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젊은 이들은 이유야 어디있던 외부 여러가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풀조가 강하다며는 저쪽에는 너무 믿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의 주입식 학습태도와 북한의 일방적인 사상교육의 강요에서 비롯되는 자율성의 결여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상호대립과 이질적인 요인들이 동질적인 요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북한이 학교교육에서 인간개조론적 교육방법과 내용에

서 거의가 형성된 결과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분류설명했듯이 제3세대의 상반된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이나 의식수준은 관념적 수준에서 형성된 결과이므로 제1세대나 2세대와 달리 쉽게 동화되고 조절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괄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의 성격요인에서 이질적인 요인과 동질적인 요인을 긍정과 부정의 평가기준에서 분류하고 통일을 대비한 또는 통일이후의 올바른 국가관의 민주시민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준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도표2>에서 요약했습니다. <도표2>에서는 보면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 가지고 통합준거에 관해 대강 저나름대로 정리해 왔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성격요인들 중에서 이질성과 동질성으로 서로 상반적이고 대립될지라도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선결되어야 하는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남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민주화의 완성과 경제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그리고 파행적인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핵심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허구와 허위의 조선역사부터 폐기하고 또한 위선으로 구성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7번을 보십시오. 특히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라든지 영도체제, 영도예술 등 김일성의 독재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켜 주는 이론 즉, 주체사상으로 북한주민들은 주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체라는 껍질을 벗겨내야 민족본연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항상 분노를 느끼는 것은 학자의 생명은 진리를 밝히고 위선을 벗기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주민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김일성을 위시한 지배집단 이런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강연과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마치 귀순용사 방문강연 비슷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학자적 양심에서 신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격해 오면 특히 운동권 주사파 학생이 오면 「선생님 무슨 근거에서 우리를 빨갱이라고 매도를 합니까?」하면 나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여 그럼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의 주장을 보면 남한의 잘못된 것만 부각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없이 오히려 주체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 저쪽 편이지 어떻게 이쪽 편이냐 하는 것과, 원전을 들이대고 다른 원전이 없을 때는 매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전을 들이댈 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허위와 허구로 북한 주민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해 원전 중에서 예만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1992년 2월 평양에서 출판한 조선여성이라는 월간지의 하나의 예인데요, 2월에 곧 김일성의 생일이 앞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

니다. “4월 봄명절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더욱 뜨겁게 울려나오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노래가 꼭 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거룩하신 영상 한가슴에 안겨오는 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 누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조국이 통일되어 김일성장군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영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서울시 한 청년이 외친 소박한 이 말 속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소원이 그대로 어려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가수 최희영은 지난해 4월 동료들 앞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면서 영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를 흠모의 마음을 담아 불렀다. 이에 감동한 동료가수들은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서 빨리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 우리 연예인들도 자유로이 남북을 오가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날이 와야 하겠다. 이런 반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른 서울 종로구에 사는 작곡가와 그의 동료들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강홍빈이라는 사람이 쓴 「배움의 길이 막힌 암흑의 땅 남조선」이라는 데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머는 부모의 논밭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려고 한다면 8000평이상되어야 추천서를 써 준다든지 기타 또 취학연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학아동이 남조선에 300만이 있다든지 등에 대해 출판물로 주민들에게 내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이따 질의시간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영훈 : 다음 계속해서 발표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주임연구원인 박성희 연구원님의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연구원의 박성희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자료는 방금 김동규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발표를 하신데에 토대를 두어서 어떻게 하면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하는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도 남북한간 청소년들의 이질성 문제에 있어서 이질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견해로

는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에 대한 많은 논의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의 출발점으로써 이질성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성은 결국 다른 남한 지역내의 지역간의 차이와 거의 같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나오시는 것같은데 저는 여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성은 이념과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격차와는 달리 이질성의 양상은 포괄적이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의 격차는 대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 그 지역사회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많은 반면에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성은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사회교육 등 여러가지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교육에 의해서 대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질성은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제가 발표하는 것 역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그 자체도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동질성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를 한 것에 토대해서 남북교류활동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연구의 발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북한 교류의 진전과 전망,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나으려 하는 목표와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대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강구해야 할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북청소년교류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발표하는데 있어서 무척 미비점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남북관계의 현 상황으로 볼때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의 전망이 무척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북한 청소년 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남북한 청소년간의 비교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방안부터 제시한다는 것은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때 이 연구가 일회적인 연구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연구의 토대로서 역할을 할때 이 연구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과연 남북한 청소년간에 어떠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많이 뛰어 봤는데 자료가 무척 없습니다. 물론 실제 남북한 청소년간의 오고 가는 교류가 없었다는 데에도 있지만 남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무관심을 잘

대변해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한 청소년들이 국제행사라든지 국제기구에 어떻게 각각 가입하고 있는지 그 현황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데도 말로만 청소년, 우리사회의 기둥, 미래의 기둥이라고 하고 강조하는 관념적인 강조론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의 진전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청소년 교류 방법에 관한 연구」논문 낭독)

제가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거기서는 동서독간의 여러가지 긴장 상태가 악화될 상황에서도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는데 그 주된 요인이 민간 차원 청소년단체간의 청소년교류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 차원의 기본적인 독일연방청소년연맹과 자유독일청소년단,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단체간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개신교청소년단체간의 활동도 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서독관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참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이라든지 주민의 의식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꽃파는 처녀”같은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단기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효과도 우리가 노릴 수 있죠.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북한관을 심어줄 수도 있고 도리어 이러한 계기로 해서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될 때 북한 청소년에게 개방이라든지 자유의 물결을 심어줄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교류에서 북한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단체입니다. 특히 전대협이라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청소년교류를 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쯤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서영훈 : 감사합니다. 특히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발표하실 중국교수께서 아직 도착 안하셨기 때문에 오시면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자가 조금 얘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김동규교수님은 발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는데 하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비교를 통해서 이질성과 동질성을 규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들의 가치통합의 준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가치 통합을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정책과제는 별도 주

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발표문의 주제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질내용과 동질화 방향을 제 시험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합후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너무 이분법으로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남한에서 못 가지고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도 문자상으로 부단히 있는 것으로 느껴 졌습니다. 가령 남한은 이기적 개인주의인데 북한은 희생적 집단주의이고, 희생적 집단주의가 강요된 김일성 세습 왕조 유일 독재체제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희생적인 집단을 위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원적 상대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화되고 더더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모든 힘의 다원화, 가치의 다원화를 잘 조화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다원화되어 가지고 통합을 못하는데 결함이 있는데 비해, 저기는 이박사나 이 씨왕조 때 같은 일원적 절대주의가 있고, 우리는 서구지향적 가치관인데 비해 저쪽은 쇼비니즘적 애국주의입니다. 쇼비니즘만 빼면 애국주의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너무나 청소년들에게 국가관이 희미하고 민족은 논의하면서도 나라에 대한 것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기적 조급성, 저기는 장기적 인내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다 강요된 것이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이라는 것은 각개가 개성을 가지고 더더구나 이런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데는 여러가지가 분업화되고 다원화되고 대중화되고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란 각 개인이 자기 성취를 하는 것을 잘 통합하는데에 있는데 저기는 본성에도 근거가 안되고 우리가 미래사회를 내다볼 때 맞지가 않는데,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김교수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발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희박사님의 발표중에서 진전과 전망에서 매우 불분명하고 어둡다, 다른분야에 비해서 부진하고 있다, 체육인이 경제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정치인도 미행도 하고 내놓고 왔다 갔다하는데 청소년교류가 안되고 있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안되는 요인은 군사나 경제분야의 요인은 당장에 필요한데 비해 청소년 교류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군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산의 30%를 넘는 현상이고 북한은 더하니까, 복지사회를 건설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쏠려면 군축이 필요하고 긴장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경제는 저쪽이 매우 어려워니까 우리측에서도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동서독관계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당국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경제교류는 적극적이 되는데 비해, 청소년들은 체제유지의 첨병이요 기본이 되는 세력이기에 그들이 자기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을 허물어 뜨릴까봐 북한은 그런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 다시말해

피차의 체제를 강화하고 자기의 체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교류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망 중에는 그런 피차에 남북적십자 회담이 70년대 초에 열릴 때도 그러한 동기에 서 열렸는데 그 때 긴장완화가 하나의 목적이고 둘째로는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자유의 바람을 넣으면 북쪽이 많이 동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북쪽은 남한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저항세력이 많으니까 남한이 혼란해 지겠고 저항세력을 고무할 수 있겠다하는 것 때문에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겠다하며는 청소년 교류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하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냉전 구조가 허물어지고 오래 가면 객관적인 상황이 호조가 되면서 청소년 교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본적인 방향은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는 전제하에 민족동질성회복, 민족공동체형성에 물론 신중해야 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야된다, 그런 민족동질성회복과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나서 참으로 순수하게 그런 것을 위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여러가지 기구를 많이 조성하고 협조하는 행정적 창구는 물론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조성하되 뒤에는 그런 자체기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바람직한 결의 태도에는 여유있게 유연하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지 당장에 저기서 집을 집어 먹고 기피하는 것을 공격한다든가 그런 것을 노려가지고 하면 안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분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비공개가 좋지 않느냐, 남한은 해 놓으면 다 공개해 버리고 사랑의 쌀 모으기해서 쌀도 보내놓고 피차에 공개안하기로 해놓고 이쪽에서 자꾸 선전을 해 신문에 나니까 저쪽에서 안받겠다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 비공개로 했으면 꽤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체제의 청소년들의 의식의 건강성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발표한 박선생이 생각하기엔 우리가 이만하면 청소년의 의식수준도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꽃파는 처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체제의 모순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좋지 않느냐, 할만하지 않느냐, 또 전대협에서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가지를 하고 있으며 사상 이념체제는 비판하지 말고 하자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쪽의 문제예요. 저쪽은 물론 남조선해방한다고 밤낮 떠들지만 우리는 안그래야 하는데, 뒤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기구들에서도 자꾸 북한은 금방 허물어진단다, 흡수통일을 한다고 떠들어 놓으니까 북한에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있다. 북한이 우선

응할 수 있는 것부터 비정치적인 것부터 해나가자, 국외에서 접촉을 먼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다가 차츰 국내접촉으로 전환하자, 물적인 교류에서 인적교류로 이렇게 해나가자, 북한이 잘 안 받긴 하지만, 하여간 비정치적인 그런 길로 저쪽에서 별로 손해 안보는 것부터 하자, 추진방안으로 기반조성단계에선 공식조직을 설치하자, 지원교류원칙 및 공식기구를 쌍방향의하에 만들어 가지고 쌍방이 각자 개최하는 국제회의같은데 부터 초청을 해서 서로 오고가자, 우리도 가고 정부에서 보낼수 있도록 하자. 저도 통일기구 만드는데도 상당한 참여를 했고 민간 통일단체에도 참여를 했지만 잘 못가게 하더군요. 내가 평통이라는데에서 정책심의 분과위원장직을 오래했고 적십자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저쪽에 한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보내줬어요.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우선 친선방문부터하는데 처음에 제한된 지역부터 가고 견학, 답사, 고적답사, 문화답사 등을 하다가 문화교류로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되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민족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가령 체육경기같은 국제경기 단일팀도 쌍방의 공동이익이니까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유방문교류기회를 확대해 나가자, 교류하는데 대비방향으로 역시 신중을 기한다는 전제아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등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용감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양극의 갈등구조하에서 온전하고 과거에 강화해 왔던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변화했는데 우리가 옛날의 냉전구조하의 의식을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완화가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법의 이름도 댔지만, 그리고 북한을 올바르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토론할 수 있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못보고 객관적으로 못보았다는 전제가 되니까 어떤 면이 그러한지가 오늘 토론의 주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야 한다, 법적완화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서독간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단체와 개인을 많이 지원을 했다, 개인에게까지 지원을 했다, 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필요한 관련단체들의 부문별 행위를 지양하고 관련단체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방향이나 방침에서 부터 모든 것을 논의하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체계적인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남북교류하며는 남쪽은 그래도 비슷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가서 남쪽을 대표해야 할 텐데 남쪽안에 양극이 있다, 오히려 북한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나 과거지향적이고 6.25를 생각한다는가 해방후 그쪽에 너무 집착을 해서 미래지향성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것을 정치교육할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치교육이라는 말이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의식을 올바르게 교육을 해서 이념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 이념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전반의 가치문화나 규범적인 문화나 도구적인 문화가 우리가 우위에 있죠. 특히 도구적인 문화는 우리가 우위에 있죠. 여러가지로 물질문화가 발전되어 있으나, 생활문화, 규범문화, 도덕적인 혹은 가치관에 관련되어있는 문화면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쪽이 워낙에 억지로 나가니까 그렇지, 부분적으로 보면 성도덕의 문제라든가 사치행위가 적다든가 위화감이 적다든가 근로정신이 왕성하다든가 근로정신이 습관화됐다는 이런 점에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가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떠한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든가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국가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화되고 합의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박선생이 그런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비교연구를 잘해서 남한의 실정도 잘알고 가고 어떤 쪽에서는 남한을 형편없는 지옥과 같은 나라로 표현하는 남한의 일부세력도 있는가 하면 남한에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어떤 면은 상당히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발전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새로운 사회악이 많이 생기고 국민의 의식도 저질화되어 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으니 그런 것을 우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상대방에 대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속에서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도홍렬 교수, 민족통일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윤덕희 박사, 그리고 산아카데미연구원 사무국장이고 홍사단 운동도 오래한 박인주 선생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홍렬 교수께서는 김장욱 교수께서 발표한 데 대해 토론해 주실 것이고 윤덕희 선생은 김동규 교수가 발표한 데 대해 해 주실 것이고, 박인주 선생은 박성희 박사가 발표해 주신데 대한 논평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홍렬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도홍렬 : 충북대학교 도홍렬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가 준비한 원고에 따라서 간단한 커멘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장욱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김교수는 연변의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한 교수의 입장에서 이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한 국민으로서 사회학을 전공한 한 교수의 입장에서 이 논문을 연구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

인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저의 입장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 원고 낭독)

서영훈 : 감사합니다. 토론을 다 마치고 대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윤덕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덕희 : 저는 김동규 교수님의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분석에 대해 몇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교수님의 논문은 앞으로 통일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의 의식구조를,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하나는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체계적으로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시대에 어떠한 준거에 의해서 남북한 청소년들의 가치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그러한 논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 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에 대한 토론원고 낭독)

이렇게 물론 현재 북한에는 아까 김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이질화 요인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불과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가치통합을 지향한다든지 통일시대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거의 이질성 그리고 현재에 남아있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동질적인 요소, 접근적인 요소를 추출해 내고 이것을 보다 발전시키고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남북한 비교분석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너무 이질화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조그마한 북한의 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접근가능성을 잡아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남북청소년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협

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넓은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은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소년교류 그 자체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어느정도 전제되어야만이 남북한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제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제조건, 즉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 정치적인 이념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기대하기 보다는 비정치적인 분야, 사회문화적인 폭넓은 비정치적인 비이념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비정치적인 변화를 북한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촉진함으로써 자연적인 사회문화의 변화 그리고 의식구조의 변화를 추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청소년교류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남북한간의 인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서영훈 :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주 선생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인주 : 도산아카데미 연구원의 박인주입니다. 발표도 워낙 깔끔하게 해 주셨고 사회를 보는 서영훈 회장님께서도 코멘트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토론의 여지가 없는 좋은 원고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하신 박성희 연구원은 최근에 북한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셨고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를 지난 8월에 연구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성희 연구원께서는 청소년 통일의식 문제, 북한의 청소년정책 문제, 청소년교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사색의 깊이가 상당히 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미나의 토론이 좀더 실천적인 프로젝트 내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원고 낭독)

서영훈 : 토론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대한 논평이라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방안을 많이 제시한 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대해서도 일부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답변하는 순서는 오전에 발표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욱 선생 먼저 하시죠.

김장욱 : 도종수 박사께서 저에 대해서 평론하신 문제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두개 문제로 나누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연변청소년의 특수성문제에 대해서 국가의식 나머지 교육열의와 지향성, 민족의 평등성 주장에 관한 이것들의 출발점은 명확하게 기타 민족과도 비해서 몇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의 기타소수민족과의 대비 여가에서 장시간에 다민족국가에서 살면서도 전통적인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설명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의 조사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가지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변의 조사문제에 대해서 잘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이러한 조사들이 제가 불시에 한 것도 아니고 몇 개 학교에 혹은 어떤 학교에서 반을 선택했거나 한개 학부를 선택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뽑아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다고 저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 자료의 내원에 대한 상세한 점도 가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도 박사님이 말씀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아주 달갑게 접수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몇몇 사람들하고 다시 이 부문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실할까 하는 것도 연구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서, 민족정책에 따라서 조선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겠습니다. 아래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넣기로 하는데 제가 오늘 논문에서 쓴 것은 한 개의 청년이라는 것도 저도 승인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러한 불행한 면도 없지 않느냐, 자수의 제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단일민족이 소수민족에게 주는 부정적인 일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정책의 관철여하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각성 정도가 같게 될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 한국에서 보거나 북한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민족동질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100%가 나왔던 50%가 나왔던 이것은 제쳐 놓고 저는 첫째 중국에 귀속해서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에서 자기의 전통적인 동질성을 보존하는 이외에는 자기의 민족이 지금까지 거기에서 안정하고 잘 살겠다는 지도사상이 거기에 배기고 있다고 저는 긍정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안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안정을 부정해서 어디와의 다툼에서 뭘 이기자 어디와의 뒤편에서 뭘 이기자하는 주장은 차마 가서 동정을 받기에 어려운 처지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상이념에서 한개 형성된 것이 지난날이 모순이 있던 한개 큰 문제거나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지난 날은 종결짓고 앞을 봅시다 하는 말이 앞을 보고 지금 힘썌시다 하는 말로 이념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박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조선사람이 특히 연변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300여명을 조사해서 그것을 제가 간단히 숫자놀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제공을 할 것은 중국에 있는 조선사람이 지금 개방이후에 빠른 속도로 어떻게든 하여 국내있는 다른사람과 같이 특히 한국과 같이 잘살아 보자 이러한 목적으로 가고 한국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국이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국자체의 조선사람 가운데는 조선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역사시기가 오래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국가관념이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결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길림성 부근에 있는 조선사람에게 가서 물어 본다면 적지 않는 사람들은 내고향은 충청북도지 내가 중국에 살려고 왔지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기에 만약 그의 자손하고 모국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한다며는 한국이요 조선이요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조국이란 관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왕왕이는 조선이요 혹은 한국이요 저는 중국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 나온 비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학교교육과 당정책교육에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는 데 있어서 조선사람에게 유리한 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심심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교한 이래 최근에 한족으로서 조선말을 배우는 사람이 북으로부터 남방 몇개 성까지 그 숫자가 한국사람이 중국말을 배우려고 연변에 찾아 오거나 중국에 찾아 오는 사람의 몇십배의 숫자에 도달합니다.

만약 한국의 경제상태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았다면은 중국사람들이 조선말을 불시에 배우겠다고 남방에서도 학교를 꾸리고 북방에서도 학교를 꾸리는 이러한 사태는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에 우리들에게 한국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너희는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지난날 잘 상론도 하지 않던 것도 상론도 많이 하고 장사협정도 국외 뿐만 아니라 각성에서 연변과의 협력도 매우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빠른 이것과 중국과의 수교가 우리 연변사람들에게 갖다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연변의 소수민족의 조선사람으로는 매우 유리한 형세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족성을 갖고서 민족정책의 평등성을 갖고서 사는데 내가 말하던 한민처럼 모든 사람

이 다 동감해서 만족될 수가 없죠. 저는 문제의 큰 데만 보고서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만약 세심한 것을 본다면 저는 왕왕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민족이 과학인재가 발전해도 한족을 앞서려고는 안하는 것이고 경제수준이 올라가도 한족을 앞서려고는 안하는 것입니다. 중국민족정책에서 한족이 위주라는것은 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한족이 이끌어서 공동이 잘살자는 공동의 문화를 이끌자라는 것이지 내만 앞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감정 상으로나 실제 구체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수 없으며 차이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떠들지 않아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문제, 언어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본래 언어를 전문화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의 이질화문제로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하겠느냐는 언어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썼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면 중국과 한국, 조선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번 상론한 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개의 어느 측점에 접촉하지 못하고 실상은 이 논문을 가지고 두리몽실한 문제를 갖고서 설명하다 보니 투철하지 못한 문제가 적지 않아 이 방면에 대해서 더 학습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서영훈 : 감사합니다. 마지막의 언어문제는 이 남한안에서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 전라도가 사투리가 다르고 말자체가 다르게 많습니다.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도 함경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나 억양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치관이나 국가관에 관계되는 용어가 북한에 유리한 것이 있고 남한에 유리한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김동규 :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생님이 논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준 건 감사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는 걸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변명이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한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역사구조를 개입시킨데 반해 북한에 대하여는 그런 면이 빠졌다는 점에 저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준거의 제시에 실천방향이 미리 제시되었다는 것은 논문의 한계랄까 범위가 거기까지 안돼 있어 자제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통합의 준거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말씀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실 준거라든지 크리테리아라든지 레퍼런스든지 그 자체가 원래 당위론적으로 제시되는 추상성을 띄게 되고 너무 구체적으로 대다 보면 양쪽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또 한가지는 실제 통일됐을 때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질성을 동질화하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너무 대비론적으로 흑백론적으로 양쪽을 부각시키기 위

해서 접근법을 썼습니다만, 혹은 전부 흑이고 백은 전부 백이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쪽이 다원주의라면 북한은 일원주의라는 것이 전부 다 다원주의고 전부 다 일원주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비교평가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보다 더 많은 쪽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한가지로는 북한에도 최근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서구의 물결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안 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부분적으로 시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절대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보편화를 시키면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전인데 김일성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리비아에서 온 유학생하고 남녀 연애편계에 빠진 것을 학교문제가 되어 가지고 김일성대학 전체학생을 모아놓고 공개처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2,3년전의 일이지만 북한에 아주 돈 많은 재일교포 부인이 기부를 해서 소위 조선중앙방송 TV - 우리나라같으면 KBS 방송국이죠 - 그 기자재를 전부 일본에서 들여 놓는 대신 자신의 자녀를 거기에 기술자로 취업을 하게 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드라마 녹화차 자주 만나고 이 총각은 혼자 있었는데 그 배우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 퇴근할 때 이 재일교포 자녀가 그 부인을 실어다 주고 하다 보니 간통문제가 발각이 되 가지고 북조선 전 예술인을 집합시켜 가지고 공개처형시킨 사실을 김정민이라고 하는 북한 사회안전부에 있다가 귀순한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무리 세태가 바뀌어도 '우리식대로 산다', '당이 명령하면 따른다'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역시 통합문제와 관계되는데 아까 동서독 관계에서도 주제가 그렇게 흘렀습니다만 모토편교수가 개념한 이른바 아노미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페스팅거라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cognitive dissonance, 즉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인지적 부조화 현상이 아주 심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동서독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인지적 부조화문제는 북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크게 대두될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준거, 이것을 빨리 설정해 가지고 그때 바로 내놔야 합니다.

박성희 : 먼저 박국장님께서 부족한 저의 논문을 높게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박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은 어떤 논쟁의 여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시한 연구결과를 본 연구자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시고 보완하고 확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급에 대해서 어떤 큰 이견이 없습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 실린 연구결과는 최종보고서의 요약분이자 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국장님께서 해주신 세밀하고 깊이있는 논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좀 더 발전시켜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서영훈 :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론을 하겠는데 몇마디 질문할 것은, 발언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반드시 자기의 소속단체하고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되도록 3분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자유롭게 순서없이 해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소속, 성명을 대고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중 : 오전에 연구원장님과 다른 분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식사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그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영훈 : 제가 오전에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독일의 지겐스팩 교수님에게 듣겠습니다.

권이중 : 오전에 이윤구원장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다른 두 분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첫번째 것은 통일전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어떤 청소년교류가 독일에는 과연 있었는가, 만일 교류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두번째 질문은 통일 후의 탈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민주화의 과정에서 청소년들간의 큰 갈등은 없는가?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최근에 독일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수련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겐스팩 : 통독이전의 독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불란서와의 독일과의 오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청소년들을 불란서로 수만명씩 보내 주는 것, 미국으로 보내 주는 것, 이스라엘과 독일사이에 수만명씩 교류를 해서 민족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동독과의 관계로 국한해서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동독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 가신다고 위급한 소식이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공식적인 교류로는 조직을 해 가지고 체육단체, 문화단체, 연극단체, 음악단체 사이에, 정당으로서는 동독의 공산당하고 서독의 에스페데라는 정당간에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단체방문은 철저한 통제 감시하에 일정지역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교류는 교회나 예술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추진하였는데 주로 1일방문제도를 선택

해 가지고 동서독간의 청소년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통독이후의 동독아이들의 민주화과정을 어떤 특수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였는데 특수교육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규율변화같은 것을, 어떤 도덕습관이나 윤리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화실현에 있어서 국가에서 통제해서 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정치가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도구에 의해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방법이고 개인생활이 정치생활하고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와 생각의 변화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특히 성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화가 이루어질려면 지금 현재 국민학교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까지 나와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는 완전통합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변화하는 이런 모형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큰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라미드를 관찰하며는 피라미드 맨꼭대기에 있는 것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는 면적으로 보며는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문제라는 것은 바닥에 깔려있는 삼각형으로 봤을때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넓고 복잡하고 오랫동안 쌓여진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기에요 요사이 신나치주의라든가 외국인을 증오한다든가 폭력을 보인다는가 사람이 죽는거 이런 것은 사람이 아주 부분적으로 죽는 대단히 슬픈 문제이긴 하나 그것은 숫자적으로 적고 질적으로 봐서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이라든가 매스컴들이 지나치게 자극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평가 및 성적문제인데, 성적평가, 학교에서의 지나친 학업주의,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적돼 가지고 폭발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의 요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대학 나온 사람도 직업교육을 받아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격려하는 정책으로 350명을 뽑는데 6000명의 대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에 대한 답변입니다. 캠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독일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실 캠프 같은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부모들이

같이 있는 데서부터 자녀들하고 캠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독일에서는 캠핑을 하루생활 관찰과 관련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한 학교의 학생이 500명이 넘는 데가 없으니까요. 이 캠핑하면 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학교라고 해서 한 반이 가서 1주일씩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지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도장소에서는 영리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많은 마음과 손재주 등과 같은 페스탈로찌의 3대 이론을 갖고 독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학생이 옮겨가서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마를 하고, 수영을 하는 등, 이런 실제적인 참여가 있는데 조직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 캠핑문제도 그렇고 정치교육문제도 그렇고 통독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서 청소년교육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독일이 통독을 가져온 것은 정치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과제, 점진적이고 개인적인 공감대 형성, 점진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통일을 가져 왔습니다. 사회구조적인 과제로 풀어 나가야지 정치적인 수단, 정치가가 팡팡 망치질하면서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더 보충설명하면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통합과정이라는 것은 각 집단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한 국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런 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통합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서영훈 : 마침 중국 상해 사회과학원에서 우리말로 소송홍교수이고 중국말로 수송썩교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소 교수께서 주제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송홍 : 「중국 통일과 청년문제」 논문 일부 낭독

서영훈 :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분이 늦게 오셔서 시간이 모자라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니 미리 읽어 보셨을 줄 압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받겠습니다. 한 10분 질문을 받겠는데 질문과 답변에는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통역해 주실 분은 본 연구원의 기획준비단장으로 계신 함병수 박사님께서 중국어로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함병수 : 방금 소개받은 본 연구원의 함병수입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상해에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한시간 반가량 날아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해서 서울에 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실례를 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오다가 차가 막히고 해서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통역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주십시오.

질의 : 고려대학교의 김동규입니다. 소교수 논문의 두번째 장에 “봉쇄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몇가지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만에서 대륙 정부를 차단해서 대만 학생들이 심지어 “노신”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와 동시에 대륙에서 대만정부를 차단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의 : 청소년연구원의 최현입니다. 혹시 현재 통일을 위해서 중국정부와 대만간의 청소년교류가 있는지 또 혹시 청소년교류활동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활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동질성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 유네스코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임성호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는 인터내셔널 유스캠프라든지 국제청소년이 만나고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올해도 대만에서 학생들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Shanghai Youth Council 또는 Youth Organization in Shanghai에서는 처음에 참가하겠다는 팩스까지 왔지만 대만 때문에 보낼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오지 못했습니다. 과연 교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정책적으로 회생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정책방향인지 그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소송홍 : 대만에서는 40년간 공산당 당원 또는 정부관원 등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았겠지만 대륙에서는 지금까지 대만에서 온다고 하면 다 비준을 해줬습니다. 지금 숫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만에서 대륙에 온 사람이 2-3배 많았습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1개월 전에 상해에서 한 단체가 대만을 갈려고 했더니 대만정부에서 거부해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대륙에서는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왔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중국과 대만과 청소년 교류가 있었으나, 있었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하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만과 중국과의 청소년교류가 없었습니다. 1981년부터 중국에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아 국가, 서유럽, 동구와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만과의 교류는 아직 없습니다.

함병수 : 아까 저하고 차타고 오면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만과의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혹시 그 자료를 자기에게 보여줄 수 없겠느냐 할 정도로 유일하게 대만과의 청소년 교류가 없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대만과의 청소년교류를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송흥 : 세번째로 유네스코에서 오신 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청소년의 활동정책은 어차피 정치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들이 국제회의에 같이 참가한다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만의 학자들이 정부 쪽의 성격을 띤 사람이 오면 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중국의 중국청년단이나 대만에 있는 반공청년구국단은 청소년들의 지위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면 외에 그 전에 청년반공구국단이 표시하듯이 정치성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청단, 공청단과 같은 경우 사회성, 정치성을 고양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부득불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영훈 : 그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면 세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하겠습니다. 소교수에 대해서는 세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 : 평화통일 신문사 장영선이라고 합니다. 상해에 있는 청소년들의 국가관은 어떤가 하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고요, 두번째 질문은 상해의 청소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송흥 :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흐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우리는 문화대혁명을 역사의 큰 실수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변동이 개방화시대라서 급격하게 사회변화가 중국에 도래했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도 당연히 바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통가치가, 그 이전에 문화대혁명이전에 국가위주의 가치관이 무너지지도 않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지도 않은 그 혼란한 과정에서 일정한 표준적인 가치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전의 가치관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국가위주의 가치관을 청소년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국가이익 위주의 국가관을 가치관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 같은 데서 국가와 개인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국가이익을 중요하게 삼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는 기준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뚜렷하게 상해청소년의 가치관이 이것이라고 내걸만한 것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985년부터 일본의 청소년연구소와 상해청소년연구소, 미국의 연구소 등 세계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를 해 왔는데 일본은 일본대로의, 미국은 미국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일본 청소년은 ‘구보다’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국청소년은 1985년부터 쪽 조사를 해 왔는데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주은래’라고 합니다. 주은래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문화대혁명과 모택동의 문제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택동의 업정 중에 문화대혁명이 가장 큰 실패작이라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모택동을 그래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모택동, 젊은 모택동은 양심적이었고 국가를 위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 망령이 들어서 실수를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989년 6-3 천안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당이 싫다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간부의 부패상 때문에 청소년들이 반기를 들었는데 나도 국가공무원인데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6-3천안문사태가 만약에 문화혁명시기 전이었다면 서명 사실이 드러나면 숙청되었을텐데 문화혁명 뒤라서 그러한 그 문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영훈 : 여러분들, 오랜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토론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런 세미나가 시간이 늦어지면 토론은 대개 부실하기 마련인데 오늘도 소교수께서 늦었기 때문에 한 30분정도 늦어졌습니다.

사회자로서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연구원에서 정말 뜻있는 세미나를 주최하셨는데, 오전에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전에 와서 발표하신 분들 얘기를 듣고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날의 현주소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반세기 분단상황에서 그것도 세계 역사의 모순 갈등구조의 첨예한 모순 속에서 체제를 형성할때 비정상적으로, 적대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자유로이 체제를 형성,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적을 너무 무섭게 경계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그것을 꼭 이기겠다는 결의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것도 동족이 반쪽을 차지하고 상호간에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느라 그랬고 그러다 많은 도전을 안으로 밖으로 받다가 세계 질서가 와해되고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국제정세는 다 평화공존, 협력, 그리고 국가간의 경쟁시대로 들어섰는데 우리 민족은 두나라로 나뉘어 적대관계로 있습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상반되는 이념체제를 가

진 배후세력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서 형성되던 체제고, 또 남은 모르겠으나, 북을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그쪽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주체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습왕조를 건설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비교해서 좋은 사회인가 이렇게 볼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남쪽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택해서 자유의 가치를 높이고 역시 체제형성이나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개방사회, 외부의 문물을 많이 받아 들이면서 전통사회 가치가 차츰 사회발전과정에 알맞추어 변화되면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외부 문화가 들어와서 주인의식, 주체성, 남한의 정체 의식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북은 북대로 유일, 일원화, 그리고 권위주의에 의해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고 느꼈는데 발표하신 분이 다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차츰 여러가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인식과 태도를 고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세기 이제 8년, 7년 남았는데 21세기 그 속에서 우리도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경제에 지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준칙이라든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그중에서도 감정적인 원한 같은 것도 잊고 과거의 여러가지 문화형태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가치체계, 이념과 규범과 시민의식과 이런 것을 여러가지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지혜도 살려야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창조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시도하고 남북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연구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점 바람직한 통일로 접근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자연이 얘기되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발표를 해주셨고 토론해 주셨고 모든 발표해주신 분과 토론해주신 분과 또 여기 참여해서 끝까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불려 나와서 미리 자료를 못 읽었고 또 나이 70에 무슨 사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가지 실수가 많은 것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구 : 서영훈 선생님께 오늘 어려우시더라도 오후 모임을 나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건 사실은 사회를 하시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겁게 앉아서 좌장노릇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시게 해서 저희로써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셔서 좌장노릇 하신 적이 최근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지만 두가지만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독일의 지겐스팩 교수나 시간이 아주 늦어져서 못오실 뻔한 소송홍 박사나, 연변의 김장옥 교수 모두가 먼길을 오셔서 저희에게 여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김동규 교수, 박성희 박사 모두 애써 주셨고 또 토론해 주신 도홍열 교수님이나 윤덕희 박사나 박인주 국장님 다 귀한 분들이 시간내서 도와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예상을 안했던 중요한 손님들이 꽤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대학의 남북관계를 생각하시는 분, 연구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주셔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개최할 때 제가 오늘 모임이 시작하면 연길에서 또 그 다음에는 평양에서 금강산에서, 설악산에서 자꾸 모이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모임이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하면 시리츠로 해마다 여기저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아쉬운 간절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시간보다 45분 늦어졌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주최측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자료를 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오신 분들께는 다 전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여러 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만일 다음 번 모임을 연변에서 하게 된다면 김장옥 교수님께서 우리를 다 청해 주실것 같고, 그곳이 정말 우리 한 민족의 전형(prototype)이라고 저는 연변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소박사님, 연변에서 오신 김교수님께 다시한번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 구 보 고 '92-2-12

민족 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1992년 12월 25일 인쇄

199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윤 구

발행처 한국청소년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 137-130

인 쇄 문성인쇄사

전화 (02)701-512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함

구독문의처 : (02)578-3987(자료실)

